

1981-2011 | 창립 30주년 기념 / 통권 제 28호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한인교육연구

JOURNAL OF KOREAN-AMERICAN EDUCATION

- * 한국어 국어 교육 연구
- * 한국어 교실
- * 교사론
- * 정체성 교육
- * 역사수업
- * 한국학교 교육안 예제
- * 한국학교 교육개론

* 권말부록:
창립 30주년 기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30년 연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http://www.naks.org>

우리 아이들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NAKS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3034 Bridgefield Dr. Ann Arbor, MI 48108 U.S.A.
Tel: 734.973.1830 Fax: 734.657.5510 www.naks.org

15

1981-2011 | 창립 30주년 | 통권 제 28호

한인교육연구

JOURNAL OF KOREAN-AMERICAN EDUCATION

{ 목 차 | Contents }

1. 한국어 교육 연구

- 4 |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의 특징 | 권재일
- 9 | 한국어 교육의 현실과 플래그쉽(Flagship) 이니시이티브 | 손호민
- 16 | 일대일 화상회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 임병진
- 22 | 세종대왕과 한글 | 최용기
- 30 | 우리의 자랑, 한글 | 김형배 (추천-최용기)
- 34 | 재외동포 아동 한국어 작문의 결속 구조 | 최은규

2. 한국어 교실

- 42 | 세계의 언어 전쟁 텍사스에 한국어 심기 | 박정수

3. 교사론

- 50 |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교사의 자세 | 김도일
- 54 | 한반도 평화정착과 재미동포 교육자의 역할 | 윤경로

4. 정체성 교육

- 59 | 3.1 독립운동이 조명하는 한국인의 정체성 | 김치경

5. 역사 수업

- 64 | 재외동포를 위한 올바른 역사 수업의 이해 | 남상엽

6. 한국학교 교육안 예제

- 77 | 『백범일지』 교육안 | 정안젤라

7. 한국학교 교육개론

- 101 | “무엇”보다 먼저 “왜”의 정립 | 허병렬

8. 협의회 연혁

- 104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30년 연혁 | 이광호 정리
- 130 | 역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임원단, 이사장단 및 감사 명단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의 특징

권재일
대한민국, 국립국어원 원장



〈훈민정음 언해본〉

“한국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어족에 속하는지는 앞으로 개별적인 알타이언어를 더 철저히 조사하여 한국어와 비교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찾는 한편, 한국어의 여러 방언을 조사하여 그 속에 담겨 있는 한국어의 옛 모습을 찾아 연구해야 할 것이다.”

§ 1. 언어와 문화

언어는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형성하는 구실도 한다. 그래서 한 국가나 민족은 공통된 언어 구조에 이끌려 공통된 정신과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유한 문화를 창조한다. 그러므로 언어는 이를 사용하는 민족과 그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한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이어주고 문화를 이끌어 준 것이 바로 한국어이다.

§ 2. 한국어와 한글의 세계적인 위상

이러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국어를 제1언어인 공용어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한국과 북한의 주민이 여기에 속한다. 대략 7천5백만 명이다. 둘째는 한국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중국, 일본, 미국, 중앙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 살면서 저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 등 그 지역의 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주로 한국계 이주민과 그 후손들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워 사용하는 경우이다. 최근 한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 수가 처음 실시한 1997년에 2천여 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20만 명 가까이로 늘어난 것을 보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상당한 수에 이르러 세계 여러 언어 가운데 13위쯤 되는데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 사용 인구와 비슷하다. 그뿐 아니라 지난 해 인터넷 관련 국제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어가 인터넷 사용 인구로 보면 세계 10위라 한다.

또한 2007년 9월 제43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한국어가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어, 한국어로 국제 특허를 제출하거나 특허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한국어는 이제 국제어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적는 글자인 한글의 위상도 대단하다. 잘 알다시피 한글은 창제한 사람, 창제한 날짜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으며 창제한 원리를 적은 기록(<훈민정음 해례>, 국보 70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전해 오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글자이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히 자랑스러운 글자이다. 이제 이러한 한글이 세계 속으로 보급되고 있다. 2009년 훈민정음학회가 인도네시아의 한 소수민족 언어인 짜아찌아말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한 일은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일이다. 창제 원리가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이어서 배우기 쉬운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어만의 글자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였던 한글이 드디어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로 진출한 것이다. 바로 한글 나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지속된다면 장차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 한글을 지구촌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길이 열릴 것이며 또한 문맹 타파라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념을 널리 펼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면 이러한 한국어는 세계 여러 언어들과 견주어 볼 때 어떤 특징을 지닐까? 이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3.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징

3.3.1. 세계의 언어

이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가짓수는 얼마나 될까? 언어학 책이나 백과사전을 살펴보면 적게는 3천, 많게는 7천여 언어를 들고 있어 제 각각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날까? 그 까닭은 다름 아니라 언어와 방언의 차이가 불분명한 데 있다.

방언이란 한 언어의 하위부류로서 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뜻을 주고받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는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충청도방언과 강원도 방언이 그러하다. 그러나 영어와 일본어를 쓰는 사람이 각자 자기 말을 쓰면 서로 뜻을 주고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방언과 언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흔히 <의사소통능력>을 든다. 말이 차이 나는 두 지역 사람이 만나 서로 의사소통이 되면 그 두 지역말은 같은 언어의 방언이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별개의 언어이다.

그러나 <의사소통능력>이라는 기준에 따라 언어와 방언의 구분이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언어에 속하는 방언이면서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서로 다른 자기 언어를 쓰면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첫째 예로는 중국어를 들 수 있다. 표준 중국어인 베이징방언과 남쪽의 광둥방언은 같은 중국어이면서도 서로 차이가 커서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다. 둘째 예로는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언어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각각 독자적 특징을 가진 별개 언어들인데 이 세 나라 사람들은 서로 자기 나라 말을 쓰면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의사소통한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어와 키르기스어의 경우도 자기 나라 말을 쓰면서 서로 의사소통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세계 언어의 가짓수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어렵다.

3.3.2. 세계의 언어를 분류하는 방법

한국어를 세계 여러 언어들과 견주어서 말할 때, 흔히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하기도 하고, 교착어에 속한다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언어들은 똑 같은 정도로 차이 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에 비해 더 비슷하거나 더 가까운 것이 있어, 서로 가까운 것끼리 묶어 분류해 볼 수 있다.

분류하는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언어의 구조적 특징에 근거하는 기준인데, 이를 언어의 유형론적 분류라 한다. 둘째는 언어의 기원과 역사에 근거하는 기준인데, 이를 언어의 계통론적 분류라 한다.

언어의 유형론적 분류란 언어가 지니는 말소리 구조, 어휘 구조, 문장 구조에 따라 같은 특징을 가진 언어들끼리 묶어서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문장을 구성할 때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놓이는 언어들이 있는가 하면(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영어나 중국어처럼 목적어가 서술어 뒤에 놓이는 언어들이 있다(John loves Mary). 이러한 어순과 같은 문법 구조에 따라서도 세계 여러 언어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언어의 계통론적 분류란 그 언어의 뿌리가 어디에 있으며, 같은 뿌리에서 갈려나온 언어에는 어떤 언어들이 있는지를 밝혀 나누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누어 기원이 같은 언어들끼리 묶은 것을 어족이라고 하는데, 알타이어족, 우랄어족, 중국-티베트어족, 인도유럽어족, 햄-샘어족과 같은 것이 그 예다. 인도유럽어족에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그리고 그리스어, 라틴어 등이 속한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잠정적으로 알타이어족에 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은 단정 지을 수 없다.

3.3.3.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징 (1) - 문법 기능 실현 방법

흔히 한국어를 유형론적으로 교착어라 한다. 교착어란 문법형태소를 하나씩 하나씩 덧붙여 문법 관계를 표현하는 말을 뜻한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오늘 할아버지께서 서울에 오시었다

이 문장을 살펴보면, ‘할아버지’에 ‘-께서’가 붙어 높임을 표현하고, ‘서울’에는 ‘-에’가 붙어 위치를 표현하고, ‘오시었다’의 ‘오-’에 ‘-시-’가 붙어 주어를 높이는 기능을, ‘-었-’이 붙어 동작이 과거에 일어났다는 기능을, ‘-다’가 붙어 서술문이라는 기능을 표현하고 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터키어, 몽골어, 그리고 핀란드어 등도 교착어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법 기능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자. 문법 기능을 실현하는 방법은 언어에 따라 서로 조금씩 다르다. 한국어와 영어의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였다.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였느냐?
John loved Mary.
Did John love Mary?

먼저 문장종결의 경우, 서술문과 의문문을 나타내는 방법을 살펴보자. 한국어에서는 종결어미 ‘-다’에 의해 서술문을, ‘-느냐’에 의해 의문문을 나타내는 반면, 영어에서는 문장성분이 문장에 놓이는 위치에 따라, 즉 주어가 앞에 놓이면 서술문을, 서술어가 앞에 놓이면 의문문을 나타낸다.

다음에 문장성분을 나타내는 경우, 한국어에서는 조사 ‘-가’에 의해 주어를, ‘-를’에 의해 목적어를 나타내는 반면,

영어에서는 서술어 앞에 위치하는 성분이 주어, 뒤에 위치하는 것이 목적어가 된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한국어는 어미와 조사와 같은 문법 형태소에 의해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언어이며, 영어는 각 문장성분이 문장에서 놓이는 위치에 따라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언어이다. 결국 한국어는 주로 어미나 조사와 같은 문법 형태소에 의해서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진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를 연구하거나 교육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어미와 조사 같은 문법 형태소의 종류, 기능, 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특히 한국어와 문법 기능의 실현 방법이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더욱 그러하다.

3.3.4.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징 (2) - 어순

다음은 한국어 어순의 유형론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문장 안에서 각 문장성분 사이의 상대적 위치, 곧 문장성분의 배열 순서를 어순이라고 한다. 한국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이웃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알타이언어들이 대개 그러하고, 이란어, 힌디어, 벵갈어 등도 한국어와 어순이 같다.

세계 언어의 어순 유형은 주어(S), 서술어(V), 목적어(O)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 여섯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국어와 같은 SOV 유형과 영어나 중국어와 같은 SVO 유형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순 유형에 따라 다양한 문법 특징이 결정된다.

SVO 어순	SOV 어순
전치사	후치사
비교급+기준형	기준형+비교급
명사+수식어	수식어+명사
명사+관형격	관형격+명사
조동사+주동사	주동사+조동사

어떤 언어는 어순이 문법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어떤 언어는 어미나 조사와 같은 것이 문법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순이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언어에서는 문장성분들의 상대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문장 안에서 성분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한국어는 주로 어미와 조사에 의해 문법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주어+목적어+서술어’로 배열되지만, 목적어가 주어 앞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다만 어순이 달라지면 섬세한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였다. (주어+목적어+서술어)
영희를 철수가 좋아하였다. (목적어 이동. 목적어에 의미 초점을 둠)

한국어의 문장성분 가운데 가장 고정적인 것은 서술어다. 서술어의 위치는 문장의 맨 끝이 기본적이다. 서술어가 문장 끝에 위치하고, 나머지 문장성분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다. 물론 문장 안에서 문장성분의 이동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주어는 문장의 가장 앞에 위치하며, 목적어나 보어는 서술어 앞에 위치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그들이 수식하는 문장성분 바로 앞에 오는 것이 기본적이다. 그런데 관형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기본 위치에서 이동될 수 없지만, 부사어는 여러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다. 독립어는 문장 가장 앞이나 가장 뒤에 위치한다.

역시 한국어를 연구하거나 교육할 때에는 한국어의 기본어순과 어순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어와 어순의 특징이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더욱 그러하다.

§ 4. 한국어의 계통

흔히 상식적으로 한국어가 우랄-알타이어족에 속한다든지 또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한국어는 알타이어족 혹은 우랄-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들과 같은 계통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언어에는 몽골어파, 만주-통구스어파, 튀르크어파가 있다. 튀르크어파에 속하는 언어는 터키어를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키르기스어 등이다.

그리면 한국어가 알타이어족과 어떤 공통성이 있어서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보게 되었는가? 우선 말소리의 특징이 비슷하다. 만주-통구스어, 몽골어, 튀르크어, 한국어에 모음조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문법도 비슷하다. 다음에는 각각 몽골어파의 한 언어인 다고르어와 만주-통구스어파의 한 언어인 어웁키어의 문장이다. 이들 문장을 살펴보면, 모두 한국어와 어순이 일치한다.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서이고, 어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어미들도 발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əwəə	budaa	sjan-ijə-bəj	ačaa	čee	wəə-jəə-bəj
ənin	jækti	oloo-ji-rən	amin	čai	im-ji-rən.
어머니는	밥을	짓고	아버지는	차를	마신다.

그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러한 어순을 가진 언어는 한국어나 알타이어족 이외에도 있다는 것이다. 또 모음조화도 한국어나 알타이어족 이외의 언어에도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몇 가지 현상만으로 한국어가 알타이어족과 계통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어순이라든가 모음조화는 언어 간의 계통을 단정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참고가 될 뿐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위의 문장 가운데서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두 언어가 같은 계통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말소리의 체계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그 동안 한국어의 계통에 대한 여러 연구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졌지만 아직 비교언어학적으로 체계적인 말소리의 대응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학계에서는 위의 세 어파를 묶어 알타이어족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는 학설이 있는가 하면(알타이어족설) 동의하지 않는 학설도 있어(비알타이어족설), 알타이어족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불확실한 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 한국어의 계통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타당하다고 하겠다.

“알타이어족이 성립한다면,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직 언어학적으로, 비교언어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어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어족에 속하는지는 앞으로 개별적인 알타이어족을 더 철저히 조사하여 한국어와 비교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찾는 한편, 한국어의 여러 방언을 조사하여 그 속에 담겨 있는 한국어의 옛 모습을 찾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교육의 현실과 플래그십 (Flagship) 이니시아티브

손호민
하와이대학교 동아시아어문학과 교수
한국어플래그십센터 소장



〈한국어 플래그십 프로그램〉

“외국어교육은 단시일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상급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16년 이상의 장기간의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생동안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재, 평가에서 이음매 없는 초-중-고-대의 종적연계가 중요하다.”

1. 서론

각종 통계와 필자 자신의 40년간의 관찰과 경험에 의하면, 미국의 각급학교(대학, 초중고, 한글학교) 한국어 수강생의 수는 과거 30여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수강생의 증가는, 재미 한인인구의 급증, 한국의 경제발전,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어교육정책과 국책언어정책(한국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힌두, 이란어 등 국가안보와 국제경쟁력 증진에 필수적인 언어의 지원정책), 한국정부의 세계화 정책, 한류, 한국학의 학문적보급, 한인지역사회의 후세를 위한 한국어교육열, 한국 어 교육자들의 활동, 각급교육기관의 협조 등 많은 외적, 내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실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다른 주요언어와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대학의 경우를 보자. 미국 현대언어협의회

의 대학 등록상황 통계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한국어 수강생 수는 2009년 8,511명으로, 200 여개의 대학 외국어 중, 13위를 점한다. 수강생 73,434명인 5위의 일본어나 수강생 60,976 명인 6위의 중국어와는 필적할 수 없는 열세에 있다. 더욱이 1위인 스페인어나 2위인 불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소수언어이다. 현재, 미국의 약140개의 일반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데, 이 수는 미국전체에 있는 약 7,000개의 대학의 50분의 1에 해당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규 초-중-고 학교의 한국어교육은 더욱 열세이다.

Languages in descending order	2002	2006	2009
1. Spanish	746,267	822,985	864,986
2. French	201,979	206,426	216,419
3. German	91,100	94,264	96,349
4. Italian	63,899	78,368	80,752
5. Japanese	52,238	66,605	73,434
6. Chinese	34,153	51,582	60,976
7. Arabic	10,584	23,974	35,083
8. Latin	29,841	32,191	32,606
9. Russian	23,921	24,845	26,883
10. Greek, Ancient	20,376	22,849	20,695
11. Hebrew, Biblical	14,183	14,140	13,807
12. Portuguese	8,385	10,267	11,371
13. Korean	5,211	7,145	8,511

2. 한국어의 수요와 공급

간혹 한국어습득의 필요성 또는 수요 문제가 거론된다. 미국 성인이 배우기에 가장 어려운 외국어인 한국어를 왜 배워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간단히 한국어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정리하고 현재 공급량의 극단적인 부족을 논의해 본다.

우선, 현재 세계의 인구 약 60억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는 약 6,000개이다. 한국어를 단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남북한 인구가 7,400만 가량인데다, 현재 5백 30만 가량의 한국계 인구가 미국, 중국, 일본, 구소련을 포함한 세계 도처에 이주해서 살고 있다. 인구 순위로 보아 세계 12위 내외의 주요언어이다. 더욱이 한국은 세계 12위로 알려진 경제강국이다. 날로 급성장하는 부유한 나라이다. IT, 자동차, 조선 산업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세계인을 매혹시키는 한류문화, 예술 스포츠에서의 한인들의 탁월성, 미국에서의 한인들의 우수성과 성공사례 등, 이 모두가 한국과 한국인의 가치화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성공한 한국경제, 한국문화예술, 한국인을 이해하고, 배우고, 접촉하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한다.

현실적인 국제교류측면에서, 한국은 외교, 통상, 재정, 학술, 과학기술, 환경,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관계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속되고 발전한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과의 원활한 관계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민이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영어가 유창하고 미국문화를 잘 아는 한국인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교육과 습득은 미국의 국가경쟁력과 안보 그리고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필수요건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200만 내외의 한국계 인구가 미국에서 건실한 한국계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각종 한국기업체가 미국에 진출해 있다. 특히 무수한 한국인 교회와 교회문화는 날로 성장,

팽창해 간다. 한인 상가와 식품, 음식점은 도처에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이들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한국어구사가 필수이다. 한국어능력은, 일반 한국인들과의 교류는 물론, 한국인과 관련되는 다양한 직종을 유익하게 운영하거나 그런 직종에 효율적으로 종사할 수 있다.

한 국학을 위시한 학문적 수요도 크다. 한국은 오랜 역사상 중국과 일본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면서, 여러가지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해왔다. 따라서 동아시아를 논하면서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과 일본만을 논할 수 없게 되었다. 언어, 문학, 역사를 포함한 인문사회과학 전반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국학을 중국학이나 일본학의 일부로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분야에서 양자의 중간에서, 어느쪽으로도 속하지 않는 독자성과 특수성과 발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언어유형적 특성때문에 언어학자들의 관심도 크다. 이러한 모든 학문을 위해서는 상급 수준의 한국어습득이 필수요건이다.

그리고 200만의 재미 한국인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한국어를 알고 배워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계 후예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습득과 보존은 부모 친척 친지와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뿐 아니라 개인의 학업, 직업, 가족과의 유대관계, 지역사회에 참여, 한국과의 유착, 정체성유지 등에 극히 중요하다. 특히 어려서 부터 한국어, 한국문화 습득은 한국계-미국인이라는 이중정체성 확보의 필수요건이다. 실로 두 개의 세계를 가지게 된다.

한 국어능력의 수요의 급증에 따라, 많은 유능한 한국인 교사, 교수를 각급학교에서 필요로 한다. 예컨대 Monterey 소재의 미국 국방외국어대학에서는 현재 150명 이상의 한국인 전임 교수가 군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연중 교수를 채용하고 있고 일반 대학에서도 계속 한국어 전임교수 모집공고가 나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직업난에서 한국어교수직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한국어 수요의 꾸준한 증가세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3. 한국어교육의 현안

한 국어의 막대한 수요에 비해서 현재 각급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의 수는 너무도 부족하다. 한편, 그러한 막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을 포함한 각급학교의 한국어교육의 대폭적인 질적, 양적 향상이 요구된다. 우선 각급학교의 한국어교육의 현실을 개관한다.

3.1 대학교육의 현실

대 학의 한국어프로그램의 가장 큰 약점은 언어접촉시간과 언어사용기회가 너무도 부족한데 있다. 한국어는 영어권 성인에게는 습득하기 가장 어려운 소위 제4범주의 언어(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이다. 그중에서도 한국어가 가장 어렵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영어와는 음성, 음절, 어형, 문장의 구조가 완전히 양극을 이루고, (소수의 외래어 외에는) 영어와의 공통어휘가 없고, 문자가 전혀 다르고, 사회언어적 차이, 담화형태의 차이가 극히 다르다. 이러한 언어적 차이뿐 아니다. 가치관 등 정신문화의 차이, 행동문화나 문화유산의 차이, 미국학과 한국학의 학문적 차이까지도 극심하다.

현 재 미국대학의 정규 한국어 핵심과목의 교과과정을 보면, 2년제, 3년제, 4년제가 있는 것이 보통인데, 4년제의 경우,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누어 각급을 일년간(두 학기 또는 3분기) 수학하고, 수업시간 수는 일주일에 5시간(1,2급) 내지 3시간(3, 4급)을 할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외에 드물게는 작문, 문학, 문화교육, 한자교육도 곁들인 학교도 있다. 1급에서 시작하여 4급까지 4년간 핵심과목만을 택한다면 총 약500시간을 공부하게 된다. 미국국무부 외국어연수원(FSI)의 언어습득통계인 표4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경우, 500 시간으로는 겨우 미국외국어협회 기준의 중급수준에 도달한다. 한편,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 등 영어와 동족언어의 경우는 같은 시간 안에 한국어보다 3배나 빨리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4학년급을 마치면 상급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4범주언어의 교육기간	언어습득 성향		
	평균이하	평균	평균이상
480 시간	초급-상	중급	중급
720 시간	중급	중급-상	중급-상
1320 시간	중급-상	상급	상급-상
2400 - 2760 시간	중급-상	최상급	최상급-상

중급수준이면 일상생활의 기본적 의사소통은 겨우 유지되나 그 이상의 언어기능은 수행할 수 없다. 대학입학 전에 한국어를 배웠거나 가정이나 한글학교나 한국에서 장기간 한국어에 접한 학생은 대학에서 보통 초급-상이나 중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년간 배우면 중급-상 내지 상급 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현존 대학의 한국어프로그램과 교재, 교수법은 대체로 중급-상 내지 상급을 최고한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상급 수준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교과과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3.2 초-중-고 교육의 현실

현재 미국의 10만개 이상의 초-중-고 학교 중 겨우 총 73개에 불과한 학교에서 정규 한국어 과목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8개, 중학교 10개이고 나머지는 고등학교 (42)이거나 기타 종합학교(13)이다. 초등학교는 LA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정규학교는 LA 중심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뉴저지 주에 있고 기타 극소수만이 워싱턴주와 일리노이주에 있다. 한국계 인구가 4만5천인 하와이주를 포함해서, 한국계가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여러 주에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개설한 초중고 학교가 하나도 없다.

더 많은 초중고 학교에 한국어를 도입하도록 하는 문제는 과거 20년간 미국의 한국인 사회 (예컨대 SAT 장학재단)와 한국어교육계(예컨대 전미국한국어교육자협회)에서 강연, 토론, 언론(신문, 방송, TV), 학술대회, 지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장려하고 시도하고 실천해 온 중대한 현안문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어가 SAT II과목으로 채택되고 현재 연 4천 명 이상의 고등학생이 응시하는 데도 초중고의 학교수는 그리 큰 변동이 없다. 아직 AP프로그램이 없다는 점, 스페인어나 중국어나 일본어와의 경쟁에서 밀린다는 점, 자금 부족, 교사부족 등 여러가지 심각한 이유가 있다. 과거 3, 4년 사이에 새로 생긴 프로그램도 있지만 폐쇄하는 프로그램이 20개교가량 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¹.

3.3 한글학교의 현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정규 초-중-고교의 한국어교육프로그램, 특히 초-중교의 정규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은 극히 열악하다. 이들 초-중학생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한인 1세 가정이거나 전국적으로 1,000개 가량 되는 한글학교이다. 많은 1세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연스런 한국어를 사용하여 생활하면, 학생의 일상한국어가 향상된다. 아울러 한국 TV나 책을 일상적으로 즐기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배워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가정은 이민 1세가 생존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체로 이민 2세부터는 한국어를 잃게되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일시에 약 50,000명 가량의 초-중등학생이 한글학교에 다니는데, 통상 매주 토요일 3시간(한국어

1. 이러한 불균형한 한국어교육의 현실에서 하와이대학의 한국어 플래그십센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두 가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첫째, 2009년 여름부터 우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집중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하와이대학에 개설했다. 둘째는 한국학생이 비교적 많은 고등학교 두 군데를 선정하여 한국어 강의를 시작하였다.

2시간, 한국문화체험 1시간)을 배운다. 한인인구 45,000 의 하와이주에도 한국어를 정규로 가르치는 초-중-고 학교는 하나도 없지만 한글학교는 30개 가량 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초-중교는 극소수이고 일정지역에 편재해 있음을 감안 하면, 한글 학교야말로 한인후세의 한국어, 한국문화의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며 그 사명 또한 크다. 더욱이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같은 유력한 한인사회 교육단체가 한글학교를 규합하고 조직적으로 연계시키며, 주기적인 연차대회와 각종 학술활동을 통해 한글학교의 질적향상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은 한글학교의 가시화와 장차의 지속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한글학교에서는 일주일 2시간의 한국어교육인만치 10주(한 분기)를 해도 20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일년(2~4 분기) 내내 4분기를 다녀도 겨우 80시간의 수업을 하게되어, 언어능력의 향상은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한글학교에 다님으로서, (1) 발음, 한글, 일상적표현 등 한국어의 기초를 습득하게 되는 것 이외에, (2)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미국시민~한국민족이라는 확연한 이중적 동질성을 터득하게 되어 동질성 갈등이 극소화되고, (3) 한국문화와 한국인 사회를 어려서부터 접촉하여, 장차 자랑스러운 이중언어인, 이중문화인으로 자랄 수 있고, (4) 한국사람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어려서부터 개발할 수 있게 되고, (5) 한국어와 문화를 계속 습득하려는 동기를 개발할 수 있다. (2) ~ (5)와 같은 이점은 정규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장점이다.

아직은 대부분 불완전하고 열악한 상황인데다 정규교육기관도 아니지만, 한글학교가 초-중등생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기능해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존 한글학교 운영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하와이대학에서 2007년 실시한 하와이한글학교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².

- ▶ 교재 부족
- ▶ 교사자질 부족
- ▶ 수업시간 부족
- ▶ 한국문화교육 부족
- ▶ 교과과정 및 학기구성 취약
- ▶ 학교운영의 체계성 부족
- ▶ 열악한 수업환경 (시설)
- ▶ 재정 및 정부지원 부족
- ▶ 학부모의 노력/관심/ 학생의 동기 부족
- ▶ 한글학교간 정보공유 부족

이러한 상황은, 예외는 있겠지만, 다른 주에서도 대체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믿어진다. 초-중등학생을 조금이라도 더 어려서부터 한국어교육을 시작하게 하려면,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위에 열거한 약점을 제거하여 한글학교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들 여러 문제와 취약점은 일조일석에 시정되기 어렵고, 한국정부정책과 지원기관, 재미한국학교연합회, 미국한국어교육자협회(AATK), 대학의 한국어프로그램, 후원종교단체, 교민사회, 학부모, 학생 등 관련된 모든 기관과 단체와 개인의 다방면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해결될 것이다. 결국 많은 한글학교 출신이 대학에서 한국어를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³.

4. 플래그십 교육

미국의 한국어교육은 과거 30여년간의 꾸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극복하고 시정해야 할 취약점과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현안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타결해 나가느냐가 한국어교육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 기관의 과제가

2. 손호민, 허소린, 최윤화(2007):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실태분석.”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587-603.

3. 하와이대학에서는, 한글학교의 질 향상과 학생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우선 가능한 일을 시작했다. 하나는 모든 한글학교를 대표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한 2년마다 5주간의 집중 교사훈련이고, 둘째는 한국일보와 하와이 한글학교협의회와 공조로 한글 글짓기와 한국어웅변대회의 개최이다. 한글학교에서 상급반을 마친 초등학생들을 위한 하기 집중교육도 계획하고 있으나 실시는 유보하고 있다.

고 고민이다. 그러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방책으로 최근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래그십 외국어교육 방법 즉 Flagship Initiatives를 들 수 있다.

미 국 국방부 산하의 국가안보교육프로그램(National Security Education Program-NSEP)에서는 미국의 안보와 국제경쟁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미국민이 최상급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는 확고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8개의 외국어를 국책언어로 지정하고 이들 언어를 강도높게 교육 시켜야 한다는 소위 플래그십 이니시아티브(Flagship initiatives)를 2002년부터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플래그십이란 해군의 총사령관이 탑승해서 군지휘를 하는 “기함”을 뜻한다. 외국어교육에 적용하면 외국어교육의 혁신적 리더십이란 뜻이 된다. 플래그십언어로 선정된 8개 언어는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한국어, 힌두어, 이란어, 터키어, 수아힐리어(아프리카) 등이다. 해당외국어 교육으로 이름있는 23개 대학을 선정하여, 거기에 해당언어 플래그십센터를 설치하고 각센터에 맡겨서 해당언어에 대한 플래그십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어같은 규모가 큰 언어는 9개 대학에 센터가 있는 반면, 한국어 등 5개 언어는 각각 하나의 센터밖에 없다. 하와이대학이 한국어 플래그십센터로 선정되었다.

국 가안보, 국제경쟁력, 국제교류, 문화간의 의사소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길은 미국학생들에게 당사국의 언어, 문화, 전문분야를 통달하게 하여 그 나라 전문가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플래그십교육의 이념이며 교육목표이며 사명이다. 학생들에게 각자전공분야의 외국어를 포함해서 그 언어의 원어민에 가까운 최상급 수준의 언어구사 능력을 달성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래그십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와이대학 한국어플래그십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방책을 하와이대학 한국어프로그램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 (a) 교육체제의 개편: 플래그십한국어 학사과정과 석사과정 신설.
- (b) 교과과정의 보강: 최상급 한국어 수준과 전공분야 한국어를 위한 과목의 개발과 도입.
- (c) 집중교육 모델: 일주간 학생당 20시간의 한국어교육(교실 수업과 개인지도).
- (d) 내용중심, 전문분야 교육: 상급반 한국어 교과과정은 (언어중심이 아니라)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학생의 전문분야를 한국어로 지도.
- (e) 현지 몰입교육: 모든 플래그십학생들은 고려대학에서 일년간의 현지교육(언어훈련, 전공과목 수강, 전문직종 인턴십)을 받음.
- (f) 창조와 보급: 혁신적 연구, 혁신적 교수모델(예컨대 원거리 교육체제)이나 평가도구의 개발과 보급.
- (g) 초-중-고 학생들의 한국어교육과의 연계.
- (h) 한글학교와의 협조.

이 중 (a)부터 (f)까지는 처음부터 활발히 추진중이다. 플래그십 프로그램에 들어온 학부 학사과정이나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은 학습동기가 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졸업할 때 최상급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들이야 말로 미국정부나 기업체가 채용하고자 하는 한국전문가인 것이다. 과거 어디에서도 길러내지 못했던 인재들을 플래그십교육을 통해서 양성한 것이다. 플래그십교육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설명은 필자가 다른 논문에서 발표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⁴. 그리고 교육 내용과 입학안내는 <http://koreanflagship.manoa.hawaii.edu>에 상술되어 있다.

한 글학교 학생들과 관계되는 (g)와 (h)에 대해서는 아직 실험적, 시범적 노력의 단계이다. 첫째, 하와이대학 하기대학프로그램을 통해서 중, 고등학생들에게 하기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생들에게는 학점이 없지만 고등학생들에게는 대학의 중급이나 중급-상 수준의 학점을 수여한다. 대학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의 시도는 일반 고등학교인 Roosevelt High School에 학교당국과 협의하여 한국어 초급반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하였는데 등록학생이 예상 외로 많다. 강사는 하와이대학 대학원생(플래그십센터 지원)으로 충당하였고, 중급반도 개설할 계획이다. 다른 몇몇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 과목을 개설할 뜻을 밝혔다. 셋째는 하와이 소재 30 여개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플래그십 교수들이 교사연수 워크숍을 3주간 내지 5 주간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학교수들과 한글학교 교사들의 연계를 이루고 교사들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되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평이다. 넷째는 하와이대학 플래그

4. Ho-min Sohn (2009): “The Language Flagship Paradigm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Research in Korean Language Pedagogy. Vol. 24: 21 - 4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십과 하와이한글학교협의회와 한국일보가 공동주최로 매년 한글글짓기, 한국말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한글학교 학생들과 하와이대 학생들이 참여하여 대 성황을 이룬다. 학생들의 한국어학습동기가 강화될 뿐 아니라, 초-중-고-대생들의 자연스런 유대가 형성된다.

이러한 일련의 플래그십센터의 시도는 궁극적으로는 대학 한국어교육으로 연계되는 건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초-중-고생이 대학입학 전에 탄탄한 한국어능력을 갖추면 대학에서 상급 내지 최상급까지도 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대학으로 이어지는 초-중-고생들의 한국어 교육의 질적 양적 향상이 한국어교육의 시급한 근본적인 과제이다. 이것이 또한 플래그십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사명이다.

5. 과제와 결론

상급이나 최상급 한국어 구사능력의 소유자는 바로 미국정부 각부처나 각종 기업체나 학계에서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고 미국 국력의 자원이 된다. 개인적으로도 한국인들과 자유자재로 소통하고 한국책, 신문, 방송, 인터넷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이중문화인이 되는 것이다.

외국어는 나이가 어려서 시작할 수록 더 잘 습득한다는 주장은 정설로 받아들여져 있다. 또 이중언어의 습득은 단일언어 사용에 비해 모국어 구사 능력뿐 아니라 지능발달에 더 유리하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 그리고 SAT II 한국어 시험성적은 학생들의 영어, 수학, 과학 등의 SAT 성적과 비례한다는 최근 보고도 있다⁵.

외국어교육은 단시일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상급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16 년 이상의 장기간의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생동안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재, 평가에서 이음매 없는 초-중-고-대의 종적연계가 중요하다. 연계없는 외국어교육은 자칫 12년간의 초중고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초급이나 잘해야 중급을 되풀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한국어의 경우도 초-중-고생의 한국어교육이 대학의 한국어교육에 잘 연결되도록 각급학교 선생님들간의 상호협조가 필요하다.

초-중-고-대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포괄적이고 현실적이며 치밀하게 제정된 ACTFL(미국외국어교육자협회)의 외국어교육기준(National Standards)과 평가지침(Proficiency Guidelines)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미 초-중-고의 외국어 교육은 전국적으로 이들 기준과 지침에 바탕을 두고 시행하고 있고, 결국 초-중-고 학생이 대학교육의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대학도 이 기준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5. 조기 한국어 교육의 절실함과 초-중-고-대의 한국어 교육의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전의 발표에서 충분히 논한바 있다. 예컨대, 손호민 (2008): “초-중-고-대 한국어교육의 연계와 교육기관의 공조.” <범세계 한국어교육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 3-12 참조.

일대일 화상회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임병진
위스컨신 대학교-매디슨



〈일대일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미 국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갖는 어려움과 동시에 목표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것과, 교실내에서 배운 한국어를 교실이외의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어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글을 시작하면서

나는 미국 중서부의 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에서 살아갈 때는 그냥 무심하게 흘러고 지나칠 수 있는 ‘국어 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말을 지금은 몸과 마음으로 절실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소개를 이곳 대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나로서는, 미국내에 한국어를 심고 널리 알리고자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여러 한국어 교사들에 대해 남다른 고마움과 애정, 그리고 동지애를 느낀다. 언어 교육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교육에 꼭 필요한 3가지 요소는 교사, 학생 그리고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져야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에 이 3가지 요소가 놓여지는 상황 (context)¹ 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성공적인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 하겠다. 그런 면에서, 미국내 한국어 교육이라는 ‘상황’은 좋은 학생과 훌륭한 교재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탁월한 교사들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은 그런 교사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겠다.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곰곰히 되씹어보는 가운데, 필자가 제한적으로 경험하고 그나마 익숙한 미국내 대학교라는 상황에 눈높이를 맞출 수 밖에 없는 필자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

1. Hadley (2000)

그대언어학회 (Modern Language Association)²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미국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의 등록인원은 1980년에 365명에서 2009년에는 8,511명으로, 아래의 도표1은 미국내 대학교의 한국어 수강인원의 증가 현황을 약 30년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다.

년도	수강인원수
1980	365
1986	875
1990	2,286
1995	3,343
1998	4,479
2002	5,211
2006	7,145
2009	8,511

〈도표 1: 미국내 대학교 한국어 수강생 현황 (1980년 - 2009년)〉

물론 이 수치들은 미 대학내 한국어 수강인원의 전체적인 증가현황을 보여줄 뿐,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지는 못한다. 여기에 미국내 동부, 서부, 중서부 그리고 남부에 걸친 지역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구성원을 고려한다면 한국어를 듣는 대학생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 아울러, 초급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한국어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에 맞추어 세분화하게 된다면 미국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듣는 학생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질문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에 대한 답변은 내 수업을 듣는 학생가운데 한명에게서 쉽게 들을 수 있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어를 아는 모든 이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생각을 함께 나누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렇다면, 미국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누구인가?

미주 한국어 교사 협의회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³에 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1500여개가 넘는 4년제 대학교 가운데 대략 200여개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그 가운데 초급과정 1학년부터 고급과정 4학년까지 가르치는 대학교는 20 여개를 조금 넘는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부분의 미국내 대학교들은 초급 과정에 해당하는 1/ 2학년 한국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한국어교육, 제2언어습득, 영어교육 교수에서부터, 언어학, 영어학, 영어 교육학, 교육학, 한국문학, 역사학 등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하는 대학원생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물론 이들의 공통점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한국과 한국문화를 한국어를 통해 소개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물론 이는 대학교에서 뿐만아니라 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한국어 교사들의 공통분모이기도 하다.

2. MLA: www.mla.org

3. AATK: www.aatk.org

본고에서는 미국내 한국어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특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대일 화상회의(videoconferencing)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 화상회의 (Videoconferencing)를 이용한 외국어 교육

1990년대 이후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외국어 교육은, 특히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대중화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좀 더 간편하게,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없이 다가가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의 실시간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문자 중심의 텍스트 채팅(text-chatting)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화상회의(videoconferencing)를 이용한 외국어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이미지와 소리, 그리고 제스처 등도 함께 전달할 수 있어서 생생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실질적인 언어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모국어 화자들과의 실시간의 대화를 통해 학습자들은 그 학습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등도 함께 배울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화상회의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커다란 강의실을 서로 연결하여 다수가 서로 화상회의를 가지는 room-based videoconferencing이 있다. 두번째는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일대일로(one-to-one) 학습자가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서로 연결이 되어 화상회의를 가지는 desktop videoconferencing이다.

1990년대 말기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된 화상회의를 이용한 외국어 교육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이미지 전송 기술과 화상회의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의 활발한 개발 및 보급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화상회의는 각 개인 컴퓨터에 장착된 마이크와 비디오 카메라 (또는 웹캠), 그리고 화상회의용 소프트웨어, 여기에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가능하다. 특히, 요즘은 각 개인용 핸드폰(cell phone)을 이용하여 서로 영상통화도 가능하고, 이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3. 일대일 화상회의(Desktop Videoconferencing)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미국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갖는 어려움과 동시에 목표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것과, 교실내에서 배운 한국어를 교실이외의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어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상황'이라는 요소는 이런 일련의 학습목표에 또 다른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곧, 미국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갖는 상황은 교실 밖을 떠나서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내 대도시의 한국계 교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가정에서나 교회, 또는 다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한국어를 접하고 사용하는 기회를 좀 더 가질 수 있겠다. 특히,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한국계 학생들(heritage-learner)에게는 '집'과 '교회'라는 환경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것이고, 이런 환경을 통해, 학생들은 자의건 타의건 한국어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에 반해 필자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의 한국어 학생들은 교실내 한국어 수업을 통한 교육이 전부일 정도로 교실 밖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 다행히 최근에는 영어 연수 및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수의 증가로, 한국어 학생들이 한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접할 기회도 상대

4. Indiana University, Michigan State University, Ohio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Iowa, University of Michigan, and University of Minnesota

적으로 많아졌다.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자를 포함한 미 중서부 대학교 한국어 프로그램⁴들에서는 대부분 language exchange program을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하여 한국어 학생들이 수업이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접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필자는 화상회의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을 한국의 2개의 대학교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필자의 2학년 한국어 학생들은 일주일에 5시간 진행되는 정규 한국어 수업이외에도 일주일에 한번, 한 시간동안 한국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과 일대일로 화상회의를 갖도록 하는 화상회의를 갖고 있다. 화상회의는 한국어와 영어로 매주 번갈아 진행이 되는데, 이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영어를 공부하는 한국 대학생들에게는 미국 대학생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영어 및 미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림1. 한국의 대학생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위스컨신대 한국어 학생들〉

3.3.1.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학생들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위스컨신대학교의 2학년 한국어 학생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일학년 과정의 한국어 교육을 마친 intermediate-beginner (또는 high-beginner)의 레벨로 이 레벨의 학생들은 단문 중심의 문장을 구사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해도의 범위는 자신을 중심으로 주위에 대한 간단한 기술 (description)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질문을 할 수 있다. 반면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구사력은 일정한 주제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어휘 숙지를 통한 후에 단문 및 복문을 이용한 기술 및 표현이 가능하다. 이해도의 범위는 본인 (self) 및 본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이를 비교하여 간단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추상적인 사실에 대한 추론이나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영어 구사력은 아직 힘들기는 하나 일상 생활에 대한 주제뿐만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아카데미한 주제에 대해서도 간단한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3.3.2. 학습목표 및 화상회의의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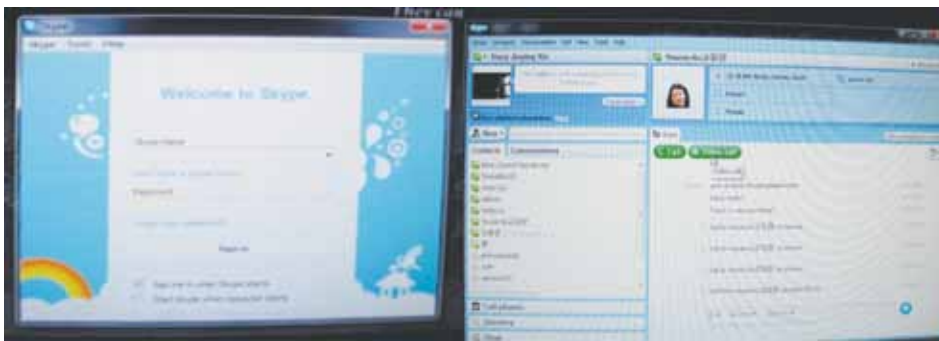
따라서 언어별 각기 다른 구사능력을 가진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위스컨신대학교 한국어 학생들에게는 1) 소개하기 (introduction) 및 2) 비교하기 (comparison)를 중심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는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3) 분석하기 (analysis)를 추가하여 화상회의의 주제를 설정한다. 언어 뿐만 아니라 문화습득에 대한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 화상회의 시간에는 공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과제를 주도록 한다. 도표 2는 화상회의의 주제 및 학습 목표의 주안점을 담고 있는 교사의 학습교안 (lesson plan)의 사례이다.

#	언어	주제	학습목표 및 언어 교육의 주안점
1	Korean	방과 후 활동 및 주말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및 소개를 목적으로 하고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 지에 대해 소개한다.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과거시제를 연습하도록 유도한다.
2	English	Korean Films, Entertainment Industry, and "Korean Wave"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영화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와 함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미국의 할리웃 영화산업과 비교하여 기술해 보고, 현재 "한류"에 대한 미국내의 관심도와 한국인들의 기대감이 어떤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한다.
3	Korean	음식 및 쇼핑에 대한 소개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소개 및 비교를 하고 한국 음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한다. 또한 쇼핑과 관련된 표현들을 나누도록 유도하고 한국에서 쇼핑의 대표적인 장소에 대한 소개도 하도록 한다.
4	English	Discussion "My Sassy Girl"	한국 영화 "엽기적인 그녀"와 할리우드 리메이크 영화 "My Sassy Girl"을 학기중에 미리 감상하고 두 영화에 대한 비교를 유도한다. 문화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영화 만들기에 대한 비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유도하도록 지도한다.
5	Korean/English	공동과제: 포트폴리오 작성하기 - 한국어/영어로 자기 소개서 (Resume) 작성하기	양교 학생간의 공동과제로 본인의 이력서를 해당언어로 작성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도표2: 학습교안 - 화상회의 주제 및 학습 목표/언어교육의 주안점〉

3.3. 화상회의의 진행하기

화상회의를 진행하기전에, 화상회의의 주제를 학생들에게 전자메일(e-mail)을 통해서 안내하고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주제에 대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학생들은 각 주제별 질문을 2개정도 준비하여 다른 학생들과 나누고 주제와 관련된 어휘 및 표현들을 교사로부터 배운다.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을 수합하여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정리된 질문지를 학생들에게 전자메일로 다시 배부한다. 〈그림 2〉는 화상회의의 소프트웨어 가운데 하나인 ‘스카이프’를 로그인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2. 화상회의를 위한 스카이프 사용하기〉

‘스카이프’는 전세계의 많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익숙한 프로그램으로 화상채팅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 기능, 그리고 문자를 이용한 텍스트 채팅도 동시에 가능하며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⁵.

5. <http://www.skype.com>

화상회의를 마친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정리하여 각 주제별 정해진 언어 (한국어 또는 영어)로 간단한 글쓰기를 하여 교사에게 제출한다. 교사는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화상회의에 대한 총괄 정리를 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4. 글을 정리하면서

본고에서는 미국내 한국어 교육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좀 더 생생하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또한 교실내 수업이외에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화상회의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의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여기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과 책임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먼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화상회의를 통한 한국어 학습에서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학생-학생 간에, 학생-교사간에 의사소통을 이끌어 간다. 언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국어 화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의미를 해석/이해하고 이를 받아드리게 된다⁶.

교사는 직접적으로 화상회의에 참여를 하지는 않지만 학생이상으로 화상회의를 이끌어가는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교사는 화상회의를 준비하는 교안 담당자(lesson planner)로서, 화상회의 진행시 일어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등에 대한 해결사로서 (tech-consultant), 온라인상을 통해 학교간의 협력자로서 (collaborator), 그리고 언어 교육에 그치지 않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를 소개하는 문화간 파트너 (intercultural partner)⁷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아는 만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를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여 본다면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다’로 다시 풀어 볼 수 있겠다. 앞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미국내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위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노력하는 한국어 교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참고 문헌

- Abrams, Z. I. (2003). The effects of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CMC on oral performance. *Modern Language Journal*, 87 (2): 157-167.
-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 (AATK): <http://www.aatk.org>
- Belz, J. A. (2003). Linguistic perspectives on the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in telecollaboration.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7 (2): 68-117.
- Hadley, A. O. (2000). *Teaching Language in Context*. 3rd Edition, Thomson Learning Publisher
- Modern Language Association (MLA): <http://www.mla.org>
- O'Dowd, R. (2007). Evaluating the outcomes of online intercultural exchange. *ELTJournal*, Volume 61: 144-152.
- Warschauer, M. (1997). Computer-mediated collaborative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Modern Language Journal*, 81: 470-481.
- Warschauer, M., & Kern, R. (2000). *Network-based language teaching: Concepts and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Abrams (2003), Belz (2003), Warschauer (1997), Warschauer and Kern (2000)

7. O'Dowd (2007)



세종대왕과 한글

최용기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우리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는 민본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려 해도 말할 수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음을 딱하게 여겨 훈민정음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세종대왕의 민본 정신을 나타낸 것이며 이 정신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신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이 쉽고 조리 있게 만들어진 까닭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집현전의 모습-부조, 상상〉

§ 1. 머리말

한 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에 올라 있는 세종대왕은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1397년). 어릴 적부터 용모가 단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천품이 총명하고 의견이 사리에 적합하여 모든 사람이 왕세자로 삼기를 희망하였다. 셋째인 충녕대군은 스물 두 살의 나이로 왕세자가 되었고 그 해(1418년) 8월에 조선의 4대 임금이 되었다.

세 종대왕은 재위 32년 동안 늘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하였고 백성이 편하도록 제도를 고치고 백성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일을 하였다. 백성은 하늘이 내린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여겼다. 임금이 되어 맨 처음 시작한 일도 ‘농사직설’을 편찬(1429년)하여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삼강행실도’를 편찬(1432년)하여 윤리 도덕을 강조하였고, ‘향약집성방’을 편찬(1433년)하여 백성들이 아프지 않도록 하였다.

이 러한 세종대왕의 민본 정신은 인도주의 정신으로 이끌어진다. 아기 낳은 관비의 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한 일, 감옥 안에 물동이를 두어 죄수들이 한더위를 견디기 쉽도록 해 준 일, 죽을죄는 반드시 3심을 받도록 한 일, 그리고 노비에 대해 사사형벌을 금한 일,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설문 조사를 한 일 따위는 모두 세종대왕의 이러한 민본 정신과 인도 정신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훈민정음 창제에 강력히 반대하던 최만리 일파에 대해서도 누누이 타이르며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임금부에 가두었으나 그 이튿날 풀어 주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세종대왕은 임금이었지만 과학자이고 발명가였다. 세종대왕의 발명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발명품이 훈천의, 자격루, 갑인자, 측우기, 훈민정음 등이다. 이러한 발명품도 모두 백성을 생각하여 만들었다고 하니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실로 대단하였다.

§ 2. 세종대왕의 문자 정책과 훈민정음(한글)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의 머리말에서

“우리나라 말은 중국과 달라서 중국말을 적는 글자인 한자로써는 우리말을 적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은 말하려는 일이 있어도 자기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라고 말씀하였다.

우리는 이 훈민정음 머리말에서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세종대왕의 민족 자주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말이 중국말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글자인 한자로써는 우리말을 적을 수 없음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일인 것 같으나 그때의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조류를 생각해 볼 때는 반드시 당연한 일이라고만 보아 넘길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때의 지식인들은 중국에 대해 극히 저자세이었고 모화사상에 흠뻑 젖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극단적인 표현이 최만리, 신석조, 정창손, 김문 등의 훈민정음 반대 상소문에 나타나 있으니 그 몇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지성으로 중국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국의 제도를 따랐는데, 이제 (중국과) 글자도 같게 하고 수레바퀴의 규격도 같게 할 때를 당하여 언문을 만들은 보고 듣기에 놀랍습니다.”

“만약 (언문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중국으로 들어가 이를 비난하는 일이 있다면 어찌 사대 모화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역대 중국이 모두 우리나라를 …… 중국과 비슷하다고 하였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지어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와 같아지려 하니, 어찌 문명의 큰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중국을 섬기기에 지성을 다하였고 중국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였음을 이 글에서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사대 모화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세종대왕은 우리말은 중국말과 다르다는 것을 첫 마디에 내세우고 있으니 세종대왕의 민족 자주정신은 항상 뼈에 사무쳐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세종대왕의 이러한 정신은 동북아시아의 국경선을 확정하여 근세적인 개념을 확립하는 데에도 강하게 나타나 있고 중국 음악을 부흥시켜 새 음악을 작곡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향악을 작곡하여 그것을 기보하기 위해 ‘정간보’(井間譜)를 창안한 데에도 나타나 있다.

돌째는, 이 머리말에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는 민본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러 해도 말할 수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음을 딱하게 여겨 훈민정음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세종대왕의 민본 정신을 나타낸 것이며 이 정신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신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이 쉽고 조리 있게 만들어진 까닭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백성이 이른 시일 안에 다 배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글자는 되도록 쉬어야 했던 것이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과감한 실천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실로 위대한 결단과 놀라운 글자 혁명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훈민정음의 머리말에서 세종대왕의 민본 정신을 읽을 수 있었고 나아가서 새 글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세종대왕이 매우 독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세계의 여러 글자의 뿌리를 살펴보면 불과 몇 개로 집약이 된다고 한다. 이 몇 가지의 글자에서 모든 나라들이 그 글자를 빌려 쓴 것이다. 그리고 이 몇 가지의 글자도 대부분 어떤 개인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글자 한글만이 세종대왕과 그의 신하(또는 학자)들이 힘을 합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그것도 세계의 여러 문자 가운데 매우 과학적이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동양 철학의 원리를 깔고 있고 아주 쉬운 글자를 창조한 것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웬만한 독창적인 두뇌로써는 도저히 이루어 낼 수 없는 위대한 창조였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정신과 성격을 글자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있는 정성을 다하여 몸소 연구에 골몰하였다. 어떤 분은 세종대왕은 언어 정책만 세웠을 뿐이지 실질 연구는 신하들이 하였다고 하는 일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최만리의 상소문에 잘 나타나 있다.

“

이번에 청주 조정에 거동할 때에 특히 농사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염려하시어 시종의 모든 사무를 간략히 하여 앞날에 비하면 옆에 열아홉을 줄이고, 계품하는 공무까지도 또한 정부에 맡겼는데 저 언문은 국가에 시급한, 꼭 해야 하는, 시일을 정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찌 홀로 행재에서 급급히 이것을 놓지 않고 임금이 조섭하는 때를 번거롭게 합니까?”

이 표현에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언어 정책을 세운 데에만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이 조선 한자의 소리나 중국말의 소리를 적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배제해야 할 것이다.

훈민정음은 우리말을 적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몸소 연구에 관여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언어학(운학)에서 많은 것을 애써 배웠으니, ‘홍무정운역훈’과 ‘동국정운’은 그 결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보급에도 관심을 두었다. 훈민정음을 보급하는 방편으로, ‘효례례의’(孝悌禮義)라는 별전(別錢)을 만들어(출전, 고전대감(古錢大鑑) 훈민정음을 돈처럼 널리 쓰이게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경하전’(慶賀錢)으로 다루었다고 한다. (이 별전을 재구하여 지난 2006년에는 ‘한글날 국경일 기념주화’로 제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세계주화책임자회의(DMC)에서 세계 최고 주화로 선정, ‘가장 기술적인 은화’ 부문 대상 수상) 또, 관리 등 용 시험에도 훈민정음을 한 과목으로 삼도록 하였고 신하들에게도 문서를 훈민정음으로 만들게 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과 같은, 운문과 산문에도 훈민정음을 사용하여 표본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세 책 중에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직접 지은 것(이 사실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으나)이며, 그 표기법에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자말을 적는 데 있어서 ‘석보상절’에서는 한자가 위에 놓이고 그 밑에 그보다 작은 한글로 소리를 적어 놓았는데 ‘월인천강지곡’에서는 그 자리와 크기가 바뀌어 있다. 곧 한글을 먼저 내세우고 그 밑에 그보다 작은 한자를 붙여 놓았다. (*몇 자는 현대어로 적음)

삼 천千대대천千이 발가며 루樓면殿이 일어늘 안쥬 견뇨매 어마님 모라시니. (월인 기 16)

이러한 표기 방법으로써, 우리는 세종대왕의 한자말 표기의 근본정신을 알 수 있다. 곧 세종대왕은 한자말도 훈민정음으로 적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글자 적기의 큰 혁명이니 여기에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성격을 아울러 엿볼 수 있다.

둘째, ‘석보상절’의 표기는 소리대로 적기이다. 그런데 월인천강지곡의 표기는 오늘날의 표기법과 비슷한 형태소의 기본형을 밝혀 적는 것이다. (*몇 자는 현대어로 적음)

날 달이 차거늘 어마님이 빼毘람藍원園을 보라 가시니. (월인 기 17)

여기에서도 우리는 세종대왕이 우리말에 대한 문법 의식을 소유한 분임을 알 수 있다. 곧 그때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세종대왕은 현대의 언어학자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우리말을 분석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최고 학자인 최만리가 훈민정음으로 중국 저서를 번역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세종대왕은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또 너희가 사성 칠음과 자모가 몇인 줄 아느냐”라고 묻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우리 겨레의 문자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훈민정음 이전에 글자의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과 그 마음가짐을 잘 전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향가와 이두 같은 우리말의 기록은 그 분량이 너무나 적은데다가 그것마저 그 당시의 언어로 복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많은 한문 서적이 전해져 오고 있으나 이 기록들은 마치 중국 사람의 눈에 비친 우리 조상들의 모습과 감정을 그려 놓은 것같이 느껴지는 것들이다. 한 민족의 언어와 그 민족의 사고방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한문의 기록은 중국적인 사고방식에 끌리지 않을 수 없도록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겨레의 역사 기록은 훈민정음 창제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때부터 비로소 우리 조상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의 문자 정책을 그대로 보여 준 대표적인 것이며 우리 겨레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한글(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3.1. 한글(훈민정음)의 창제

3.1.1. 창제 시기

(1) 시기: 세종 25년(1443년) 음력 12월 창제 (반포: 1446년 9월)

(2) 근거

㉠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 是謂訓民正音”

(〈세종실록〉 25년(1443) 12월 조)

(“이달에 임금께서 직접 언문 28자를 만드셨는데,……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한다.”)

㉡ “是月 訓民正音成……” (〈세종실록〉 28년(1446) 9월 조)

-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㉔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名曰訓民正音…… 正統十一年 九月 上澣 ……”
 (《訓民正音 (해례본)》 정인지 서문)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만드셨는데, ……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한다. …… 정통 11년 9월 상한 ……”)

3.1.2. 훈민정음 해례본의 체제

(1) 본문 - 예의(例義)

- ㉑ 어제 서문(御製 序文): 창제의 동기와 목적
 ㉒ 예의(例義)
 · 자음과 모음의 음가(자음 17자와 모음 11자의 음가)
 · 자음과 모음의 운용(종성법,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에 관한 규정)
 · 성음법과 사성점(음절을 이루는 법과 음의 고저 표시법을 밝힘)

(2) 해례(解例)

- ㉓ 제자해(制字解): 글자를 만든 원리와 기준, 자모음 체계, 음상 등에 대한 설명
 ㉔ 초성해(初聲解): 동국정은 23초성 체계에 따른 자음 설명
 ㉕ 중성해(中聲解): 중성의 규정과 이중 모음에 대한 설명
 ㉖ 종성해(終聲解): 종성의 본질과 ‘8종성가죽음’, 사성(四聲) 등에 대한 설명
 ㉗ 합자해(合字解):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하여 글자가 됨을 설명, 성조에 대한 설명
 ㉘ 용자례(用字例): 실제 사용의 예를 낱말 95개를 들어 설명

(3) 정인지 서(序): 훈민정음 창제 취지와 경위, 의의, 가치 등을 밝히고, 편찬자, 창제 시기와 완성 시기가 밝혀져 있음.

3.1.3.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글자 체계

“정음 28글자는 각각 그 꼴을 본떠서 만들었다.”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1) 초성의 제자 원리

- ㉑ 기본자: 상형(象型)의 원리 (발음 기관을 상형)
 “초성은 17글자인데, 어금닛소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꼴을 본뜨고,
 헛소리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꼴을 본뜨고,
 입술소리 ㅁ은 입 모양을 본뜨고,
 잇소리 ㅅ은 이의 모양을 본뜨고,
 목소리 ㅇ은 목의 모양을 본떴다.”

㉒ 그 밖의 글자: 가획(加劃)의 원리

ㄱ→ㅋ
 ㄴ→ㄷ→ㅌ (ㄷ→ㄹ)
 ㅁ→ㅂ→ㅍ
 ㅅ→ㅈ→ㅊ (ㅈ→ㅊ)
 ㅇ→ㆁ→ㅇ (ㅇ→ㅇ)

㉓ 예외: 이체자(異體字) / ㅇ, ㄹ, ㅊ (획을 더하는 뜻은 없음.)

이름	초성				중성		
	기본자	상형	가획자	이체자	기본형	자형	상형
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ㅋ	ㅇ	·	圓	象乎天
舌音	ㄴ	象舌附上之形	ㄷ, ㅌ	ㄹ	一	平	象乎地
脣音	ㅁ	象口形	ㅂ, ㅍ				
齒音	ㅅ	象齒形	ㅈ, ㅊ	ㅊ	丨	立	象乎人
喉音	ㅇ	象喉形	ㄱ, ㅎ				

(2) 초성 17자의 체계

조음방법 조음위치 조음세기	전청(全淸)	차청(次淸)	불청불탁 (不淸不濁)	전탁(全濁)
	예사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된소리
엄소리[牙音]	ㄱ	ㅋ	ㅇ	ㄲ
혀소리[舌音]	ㄷ	ㅌ	ㄴ	ㄸ
입시울소리[脣音]	ㅂ	ㅍ	ㅁ	ㅃ
니소리[齒音]	ㄴ, ㄷ	ㅌ		ㄸ, ㅃ
목소리[喉音]	ㅇ	ㅎ	ㅇ	헉
반혀소리[半舌音]			ㄴ	
반니소리[半齒音]			ㄷ	

(3) 천지의 이치

오음 (五音)	자음 (子音)	오행 (五行)	五季 (계절)	五音 (음악)	五方 (방위)	오색 (五色)	사단 (四端)	오감 (五感)	오장 (五臟)	오부 (五部)
牙音	ㄱ, ㅋ, ㅇ	木	봄	角	東	靑	仁	따뜻함	간장	쓸개
舌音	ㄷ, ㅌ, ㄴ, ㄸ	火	여름	徵	南	赤	禮	더움	심장	소장
脣音	ㅂ, ㅍ, ㅁ	土	늦여름 (季夏)	宮	中央	黃	信	미지근 함	비장	밥통
齒音	ㄴ, ㄷ, ㄸ, ㄲ	金	가을	商	西	白	義	서늘함	폐장	대장
喉音	ㅇ, ㅎ	水	겨울	羽	北	黑	智	차가움	신장	방광

(4) 중성의 제자 원리

㉠ 기본자: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를 추상화하여 상형(·, 一, 丨)

기본자 상형 혀의 모양 소리값

· 天 舌縮 聲深

一 地 舌小縮 聲不深不淺

丨 人 舌不縮 聲淺

㉡ 그 밖 : 기본자를 바탕으로 만들.

· 초출자(初出字): ㄴ, ㄷ, ㅌ, ㄴ

· 재출자(再出字): ㄲ, ㅃ, ㅆ, ㅋ

(5) 중성

“중성은 다시 초성을 사용한다.”[중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3.1.4. 문자의 운용

(1) 연서법(連書法, 이어쓰기)

순경음을 표기하는 방법: 순음(ㅁ, ㅂ, ㅃ, ㅍ) 아래에 ㅇ를 붙인다. → 순경음(뫼, 뵈, 뵈, 뵈)

뵈는 순수 국어에만 사용, 그 밖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사용.

세종, 세조 때만 사용되고 소멸

(2) 병서법(並書法, 갈바쓰기)

둘 이상의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철자법

㉠ 각자병서(各自並書): 같은 자음을 반복해서 쓰는 법: ㄱ, ㄴ,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 합용병서(合用並書):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붙여 쓰는 법: ㅁㅂ, ㅁㅅ, ㅁㅈ, ㅁㅊ, ㅁㅋ, ㅁㆁ, ㅁㆅ, ㅁㆆ ; ㅅㅅ, ㅅㅈ, ㅅㅊ, ㅅㅋ, ㅅㆁ, ㅅㆅ, ㅅㆆ ; ㅈㅈ, ㅈㅊ, ㅈㅋ, ㅈㆁ, ㅈㆅ, ㅈㆆ ; ㅊㅊ, ㅊㅋ, ㅊㆁ, ㅊㆅ, ㅊㆆ ; ㅋㅈ, ㅋㅊ, ㅋㅅ, ㅋㆁ, ㅋㆅ, ㅋㆆ ; ㆁㅅ, ㆁㅈ, ㆁㅊ, ㆁㅋ, ㆁㆅ, ㆁㆆ ; ㆅㅅ, ㆅㅈ, ㆅㅊ, ㆅㅋ, ㆅㆁ, ㆅㆅ, ㆅㆆ ; ㆆㅅ, ㆆㅈ, ㆆㅊ, ㆆㅋ, ㆆㆁ, ㆆㆅ, ㆆㆆ

(3) 부서법(附書法, 브터쓰기)

“·와 一와 ㄱ와 ㄴ와 ㅁ와 ㅂ와 ㅅ와 ㅈ와 ㅊ와란 첫소리 아래 브터쓰고 ㅣ와 ㅅ와 ㅈ와 ㅊ와 ㅋ와 ㆁ와란 올한녀기 브터쓰라.”

자음에 모음을 합하여 한 글자(음절)가 되도록 붙여 쓰는 법

㉠ 하서(下書): 초성 + ·, 一, ㄱ, ㄴ,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 우서(右書): 초성 + ㅣ, ㅅ, ㅈ, ㅊ, ㅋ, ㆁ, ㆅ, ㆆ

(4) 성음법(成音法)

“믈읳 ㅅㅅㅅㅅ 모로매 어우러사 소리 이나니.” (凡字必合而成音)

(5) 사성점(四聲點)

“원녀기 한 點됨을 더으면 맛노판 소리오 點됨이 둘히면 上쌍聲성이오 點됨이 업스면 平聲성성이오 入입聲성은 點됨 더우문 한가지로대갓빠라니라.”

※ ‘한글’ 이름의 변천

㉠ 훈민정음(訓民正音):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 때 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의 뜻

㉡ 정음(正音): 정인지의 서문. ‘훈민정음’을 줄인 말.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 언문(諺文): ‘언(諺)’은 ‘우리말 · 우리글’의 뜻으로 훈민정음 이전부터 쓰이다가 훈민정음 이후 ‘정음’의 뜻으로 쓰임 <훈민정음 해례>에 나옴. 「세종실록」에 ‘언문정’이란 말이 나옴.

㉣ 언서(諺書): 한문을 진서(眞書)라고 한 데에 대한 대립어로 쓰임.

㉤ 반절(半切): 최세진의 ‘훈몽자회’. 중국 운학의 반절법에서 유래(東 = 德洪切)

㉥ 암글: 부녀자들이나 쓰는 글. 선비가 쓸 만한 글은 되지 못한다.

㉦ 상말글: 한문은 양반이 쓰는 글이고 한글은 상놈들이나 쓰는 글이라는 뜻에서 붙임.

㉧ 한글: 1910년 주시경에서 비롯함. 1927년 <한글>지에서부터 널리 쓰임. ‘한’은 ‘하나’ 또 ‘큰’의 뜻. 우리글을 언문이라 낮추어 부른 데 대해 정당한 우리말 표기 글자란 뜻으로 권위를 세워 준 이름.

3.2. 한글의 우수성

3.2.1. 창제 원리의 측면

(1) 독창성

㉠ 상형의 원리: 기본자를 발음 기관과 관련시킴. 사람의 혀나 입, 목구멍과 같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뜨거나 하늘과 땅, 사람(천 · 지 · 인 삼재)의 생김새를 본떠 독창적으로 창제함.

㉡ 신제(新制) 문자: 1443년 음력 12월에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 탄생 기록이 있는 유일한 문자.

(2) 조직성

㉠ 이원적 구성과 가획의 원리: 기본자를 만들고 거기에서 파생시켜 그 밖의 글자를 만들.

㉡ 계열적 구성: 음성적으로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이면 그 글자의 모양에서도 비슷하게 묶음. 기본자와 그 밖의 글자들 간의 음성학(음운학)적 관계 파악. 배우기 쉽고 쓰기 쉬움.

(3) 개방성과 경제성

㉠ 글자 추가 가능: 초성 기본자 5글자(ㄱ, ㄴ, ㄷ, ㄹ, ㅁ)와 중성 기본자 3글자(·, 一, ㅣ)를 바탕으로 가획, 연서, 병서 등의 방법으로 무수히 많은 글자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문자 활용 극대화: 유한한 수의 자음과 모음으로 수많은 소리마디[음절]를 만들어 냄. ·옛글자 활용 399억 자 조합, 현재 24자모로 11,172자 조합 가능.

우리의 자랑, 한글

김형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창비, 2011년



<2006년 발행된 한글날 기념주화>

“세 계적으로 과학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글은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서 그 입지를 더욱 넓혀 갈 것이다. 우리는 한글에 자긍심을 가지는 한편, 한글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아가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겠다.”

한글은 탄생 기록이 있는 유일한 문자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지 오래되었다. 한글 창제의 원리 등을 밝혀 놓은 책인 “훈민정음(해례본)”은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그보다 8년 전인 1989년에 유네스코에서는 문맹 퇴치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에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국제 사회가 한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매우 낮은 것도 한글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 문자인지, 한글 창제의 원리와 그 구조를 살펴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확인해 보자.

▶ 한글 창제의 원리

한글 창제의 첫 번째 원리는 ‘상형의 원리’이다. “훈민정음(해례본)”에는 “정음 28글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한글은 다른 문자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혀나 입, 목구멍 같은 발음 기관을 본뜨거나 하늘, 땅, 사람의 생김새를 본떠 만든 독창적인 문자이다.

자음의 경우 기본 글자는 다섯 자이다. 어금닛소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헛소리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입술소리 ‘ㄹ’은 입 모양을, 잇소리 ‘ㅅ’은 이 모양을, 목소리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 모양만 보고서도 그 글자가 어디에서 소리 나는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ㄹ, ㅁ, ㅂ, ㅍ’은 모두 입술소리인데 글자에 똑같이 ‘ㄹ’이 들어 있어서 입술 사이에서 소리가 남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음의 기본 글자는 ‘·, ㅡ, ㅣ’ 세 글자인데, 이것 또한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를,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ㅡ’를,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ㅣ’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형의 원리를 따랐다.

한글 자모 28자는 제각각 만든 것이 아니고 기본 글자 몇 개를 먼저 만든 다음 여기에 획을 더하거나 기본 글자를 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한글은 글자를 하나하나 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우고 활용하기가 매우 쉬운데 그것은 이러한 한글 창제의 두 번째 원리인 ‘가획의 원리’ 때문이다.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 다섯 글자를 제외한 자음 글자 대부분은 가획하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해 가며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소리 차이를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나타냈다는 것이다.

“훈민정음(해례본)”에서는 종류가 같은 자음이되 획이 하나씩 덧붙으면 한 단계씩 더 거센소리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기본 글자 ‘ㄱ’에 획을 더하여 만든 ‘ㅋ’은 획이 더해지면서 ‘ㄱ’보다 소리가 좀 더 세진다. 다른 나라 글자들도 가획의 원리를 적용한 예가 있지만 그것이 소리의 변화와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된 문자는 한글뿐이다. 모음의 경우에는 기본 글자 ‘·, ㅡ, ㅣ’를 제외한 모음 글자 가운데 ‘ㅏ, ㅑ, ㅓ, ㅕ’는 ‘·’를 ‘ㅡ’와 ‘ㅣ’에 결합하여 먼저 만들고, 여기에 ‘·’를 다시 결합하여 ‘ㅗ, ㅛ, ㅜ, ㅠ’를 만들었다.

한글은 ‘계열적 구성’을 이룬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이다. 즉, 같은 계열의 말소리를 적는 글자는 모양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어금닛소리 ‘ㄱ, ㅋ’은 모두 혀의 뒤쪽이 여린입천장에 닿아서 소리가 나는 글자들로 모양 또한 서로 비슷하다. 헛소리인 ‘ㄴ, ㄷ, ㄸ’ 또한 글자마다 혀가 윗잇몸에 붙는 꼴인 ‘ㄴ’이 있어서 서로 모양이 비슷하고, 입술소리 ‘ㄹ, ㅁ, ㅍ’에는 입 모양을 본뜬 ‘ㄹ’이, 잇소리 ‘ㅅ, ㅆ, ㅈ’에는 이 모양을 본뜬 ‘ㅅ’이, 목소리 ‘ㅇ, ㆁ, ㆏’에는 목구멍 모양을 본뜬 ‘ㅇ’이 각각 있어서 서로 모양이 비슷하다. 모음의 경우 ‘ㅑ, ㅓ, ㅕ, ㅠ’는 반모음 ‘ㅣ’가 앞서는 이중 모음인데 글자 모양에서도 ‘ㅣ’나 ‘ㅡ’를 중심으로 각각 점이 두 개씩 찍혀 있어서 역시 모양이 비슷하다.

또한, 한글은 ‘개방성’이 뛰어난 문자이다. 자모 28자를 바탕으로 연서, 병서, 합용의 방식으로 더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다. 한글 창제 당시에는 자음 두 개를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연서법으로 순경음 ‘ㄹ, ㅁ, ㅂ, ㅍ’을 만들어 썼고, 자음 두 개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병서법으로 ‘ㄱ, ㄷ, ㅁ, ㅂ, ㅍ’이나 ‘ㅁ, ㅂ, ㅍ, ㅁ’과 같은 글자들을 만들어 썼다. 모음의 경우 ‘ㅏ’와 ‘ㅑ’, ‘ㅓ’와 ‘ㅕ’를 합용하여 ‘ㅗ, ㅛ’를 만들고, ‘·, ㅡ, ㅏ, ㅑ, ㅓ, ㅕ’에 ‘ㅣ’를 병서하여, ‘ㅗ, ㅛ, ㅓ, ㅕ, ㅗ, ㅛ’를 만들고, ‘ㅏ, ㅑ, ㅓ, ㅕ’와 ‘ㅗ, ㅛ’에 다시 ‘ㅣ’를 합용하여 ‘ㅗ, ㅛ, ㅓ, ㅕ, ㅗ, ㅛ’와 같은 글자를 만들어 썼다.

▶ 모아쓰기

‘나무’라는 글자는 ‘ㄴ, ㅏ, ㅁ, ㅓ’로 각각 쪼갤 수 있다. 이처럼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는 ‘음소 문자’이다. 그렇다면 왜 한글은 알파벳처럼 자음과 모음을 나누어 ‘ㄴ ㅏ ㅁ ㅓ’와 같이 풀어쓰지 않고 ‘나무’처럼 음절 단위로 모아 쓸까?

말소리는 자음과 모음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말소리를 들을 때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하지 않고 합

그런데 음절을 적는 방식으로 만든 문자는 적을 수 있는 소리의 수가 매우 제한되거나 소리만큼 글자가 많아야 하므로 익히고 활용하는 데 불편하다. 한글은 음절 문자로 만들지 않고 자음과 모음을 적는 문자를 따로따로 만들어 적는 수의 글자로 매우 많은 음절을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모아쓰기를 하면 읽기도 편할 뿐 아니라 의미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한 때 주시경 선생, 최현배 선생 등이 한글 풀어쓰기를 주장했다. 한글을 풀어 쓰면 단어 단위로 쓰기 때문에 읽기 쉽고, 필기체를 만들어 쓸 수 있어 쓰기도 쉽다는 것이다. 또한, 타자기에 적합하여 기계화하기 쉽고, 받침이 없어져 표기법이 간편해지며, 한자 폐지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하였다.

▶ 한글의 미래

한글의 우수성은 1963년에 미국의 언어학자 맥폴리 교수가 당시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 포스 교수의 논문을 세계적 잡지인 “언어”에서 평가하면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포스 교수는 논문에서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발명하였다. 한국 알파벳은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이며, 고도의 과학적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했다.

032

서양의 어느 언어학자는 해마다 한글날이 되면 세종 대왕 영정 앞에 한국 음식을 차려 놓고 기념식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의 소중함을 모르고 한자와 로마자를 남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른바 ‘외계어’까지 쓰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컴퓨터는 자음과 모음을 입력하면 저절로 모아쓰기가 된 글자를 만들어 주어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컴퓨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처럼 한글은 컴퓨터와 궁합이 잘 맞는다. 그리고 한글은 글이 없어 언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소수 민족들에게 문자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과학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글은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서 그 입지를 더욱 넓혀 갈 것이다. 우리는 한글에 자긍심을 가지는 한편, 한글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아가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겠다.



재외동포 아동 한국어 작문의 결속구조

최은규
서울대학교

〈이제는 사라져가는 연필.〉

“결속기제(cohesion)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이 글의 응집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재외동포 아동의 작문 지도에서 결속기제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결속기제를 적절히 사용하면 글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언어 사용이 미숙한 학습자에게 결속구조 활용을 위한 교육은 작문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1. 결속구조의 개념과 유형

본고는 재외동포 아동의 작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결속기제 사용 양상과 거기에서 발견되는 발달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의 텍스트가 내용들 간의 연결 관계를 가지는 데에는 결속구조(cohesion)와 응집성(coherence)이 필요하다. 결속구조(cohesion)는 텍스트 표면에 나타나 있는 통사적인 연결 구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텍스트가 의미적으로 응집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텍스트 표면의 언어적 또는 문법적 지시자(indicators)를 의미한다. 응집성(coherence)은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간의 의미적 연결 관계를 말한다(이재승 2003:93-4). 결속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그 필요성과 적절한 사용의 유용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① 구어 텍스트와 달리 문어 텍스트에서는 결속구조가 바탕이 되어 응집성이 표출되고, ② 결속기제의 사용은 발달성을 보이며, ③ 결속기제를 적절히 사용하면 텍스트의 응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텍스트 구성에서 이와 같은 결속구조의 유용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표현 양상에 해당되는 결속구조(cohesion)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를 잘 인식하면 읽기나 쓰기 등의 언어 사용

행위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미숙한 언어 사용자의 경우에는 읽거나 듣기를 할 때 결속구조를 적절히 파악함으로써 이해를 촉진할 수 있고, 쓰거나 말하기를 할 때 결속구조를 활용함으로써 텍스트의 응집성(coherence)을 높일 수 있다(이재승2003:97).

결 속구조는 결속기제(cohesive devices)를 통해 드러난다. 본고에서는 이들 결속기제의 유형을 반복, 접속, 의미 관계에 따른 결속 표현, 생략, 대용으로 나누고 이러한 기제들이 재외동포 아동의 작문 텍스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용 양상을 관찰해 보기로 한다.

§ 2. 연구 대상

본 고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중 주말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아동의 작문 텍스트 8종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는 이민 1.5세 또는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다. 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정도, 부모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관심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러나 성장기 동안 한국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보다 한국어를 쉽게 습득하고 어휘 확장도 빠른 편이다. 언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문자 언어보다는 음성 언어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듣기와 말하기에 비해 읽기와 쓰기가 아주 취약한 편이다.

재 외동포 아동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현지 문화권에서의 재외동포의 잠재적인 역할과 재외국민을 위한 민족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 아동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기초연구와 한국어교육 상황에 대한 사례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교사 교육 등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국학교 교육의 전문화와 발전이 가능해 질 것이다.

연 구 대상 자료는 ① 학년별로 나타나는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2개 학년(3학년, 6학년)으로 나누고, ② 이민 아동(1.5세)과 미국 출생 아동(2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2종으로 대별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총 8종의 자료이다¹. 본고는 8종의 작문 텍스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 아동의 작문 텍스트에 결속구조가 표현되는 양상의 일부를 관찰해 본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 작문 텍스트에 나타난 결속구조 분석

3.1. 결속 기제의 유형과 양상

1) 반복

재외동포 아동은 1.5세나 2세 구분 없이 반복을 주요 결속 기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복은 선행 문장 성분을 반복하는 경우와 문장을 반복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다음의 (1), (2)와 같이 주로 문장 성분의 반복이 사용되고 있다.

1. 작문 텍스트는 2007년 11월~2008년 1월에 걸쳐 LA 및 인근 한인 밀집 지역의 한국학교(남가주한국학교 관할 12개 학교) 2학년 이상 재학 아동 1,500여 명을 대상으로 30분~1시간 동안 한국어 작문을 실시하여 수합한 자료 중 일부이다. 자료 수합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가주한국학교 담당 교사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린다. 연구 대상 자료는 편의상 1.5세는 A, 2세는 B, 3학년은 3a와 3b, 6학년은 6a와 6b로 기호를 붙여서 다음과 같이 부르기로 한다.

A-3a. 한국학교 3학년(1.5세), A-3b. 한국학교 3학년(1.5세)

B-3a. 한국학교 3학년(2세), B-3b. 한국학교 3학년(2세)

A-6a. 한국학교 6학년(1.5세), A-6b. 한국학교 6학년(1.5세)

B-6a. 한국학교 6학년(2세), B-6b. 한국학교 6학년(2세)

- (1) 네 가족에 어마랑 아빠랑 동생이 있다. 동생은 학교에 안 가고, 유치원에 단입니다.(B-3b)
 (2) 나의 가족은 나의 동생, 고모부, 고모, 언니, 오빠, 끈오빠입니다. 끈오빠는 회사를 다니고 다른 오빠는 비행사와 땔어고 학교 다닙니다.(A-3a)

다음의 (3)은 ‘눈’이라는 핵심어를 반복함으로써 문장과 문장을 결속하고 ‘하고 싶은 일’이라는 주제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 (3) 나는 겨울방학 때 Mammoth에 가고 싶습니다. Mammoth에서 오빠랑 눈사람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녁으로는 컵라면을 먹고 또 나가서 snow ball fight하고 싶습니다. 나는 진짜 눈을 한번도 못 밟습니다. 눈에 누어가지고 snow-angel을 만들고 싶습니다. 내 생각않에는 눈이 머십니다. 가족이랑 같이 노래도 부르고 놀고 싶습니다. Hot Chocolate을 마시면서 책을 읽고 싶습니다. 따듯따듯한 대에서 누워서 눈을 차다 보면서 잠들고 싶어요.(B-6b)

그러나 어휘의 지나친 반복 사용으로 글의 결속 효과가 떨어져서 응집성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의 (4), (5), (6)이 그에 해당한다. 특히, (6)은 동일 어휘를 지나치게 많이 반복하는 데다 내용도 ‘위치, 학제, 수준’ 등으로 다양하여 글의 응집성이 떨어지고 있다. 더구나 이 B-3a는 문장 수가 9문장으로 가장 적고, 사용된 결속기제도 반복 이외에는 의미 관계에 따른 결속 1회뿐이어서 한국어 작문 구성 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4) 그래도 우리 가족 다 Yellowstone National Park에 갔다. 우리는 여름에 Clear Lake에 간데 우리는 Yellowstone에 갔다. 우리 식구가 고모와 고모부하고 Yellowstone를 갔다. Yellowstone에서 우리 다 재미있게 노랐다.(B-6a)
 (5) Canada는 미국이랑 많이 틀려요. Canada는 진짜 추워요. 나는 Canada에 가면 많이 신아요. 저는 Canada에 미국 사람들 제일 많이 밟습니다.(A-6a)
 (6) 나는 재미있는 학교 갔습니다. 우리 학교 이름이 Palm Crest Elementary입니다. 이 학교는 라카나다(La Canada)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일학년부터 육학년까지 Palm Crest에 있을 거야. 칠학년에 나는 La Canada High School으로 갈꺼예요. 이 학교는 매우 어려워요. 저 형은 이 학교에 있습니다. 저 형은 책을 많이 있고 매오 study해요. 자는 학교를 매오 조아해요.(B-3a)

2) 생략

생략은 단어의 생략, 구의 생략, 문장의 생략, 담화의 생략 등으로 다양하다. 생략은 말이나 글에 자연스러움과 간결함을 주는 동시에 앞의 문장이나 내용과의 결속을 이룬다. 즉, 생략은 다른 결속 장치와는 달리 외형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결속을 이루어주므로 이를 ‘내재적 결속 장치(internal cohesive devices)’라 할 수 있다(박영순 2007:204-6). 다음 (7), (8)이 생략의 예에 해당한다.

- (7) 나의 가족은 겨울대 스거이트를 하로 간다. 아니면 (나의 가족은) 한국를 가서 가족를 만나다.(A-3a)
 (8) 나는 매일 엄마를 준 공부를 했다. (공부를) 다 하고 수영 연습을 갔다.(B-6a)

다음의 (9), (10)은 마지막 문장의 주어를 생략함으로써 동작의 주체가 모호해진 경우로 괄호 안의 ‘우리 가족은’과 ‘경희랑 나는’을 주어로 포함해야 문장 의미가 명료해지게 된다.

- (9) 네 가족에 어마랑 아빠랑 동생이 있다. 동생은 학교에 안 가고, 유치원에 단입니다. 저 아빠는 과학 저이예요. 어마는 으막을 가리키고 집에서는 마시 잇는 음식을 만든다. (우리 가족은) 삼학년 때 학교에 노로 갔췌서요.(B-3b)
 (10) 경희랑 나는 다설살 데 만납니다. 교□서 만납니다. (경희랑 나는) □요일대 요리 태네스 합니다.(A-3b)

또한 위의 (4)는 지나친 반복 기제의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로 (4)’와 같이 반복된 어휘 일부를 생략하거나 대용 표

현으로 대신함으로써 글의 응집성이 개선될 수 있다.

(4)' 그래도 우리 가족 다 Yellowstone National Park에 갔다. 우리는 여름에 Clear Lake에 간데 이번 여름에는 (우리는) Yellowstone에 갔다. 우리 식구가 고모와 고모부하고 (Yellowstone를) 갔다. (Yellowstone) 거기에서 우리 다 재미있게 노렸다.(B-6a)

이와 같이 생략은 반복과 함께 재외동포 아동의 작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며, 오용 사례도 빈번해서 응집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외동포 아동 작문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생략과 반복 기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쓰기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어휘적 의미 관계에 따른 결속 표현

어휘적 의미 관계에 따른 결속은 선행 문장의 성분과 후행 문장의 성분이 단어의 계열 관계, 반의 관계 등을 드러냄으로써 두 문장을 결속하는 형식이다(장경희 외 2003:386). 분석 자료에서는 전체적으로 2회만 출현하는데, (11)과 같이 반의 관계로 나타난 경우, (12)와 같이 계열 관계로 나타난 경우가 있다.

(11) 동생은 저 옛날 인영을 바꿨다. 엄마가 다음에 세 인영을 동생을 사 준대요.(B-3b)

(12) 우리 학교는 일학년부터 육학년까지 Palm Crest에 있을 거야. 칠학년에 나는 La Canada High School으로 갈꺼예요.(B-3a)

4) 접속

접속 표현은 대표적인 결속 기제로서 앞의 내용에 첨가, 보충, 반대, 이유 등으로 결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반복 표현이나 의미 관계에 의한 표현 등이 주로 성분 결속을 위해 사용되는 형식이라면 접속 표현은 문장 내용간의 결속에 주로 사용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장경희 외 2003:387). 다음의 (13)과 (14)가 이에 해당한다.

(13) 집을 와고 저녁 먹고, SAT 연습카드를 웨웠다. 그리고 방학반을 Rosement Middle School에서 여름학교 가서 산수를 배웠다.(B-6a)

(14) 거기서 밥을 먹고 호텔에서 잤습니다. 다음날 일직 이러나서 아침을 먹고 출발했습니다.(A-6a)

그리나 다음의 (15)와 같이 접속 표현의 선택을 잘못 하거나 (16)과 같이 필요한 접속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서 글의 결속 구조를 해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외동포 아동의 작문 지도에서 접속 표현 사용에 대한 연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5) 학교에서 어려운 Algebra를 배웠다. 그래도 우리 가족 다 Yellowstone National Park에 갔다. (B-6a)

(16) 학교 끝나고 집에서 숙제를 했다. (그리고) 수영 연습 가고 집에 전역 먹고 숙제 모두 끝났다.(B-6a)

5) 대용

대용(anaphora)은 선행 단어나 문장, 담화가 있을 때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대신해서 사용하는 단어들로서 언어를 축약하여 언어 경제성과 언어의 자연스러움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박영순 2007). 그러므로 대용은 텍스트의 결속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결속기제로 분석 자료에는 다음의 (17), (18)과 같은 대용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17) 30분 버스를 타고 식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밥을 먹고 호텔에서 잤습니다.(A-6a)

(18) 우리 가족은 이렇게 다르지만 너무 쫌다.(A-3a)

다음의 (19), (20)은 적절하지 않은 대용 표현이 사용된 예이다. (19)의 '그거가'는 '이것이'로 바꾸는 것이 좋다. 여기에 '그거가'가 사용된 것은 영어의 'it'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간접의 오류로 보인다. (20)의 '저기의'는 '거기의'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이, 그, 저'와 같은 지칭 표현을 (20)

과 같은 상황에서 중칭 대신 원칭을 쓰는 오류를 자주 범한다. 이러한 오류는 재외동포 아동도 예외가 아니어서 영어의 'there'에 대응하는 표현 '저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말이나 글에서 이미 언급한 대상이나 물건은 중칭으로 지시한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 (19) 나는 방학에 가는 것이 Six Flags에 먼저 갔다. 무척 재미있었다. *그거가 나 여름방학이었다.
(B-6a)
(20) Canada에 미국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요. *저기의 친척들이 저보다 더 나이 많으니깐 더 재미있 습니다.(A-6b)

3.2. 접속기제 사용 빈도

다음은 작문 텍스트에 사용된 접속기제의 사용 빈도를 집계하여 제시한 것이다.

	문장 수	반복	생략	의미 관계	접속	대응
A-3a	15	7	1			1
A-3b	14	6	3			
B-3a	9	6		1		
B-3b	15	4	8	1	1	
A-6a	27	3	23		2	2
A-6b	17	11	2		1	2
B-6a	23	11	3		3	1
B-6b	14	6			3	

〈표〉 접속 기제 유형과 사용 빈도

이를 보면 1.5세와 2세는 문장 수나 접속 기제 사용 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작문에 사용된 문장 수에서도 B-3a가 9문장으로 다른 자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제외하면 1.5세와 2세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학년별로는 몇 가지 발달적 측면이 확인된다. 먼저 3학년은 평균 문장 수가 13 문장, 6학년은 20문장으로 6학년의 문장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적절한 분석 자료 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B-6b는 (21)과 같이 4개의 연결어미가 사용된 접속문을 쓰고 있고, B-3a는 (22)와 같이 전체적으로 단문만을 사용하고 있어 상급 학년으로 갈수록 접속문의 사용 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외동포 아동에게서 학년별로 나타나는 한국어 쓰기 숙달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

- (21) 말하면서 노래를 들르면서 집으로 가서 컵라면을 또 먹고 재미있게 가조끼리 한 번 더 놀고 싶어 요.(B-6b)
(22) 칠학년에 나는 La Canada High School으로 갈 꺼예요.(B-3a)

접속 기제 사용 빈도에서도 1.5세와 2세 사이의 차이가 특징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3학년과 6학년 그룹을 비교할 때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반복과 생략은 학년에 관계없이 사용 빈도수가 높음에 비해, 접속과 대응은 주로 6학년에 출현하고 있다. 반복, 생략, 의미 관계 등은 문장 성분을 접속하는 기제임에 반해 접속과 대응은 문장 내용을 접속하는 기제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경희 외(2003:403)에서 유아기 아동이 문장 성분을 접속하는 형식을 습득한 이후에야 문장 내용을 접속하는 형식을 배우게 된다는 발달 순서 분석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용 표현은 결속구조 형성에 중요한 기제임에도 자료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지 않고 총 6개 중 5개가 6학년 자료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6개 중 오류가 3개인 것을 볼 때 재외동포 아동들은 대용 표현 활용 능력이 미숙한 것으로 보인다.

§ 4. 맺음말

본고는 재외동포 아동의 작문 텍스트의 결속구조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1.5세와 2세, 3학년과 6학년으로 구분된 총 8종의 작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자료는 전체 8종이므로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재외동포 아동의 한국어 작문 텍스트에 결속구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사용 양상의 일부를 관찰해 본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더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이제까지의 관찰의 결과를 간단히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1.5세와 2세는 문장 수나 결속기제 사용 빈도 및 양상 등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학년별로는 몇 가지 발달적 측면이 드러난다. ① 3학년의 평균 문장 수는 13 문장, 6학년은 20문장으로 6학년의 문장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접속문의 사용 능력이 증가하고 있다. ③ 대용은 결속구조 형성에 중요한 기제임에도 다양하게 사용되지 않는데, 총 6개 중 5개가 6학년 자료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6개 중 오류가 3개인 것을 볼 때 재외동포 아동의 대용 표현 사용 능력이 미숙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반복과 생략은 학년에 관계없이 사용 빈도수가 높음에 비해, 접속과 대용은 주로 6학년에 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장 성분을 결속하는 반복과 생략 기제를 먼저 습득하고 접속, 대용과 같은 문장 내용을 결속하는 기제로 결속구조 사용이 발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전술한 바와 같이 결속기제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이 글의 응집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재외동포 아동의 작문 지도에서 결속기제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결속기제를 적절히 사용하면 글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언어 사용이 미숙한 학습자에게 결속구조 활용을 위한 교육은 작문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명희·김순자(2003), 유아의 결속 구조 형성 능력 발달 과정 - 유아 초기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영순(2007), 한국어 화용론, 박이정.
- 박진용(1997), 텍스트 의미 구조의 과정 중심 분석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 서혁(1998a), 국어교육적 관점에서의 텍스트 분석, 텍스트언어학 5, 텍스트언어학회.
- 서혁(1998b), 초등학생의 텍스트성 발달에 관한 사례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8,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유경·정은희(2006), 초등학교 3·4학년 아동의 접속부사 사용 특성, 언어치료연구 15-2.
- 이성영(2000), 글쓰기 능력 발달 단계 연구 -초등학생의 텍스트 구성 능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26, 국어국문학회.
- 이재승(2003), 읽기와 쓰기 행위에서 결속 구조의 의미와 지도, 국어교육 110, 한국어교육학회.
- 장경희·김명희·김순자(2003), 유아의 텍스트 결속 형식 습득 과정, 국어교육학연구 18, 국어교육학회.
- Beaugrande, R. & Dressler, W.(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gman.
- Halliday, M. A. K. & Hansan, R.(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 van Dijk, T. A.(1977), Text and Context, Longman.

〈별첨〉 연구 대상 작문 텍스트

1) A-3a.

“나의 가족”, 남가주한국학교 글렌데일 3학년(1.5세), 2001년 이민

나의 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다릅니다. 나의 가족은 나의 동생, 고모부, 고모, 언니, 오빠, 큰오빠입니다. 큰오빠는 회사를 다니고 다른 오빠는 비행사와 뿔어고 학교 다닙니다. 언니는 학교를 다니고, 동생은 학교를 나와 다닙니다. 우리는 화날 터도 있지만 그러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강아지를 키우기도 합니다. 강아지 이름을 Phattiedma니다. 나의 가족은 좁은 집에 살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산다. 우리 고모부는 매일 애배를 보신다. 우리는 고모부는 모사님이어서 애배를 우리와 설명하신다. 나의 가족은 겨울대 스거이트를 하로 간다. 아니면 한국를 가서 가족를 만난다. 우리는 한국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다르지만 너무 쫘다. 우리가족...

2) A-3b.

“네 친구”, 남가주한국학교 글렌데일 3학년(1.5세), 1999년 이민

네 친구들은 차가합니다. 젤 조은 친구는이 세경희입니다. 경희랑 나는 다설살 데 만납니다. 교□서 만납니다. □요일대 요리 태네스 합니다. 나는 경희 집에 마니 잡니다. 경희는 나보다 끼가 데급니다. 경희는 경아지 도 마리 있습니다. 강아지 이름은 복그리랑 복마니입니다. 경희는 언니가 있습니다. 경희 언니 이름은 세지니입니다. 경희도 한글학교 갑니다. 5학년 1반입니다. 경희령 나는 진자 조은 친구입니다.

* “□” 올바른 한글 철자 표기가 아님.

3) B-3a.

“미국 학교”, 남가주한국학교 글렌데일 3학년(2세)

나는 재미있는 학교 갔습니다. 우리 학교 이름이 Palm Crest Elementary입니다. 이 학교는 라카나다(La Canada)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일학년부터 육학년까지 Palm Crest에 있을 거야. 칠학년에 나는 La Canada High School으로 갈꺼예요. 이 학교는 매우 어려워요. 저 형은 이 학교에 있습니다. 저 형은 책을 많이 있고 매오 study해요. 자는 학교를 매오 조아해요.

4) B-3b.

“네 가족”, 남가주한국학교 글렌데일 3학년(2세)

네 가족에 어마랑 아빠랑 동생이 있다. 동생은 학교에 안 가고, 유치원에 단입니다. 저 아빠는 과학저이예요. 어마는 으막을 가리키고 집에서는 마시잇는 음식을 만든다. 삼학년 때 학국에 노로 갔쫘서요. 어마랑 아빠랑 함께 갔서요. 동생은 안 대꾸 갔다. 왜냐면 동생이 너무 어리니깐. 한국에 가보니깐 한국 말을 배워따. 벼루 많이는 안 배웠다. 미국에 도 라왔을 때 삼촌이 대리로 왔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바랐서요. 엄마와 아빠가 인영을 사 주쫘서요. 동생은 저 옛날 인영을 바렸다. 엄마가 다음에 세 인영을 동생을 사준대요.

5) A-6a.

“Spring Break”, 남가주한국학교 글렌데일 6학년(1.5세)

Spring Break였습니다. 엄마, 동생 그리고 나랑 놀러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6시간이나 갔습니다. New York에 도

착해서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착고 버스에 타고 갔습니다. New York는 멋있었습니다. 30분 버스를 타고 식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밥을 먹고 호텔에서 잤습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출발했습니다. 보스를 오래 타고 Washington D. C.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Washington Museum에 구경했습니다. 한 시간이나 구경하고 Washington Monument를 보러 갔습니다. 거기서 White House도 보고 Lincoln Monument도 봤습니다. Lincoln Monument트는 진짜 컷습니다. 사진을 만이 찍으고 다음 코스로 갔습니다. 많은 걸 봤습니다. New York에 다시 가서 New York City에 갔습니다. 거기서 Empire State Building에 드러갔습니다. 언에는 진짜 컷습니다. Empire State Building 꼬데기까지 가서 봤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차들이 진짜 쪼금했습니다. 다 보고 Statue of Liberty를 보러 갔습니다. 배를 타고 봤습니다. 진짜 머시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재미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갔으며 조켓습니다.

6) A-6b.

“겨울방학”. 남가주한국학교 글렌데일 6학년(1.5세), 2000년 이민

나는 겨울방학에 Canada에 가족이 복오싶어요. Canada에 눈도 복오 싶어요. 저기의 아빠의 형 살고 있습니다. Canada는 두 번 갔습니다. Canada는 가고 싶어요. 외냐하면 미국보다 더 추어니깐. 나는 Canada에 팔기 따러 갔구, 눈을 밧고, 하고 큰아빠집도 많이 커요. Canada에 미국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요. 저기의 친족들이 저보다 더 나이 많은니깐 더 재미있습니다. 지난번에 Canada는 언니랑 비행기 같이 갔어쥔데 옆에 이 모른은 아저씨가 코 글고 있었습니다. Canada는 미국이랑 많이 틀려요. Canada는 진짜 추워요. 나는 Canada에 가면 많이 신아요. 저는 Canada에 미국 사람들 제일 많이 봤습니다. 한국 사람도 하나두 없어요. 나는 Canada에 snowman두 많이 밧어요. 지난번에 저 Canada 두 번 갔어쥔데 자동차 갖고 Canada에 출발했었습니다.

7) B-6a.

“여름방학“, 남가주한국학교 글렌데일 6학년(2세)

나는 여름 방학에 많이 앓 놀았다. 나는 매일 엄마를 준 공부를 했다. 다 하고 수영 연습을 갔다. 집을 와고 저녁 먹고, SAT 연습카드를 웨웠다. 그리고 방학반을 Rosement Middle School에서 여름학교 가서 산수를 배웠다. 학교 끝나고 집에서 숙제를 했다. 수영 연습 가고 집에 전역 먹고 숙제 모두 끝났다. 자고 또 했다. 학교에서 어려운 Algebra를 배웠다. 그래도 우리 가족 다 Yellowstone National Park에 갔다. 우리는 여름에 Clear Lake에 간데 우리는 Yellowstone에 갔다. 우리 식구가 고모와 고모부하고 Yellowstone를 갔다. Yellowstone에서 우리 다 재미있게 노랐다. 우리 숲 안에 가서 동물 많이 보았다. 우리는 곰, 사슴, 물고기와 Buffalo를 보았다. 말금 날시도 있어서 더 재미있었다. 나는 형하고 Trailer에서 놀았다. 우리 식구가 Yellowstone를 비행기로 갔다. 먼저 비행기로 Salt Lake City, Utah를 가고 거기에서 Yellowstone을 가서 Stanford University를 갔다. 그리고 방학 마지막 날에 사촌하고 Six Flags Magic Mountain을 갔다. 나는 방학에 가는 것이 Six Flags에 먼저 갔다. 무척 재미있었다. 그거가 나 여름 방학이었다.

8) B-6b.

“겨울방학에 가고 싶은 대”, 남가주한국학교 글렌데일 6학년(2세)

나는 겨울방학 때 Mammoth에 가고 싶습니다. Mammoth에서 오빠랑 눈사람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녁으로는 컵라면을 먹고 또 나가서 snow ball fight하고 싶습니다. 나는 진짜 눈을 한번도 못 밧습니다. 눈에 누어가지고 snow-angel을 만들고 싶습니다. 내 생각않에는 눈이 머십니다. 가족이랑 같이 노래도 부르고 놀고 싶습니다. Hot Chocolate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싶습니다. 따듯따듯한 대에서 누워서 눈을 차다 보면서 잠들으고 싶어요. 따들한 국을 먹으면서 엄마와 아빠랑 말하고 싶습니다. 일기도 Tm 다음에 video game을 놀고 싶어요. 일주 있다가 집으로 갈 때 DVD를 보면서 재미있게 가고 싶습니다. 말하면서 노래를 들르면서 집으로 가서 컵라면을 또 먹고 재미있게 가조끼리 한번 더 놀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다 했던 거를 마래 주고 싶어요.

세계의 언어 전쟁, 텍사스에 한국어 심기



박정수
주휴스턴한국교육원장

〈주휴스턴한국교육원 웹사이트 갈무리〉

“다행히 텍사스 지역에서는 한글 보급이라는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여러 선생님들이 하나 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제 곧 미국 남부지역에 한글 깃발을 휘날리는 날이 올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에서는 교사, 교재, 교육과정,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세계 속의 당당한 외국어로 한글을 선보일 것이다.”

§ 1. 들어가면서

시대에 따라 세계 주류 국가의 개념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19세기는 ‘영토 전쟁의 시대’로 보다 넓은 땅을 가진 국가가 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유럽의 제국들은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아시아 각국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20세기는 ‘무역과 경제 전쟁의 시대’로 경제적 부를 쫓아 모든 국가의 동력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문화 인재 전쟁의 시대’라는 화두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국가 위상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문화 중에서 언어를 통한 국가의 위상 제고 노력은 눈물겹다. 예를 들어 영국의 British Council,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프랑스의 알레앙스 프랑세즈, 중국의 공자학당 등이 대표적인 언어와 문화 보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관들이다.

한국 정부에서도 한국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한글과 한국문화보급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한글을 사용하는 인구는 약 8,000만명에 이르며,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3위, 그리고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

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대상 중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좌와 초·중등학교 정규교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필자는 미국, 특히 텍사스 지역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다.

§ 2. 현황 및 문제점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중인 ‘미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 사업’에 대한 휴스턴 교육원 관할 지역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다. 한인 동포수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타 교육원과는 달리 휴스턴교육원 관할은 비교적 한인 동포수가 적으며 그나마 광대한 지역에 분산 거주하고 있어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한 한국 커뮤니티의 역할이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텍사스 주에서는 2011년 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한국어가 정규 외국어(Language Other Than English : LOTE)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 외국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학교에서 채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교육원의 노력과 사업성과에 따라 한국어를 채택하는 초·중등학교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다. 따라서 텍사스 주에서 한국어 채택사업의 전제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한국어의 정규 외국어 등록이었다.

또한 한국어 채택 필요성에 대한 교민의 인식도 아직 부족하고, 제2외국어로서의 입지가 스페인어, 중국어에 비해 매우 빈약하였으며, 그리고 예산 지원, 교사 확보, 교재의 보급 등 장기적인 계획의 부족으로 학교 교육과정 담당자들에 대한 협조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 3. 새로운 시작

가. 한국어 보급을 위한 총체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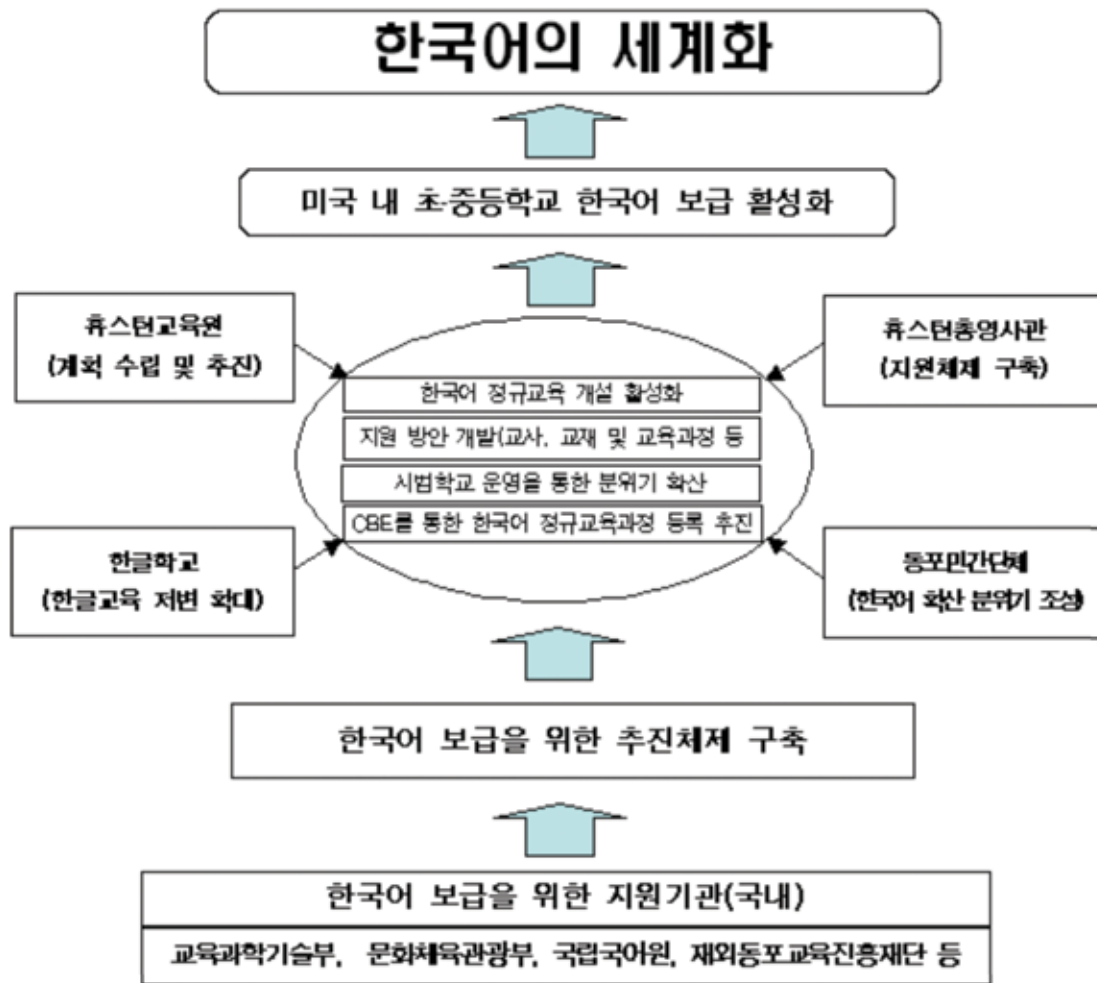
1) 필요성

한국 교육에서 새로운 언어를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 정규교과로 추가하는 과정을 고려해 본다면 과연 현지 한국교육원 단독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교육원에서는 총영사관, 현지 동포 및 한글학교 관계자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총체적인 접근을 추진하였다. 또한 외국어 정규교과 등록사업이 교육원이 주도적으로 현지교육청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부 대 정부간의 문화외교정책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포단체, 특히 한글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고 교육원 및 총영사관에서는 이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도록 협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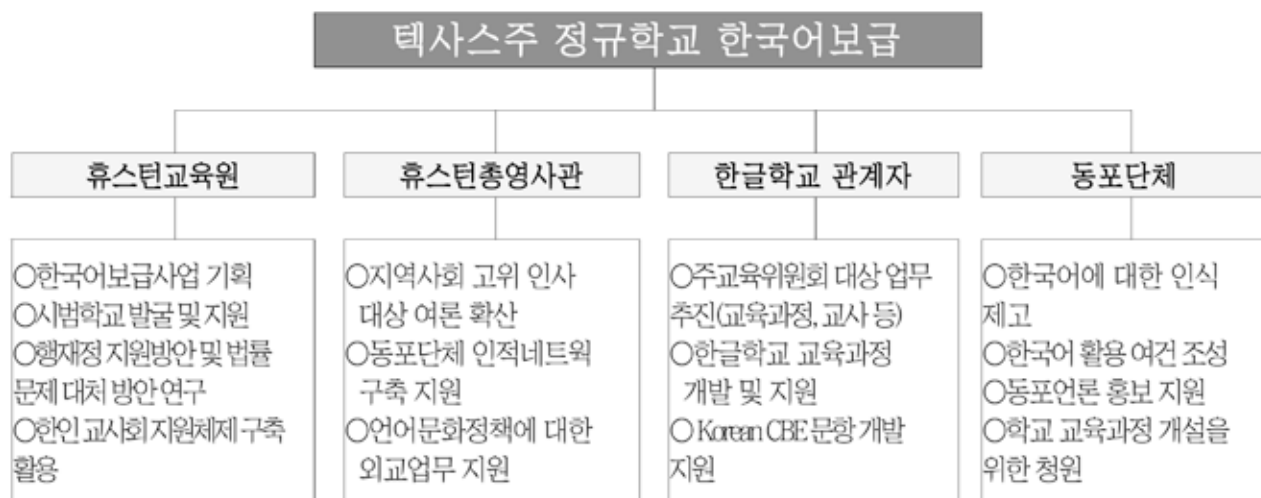
2) 추진 과정

먼저 교육원에서는 정부의 한국어보급사업이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총영사관측에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총영사관에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후 교육원과 총영사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이 사업에 동참을 권유하여 달라스한국학교 홍선희 이사장(치과의사), 방정웅이사(달라스지역 교육청에서 20년간 교육평가담당자로 근무) 및 방화자 교수(리차드슨대학 한국어 강사) 등을 핵심 추진 멤버로 위촉하여 텍사스 주교육위원회와 접촉하도록 하였다.

3) 추진 방향 및 체계



4) 추진 주체별 주요 업무



나. 추진 결과 및 향후 추진 방향

1) Korean CBE 추진

한국어 채택 사업의 기반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교육과정 등록이어서 본 교육원에서는 먼저 한국어가 텍사스의 교육과정으로 등록되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하여 CBE(Credit By Exam)를 통한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일단 CBE 승인을 받으면 이 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하는 학생은 정규학점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Language Other Than English(LOTE)의 과목으로 등록이 된다. 이를 위해 추진팀이 텍사스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산하연구소인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평생교육원에서 문항 개발을 인가하였다. 문항 개발에는 한국인 현직 대학 교수 및 초·중·고 공립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개발팀이 참여하였다. Korean CBE 문항 개발은 텍사스교육청의 외국어 교육과정 기준 및 평가 기준을 참조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항 개발 과정을 거쳐 2010년 12월 Austin 교육청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Pilot 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1. 2. 7 공식적으로 Korean CBE가 승인되었다. 이로써 한국어는 텍사스 중·고등학교 성적표에 기재될 수 있는 정식 외국어과목으로 등록된 것이다. 그리고 수준 Ⅲ인 DAP (Distinguished Achievement Diploma Program) 개발 준비 중이다. DAP는 Pre Advanced Placement 과정으로 향후 AP 과정 도입의 중간 단계 역할을 담당하고 full credit이 확보됨으로써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정규교과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Korean CBE의 기본 정보(by UT Austin K-16 Education Center)

Test Section	First Year Korean (% of test)	First Year Korean Number of Items	Second Year Korean(% of test)	Second Year Korean Number of Items
Listening	16	16 mc	16	16 mc
Speaking	12	3 tasks	12	3 tasks
Grammar	20	20 mc	20	20 mc
Vocabulary	20	20 mc	20	20 mc
Reading	16	16 mc	16	16mc
Culture	8	8 mc or TF	4	4 mc or TF
Writing	8	1 task	12	3 task

※ 시험의 구성 (mc= 선택형, task=과제형), 시험 소요 시간 : 3시간

* 응시 대상은?

학점인정 시험은 텍사스교육청의 외국어 표준교육기준에 따라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텍사스의 어떤 학생이나 혹은 텍사스의 고등학교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타주 및 외국의 어떤 학생들도 응시할 수 있다.

* 한국어 학점인정시험에 대한 전제조건은?

8~12학년 학생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만약 교육청별로 전제조건이 있는지 자신의 카운슬러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

* 한국어 학점인정시험을 통과하면 얼마의 학점을 받는가?

한국어 1은 텍사스외국어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처음 1년간의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국어 2는 제2년차 1년간의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국어 1, 2를 모두 통과한 학생은외국어(LOTE)

과목에서 졸업에 필요한 2년의 학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현재 고등학교 외국어는 2년의 이수를 필요로 한다. AP과정에 해당하는 DAP 프로그램은 3년간의 LOTE 이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국어 1, 2를 통과한 학생은 3년 중 2년을 이수한 것이 되면 나머지 1년을 위해 한국어 3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현재 한국어학점 인정시험은 1, 2단계가 개발되어 있으며, 텍사스교육청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한국어 3단계를 개발 시행할 예정임)

*** 학점인정시험 응시 장소는?**

텍사스의 학생들은 응시 장소에 대해 2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첫째, 텍사스 교육청의 규정(TAC Chapter 74.24)에 따라 각 교육청은 연 2회 CBE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청이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결정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교육청이 제공하는 시험은 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둘째, 학생 개인이 CBE를 구입하여 자신의 일정에 따라 편리한 시간에 시험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학생은 연중 어느 때라도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K-16 Center에 시험을 요구하여, 이 연구소나 혹은 공인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공인된 시험장으로 가서 지정된 감독관의 지도하에 보안을 유지하여 시험을 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시험지는 이 연구소로 보내어져 채점이 된 후 안전 메일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로 보내어져 성적표에 성적이 기재된다.

*** 기타 사항은?**

한국어 학점인정시험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자신의 학교 카운슬러와 확인을 해야 한다. 학생이 교육청과 별도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면 개인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한다. 학생이 교육청을 통해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카운슬러에게 알려 교육청이 기관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을 통해서 시험에 응시하든 혹은 개인별로 응시하든 성적 처리는 2주일이 걸리며 학교로 통보된다.

*** 텍사스학점인정 시험 관련 사이트:**

<http://www.utk16.org>

*** 한국어 학점인정시험 학습 안내 지침 사이트:**

<http://www.utexas.edu/ce/k16/cbe-ea/study-guides/9-12/>

2) 시범학교 발굴 및 운영

Korean CBE 추진을 통해 한국어를 텍사스주 정규외국어과목으로 승인을 받는 작업과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인 정규 학교 한국어과정 개설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사실 한국어 학점 문제는 한글학교 운영 내 실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지역 한인동포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분야였지만 외국인을 대상을 하는 정규학교 한국어 채택사업은 지역 한인 동포들이 관심이 아주 적은 상황이었다. 이에 휴스턴 교육원에서는 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아직 한국어가 정규 외국어교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를 섭외하여 정규교과 개설을 협의하는 것은 무모한 방안이라 교과부와 협의 하에 우선 방과후 과정으로 접근하기로 하였다.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일단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이어야 하기 때문에 각 한글학교를 방문하면서 한인 미국정규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상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Austin 한글학교의 랜디황 선생님과 휴스턴 한인학교 이순희 선생님을 설득하여 2010년 9월부터 드디어 미국 학교 교실에서 ‘지역, 니은, 디근, 아, 야, 어, 여 ...’ 세종대왕님의 뜻을 펼치게 되었다. 오스틴 Travis Heights 초등학교, 휴스턴 DRAW Academy는 텍사스 지역 한글보급에 있어 선구자적인 전초 기지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위 두 학교의 활동 사례가 소문이 나면서 인근학교에서도 한국어를 방과 후 수업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요청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1년 봄학기에는 오스틴 지역 Doss 초등학교에서는 ESL을 담당하는 이미에 선생님이, Sanchez 초등학교에서는 랜디황 선생님이, Fullmore 중학교에서는 고윤경 선생님이, 휴스턴의 Bellaire 고등학교에서는 박민규 선생님께서 한글과 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희생을 하고 계신다.

3) 정규과목을 위한 작은 노력

위와 같은 방과후 학교 운영은 궁극적으로 정규과목 채택을 위한 사업이므로 휴스턴 교육원에서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는 경우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능한 모든 시도를 하였다. 다행히도 오스틴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초등학교 Dual language Program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교육청 담당자와 직접 접촉을 하여 오스틴교육청의 이중언어 프로그램 과목에 한국어를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일단 포함시키는 조건은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Pilot 기간 동안은 한국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교육청에서 한국어를 포함시킨다는 사실을 확인 한 후 한국어를 개설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물색하였다. 가장 쉬운 대상은 현재 한국어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였다. 마침 Travis Height 초등학교의 Lisa Roberston 교장은 외국어교육과정 분야에 대한 굉장한 열정을 가진 분이어서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에 랜디황 교사는 학부모 및 학교 교사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개괄적인 교육과정과 함께 교육청에 Travis Heights 초등학교 한국어 이중언어 교육과정을 신청하여 최종적인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이제 2011년 9월이면 텍사스지역 정규학교의 정규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는 쾌거를 맞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Travis Heights 초등학교에서는 Pre K-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랜디황 교사를 비롯한 연구진은 텍사스의 살인적인 더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쏟고 있다.

4) 한국어 캠프 운영

휴스턴지역의 정규학교 한국어 도입을 위해 또 다른 접근 방법을 채택하였다. 현재 휴스턴 지역 교육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외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는 한국인이 비교적 많이 재학하고 있는 Spring Branch 교육청의 하계 외국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보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SBISD에 근무하는 한국인 ESL 담당인 Joanne Kim이 역시 큰 역할을 해 주었다. 이 사업은 교육원과 SB교육청의 공동 주관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관별 추진 업무

기관	휴스턴한국교육원	Spring Branch 교육청
업무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학습 프로그램 구성 및 실행)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교사 및 자원봉사자 선정	·Summer Camp 종합 계획 수립 추진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교육프로그램 시설 제공 (교실, school bus, 조식 및 중식) ·교육프로그램 홍보 및 등록 등

○ 수업기간 : 2011. 6. 13~6. 30(3주, 주4일 총 12일) 08:30~11:30(1일 3시간) 3주 총 36시간

○ 장소 : Spring Woods Middle School

○ 프로그램 내용

- 한국어 및 한국문화반 운영
- 한국문화 체험 field trip
- 한국문화 인사 초청 문화공연 등

○ 대상 : Spring Branch 교육청 소속 6~9학년 약 40명(비한국계 위주 구성)

- 교육과정 : 한국어 자모체계, 한국어 어순, 한국 문화 등
- 사업효과 : 휴스턴 지역 초중학생들의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향후 고등학교 한국어 보급 사업을 위한 기반 조성

5) 교사 지원 방안

한국어 보급을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이다. 따라서 본 교육원에서는 2010. 09. 17(금) 텍사스주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한국어교사 자격증 신설 문제를 협의하였다. 현재 텍사스주 교육위원회의 외국어교사 자격증은 주로 일부 과목(Spanish, Chinese 등)의 경우 대학에서 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ACTFL 시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ACTFL에 의한 외국어 교사자격증은 Arabic, Chinese, Japanese, Russian 그리고 Vietnamese이다. 현재 텍사스에는 한국어교사 양성 기관이 없으므로 시험에 의한 자격증 취득 방법을 활용하도록 협의하였다. 텍사스교육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ACTFL에 의한 한국어교사 자격증 신설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해 주었으며, 향후 Korean CBE에 의해 한국어가 정규교과로 등록되고, 또한 다수의 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교과로 개설할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신설하기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단 방과후 수업의 경우에는 현직 한국인 교사가 담당을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으며, 2011-2012학년도 Travis Heights 초등학교 이중언어 프로그램의 경우는 텍사스 교사 자격증을 가진 한국인을 선정하여 진행하기로 교육청 및 학교와 합의하였다.

6) 분위기 조성 사업 : 교육자의 밤 행사

휴스턴 교육원에서는 텍사스 지역 교사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켜 학생들이 한국을 보다 잘 알게 하고, 한국어 보급 사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자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일시 : 2011.05.18(수) 18:30~21:00
- 장소 : Renaissance Austin Hotel
- 참석자 : 교육청 사회과 및 외국어 담당 장학사,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 한국어 방과후 수업학교 교사 등 100여명
- 목적 : 한국 및 한국문화 홍보, 한국어 보급사업 참여 학교 감사 전달 및 향후 추진 기반 조성, 한국 영어교육 홍보(TaLK) 등
- 행사 취지 및 효과

* Austin은 텍사스의 주도(洲都)로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이며, 최근 들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임. UT Austin에는 1,200여명이 넘는 한국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동 대학 아시아학과에서 한국어 강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또한 한국의 삼성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어 Austin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현지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임.

* 무엇보다도 지난해부터 시작된 텍사스지역 정규학교 한국어 보급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 3개의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에서 방과후 과정으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1-2012학년도에는 Travis Heights 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프로그램(Dual Language Program)으로 한국어를 정규교과로 지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2010년 휴스턴지역 교사의 밤 행사 개최에 이어 오스틴지역 교사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음.

* 교육원장은 지난 2월부터 텍사스지역에서 한국어가 고등학교 외국어 과목으로 정식 인정되었으며 오스틴 교육청 관할 3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들 학교들을 호명하면서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하여 참석한 해당학교 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 Tina Dong(Foreign Language Coordinator) 장학사는 중등학교 외국어를 담당하는 장학사로서 사회과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다문화 사회를 이해시키는데 이번 행사가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현재 오스틴교육청관내에서는 다양한 외국어가 지도되고 있는데 한국어도 정규교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의 문화와 한글이 오스틴 학생들의 다양한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하겠다고 말함.

*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사람은 다름 아닌 방과후 수업으로 한국어를 지도하고 있는 학교의 한국인 교사들이었음. 현재 오스틴지역 방과후 수업은 주로 한국인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심지어 교사들에게도 생소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지도한다는 것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입장이 있음. 그런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원에서는 해당 학교의 교사들을 다수 초청하여 한국과 한국문화, 그리고 오스틴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새롭게 알림으로써 한국어 보급사업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음. 행사 이후 많은 교사들이 당일 행사가 아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내용이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한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함. 특히 Doss 초등학교 이이매 선생님은 학교에서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덕담을 듣고 한국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내용을 전해 줌.

§ 4.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외국의 정규학교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국가적 정책 사업은 단순히 교육원 차원의 접근법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를 위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타국 정부의 입장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이므로 이해관계자인 학부모와 동포단체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지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정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여 이를 조정할 교육원장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원장이 미국 학교를 방문하면서 과연 무슨 자료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것인가? 왜 미국인이 한글을 배워야 하는가? 병사에게 단지 총과 총알을 주면서 전쟁을 하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해야 하는지? 왜 이 전쟁이 필요한 것인지? 등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필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한국인도 거의 없는 지역에서 미국인에게 한국어를 배우라고 권하는 이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공동의 전략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또하나의 어려움은 미국 정규학교에 한국어 보급 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막상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지고 설 것인가? 미국은 주마다 교육과정과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한국어 교육과정을 준비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자료마저도 얻기 어려운 현실에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는 1인 교육원장 체제에서는 이 보다 더 어렵고 난감한 일은 없을 것이다. 다행히 텍사스 지역에서는 한글 보급이라는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여러 선생님들이 하나 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제 곧 미국 남부지역에 한글 깃발을 휘날리는 날이 올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에서는 교사, 교재, 교육과정,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세계 속의 당당한 외국어로 한글을 선보일 것이다.



〈한국학교 수업 전경〉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교사의 자세

김도일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

“모국어를 철저히 지도하는 것은 이제 모든 부모와 한국학교 교사들의 사명이다. 미국에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어를 잘 구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신들의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들어오고 사용한 언어인 모국어 즉, 한국어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읽기, 쓰기, 문장만들기와 깊은 대화가 가능하도록 시간과 열정을 들여 교육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1세기는 변화라는 단어로 축약하여 표현할 수 있다.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잘 읽고 대처해야 한다. 이민 1세대는 물론이고 이민 2세와 3세대도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정치의 제반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해야 이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돕는 위치에 까지 이르는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리더가 가져야 할 세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을 이지훈은 “혼, 창, 통”(魂, 創, 通)으로 요약했다. 혼은 한 사람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비전이며 이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창은 끊임없이 ‘왜’라고 묻는 호기심이며 창의성 발동의 시작이다. 통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다. 원활한 소통은 제대로 된 청취와 말하기를 가능케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려는 모국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자 한다.

모국어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언어이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처음으로 듣고 말하는 언어이다. 스위스의 발달심리학자 Jean Piaget의 언어발달론과 인지발달론에 의하면 ‘사고가 먼저 발달 되어야’ 언어가

발달할 수 있다. 이것을 인지우선이론이라고 한다. 그는 언어를 사고가 발달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2세에서 7세에 해당하는 유아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중심적 언어의 특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구소련의 심리학자 Lev Vygotsky는 사고란 언어의 형식으로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언어와 사고의 발달은 만2세를 전후해서 서로 만나게 되고 이때부터 새로운 언어로서 내면화된 언어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발달 초기에서 언어와 사고의 발달은 상호 독립적이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사고는 언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언어가 유아의 인지발달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미국의 언어학자인 Noam Chomsky는 언어와 사고구조를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Chomsky는 인간의 언어가 보편적인 구조규칙을 지니고 있어 사고를 언어로 표현하게 될 때 심층구조를 만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표현방식에 의해 표면구조로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MIT의 언어학자 Chomsky박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문화와 사회를 초월한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이 존재하며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말을 배우는 한국 아이들이 종종 부정어 ‘안’을 무조건 앞에 붙여서 ‘안 사과 먹어’ 등의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문법의 규칙을 만들어낸 것. 마치 영어의 ‘not’이 목적어 앞에 오듯 중요한 정보를 맨 앞으로 꺼내는 것은 모든 언어의 공통적인 문법적 특성이다. 이런 보편문법과 관련된 시냅스 간의 연결은 언어 습득에만 관여하는데, 각 언어에 맞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신경과학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는 문장을 만들어 내는 두뇌 부위인 브로카 영역이 실제 존재하는 언어의 문법에만 활성화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무소 박사팀은 독일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어와 이탈리아어의 문법을 가르치면서 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으로 그들의 뇌를 촬영하였다. 이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한 번은 실제 사용되는 문법을 가르치고 다음엔 엉터리 문법을 가르쳤다. 그 결과 뇌의 브로카 영역은 실제 문법을 익힐 때만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브로카 영역이 이미 생물학적으로 보편화된 문법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 코넬대의 허시 박사팀은 fMRI 연구를 통해 어릴 적 외국어를 배운 사람들과 성장해서 외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쓰는 뇌의 부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어릴 때 외국어를 배운 사람은 외국어와 모국어와 뇌의 동일한 부위에서 처리되지만, 성인이 되어 외국어를 배운 사람은 서로 겹치지 않는 다른 뇌영역에서 처리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뇌에는 본능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듯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특정 시기가 정해져 있을까? 특정 언어 즉, 한국에 사는 한국인에게 일고 있는 영어 조기 교육 열풍은 ‘외국어를 배우는 데 결정적인 시기가 있고, 그 시기는 만 12세 미만’이라는 학설에 기인한다. 이는 1967년 미국의 언어학자 에릭 레너버그 교수가 처음 제기한 가설로 “인간의 언어 습득이 뇌나 발성기관의 발달적 특성 때문에 사춘기가 지나면 외국어를 배우기가 어렵다”는 주장. 그런데 최근 외국어 습득 결정적 시기론을 뒤집는 연구 결과들이 줄이어 나오고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2002년 막스플랑크 뇌연구소 신경과학자인 앙겔라 프리데리치 박사는 객관적 분석을 위해 ‘브론칸토’라는 인공언어를 가르치며 뇌의 활동을 관찰했는데, 그 결과 뇌의 전기적 활동은 인공언어를 처리할 때나 모국어를 할 때나 똑같은 패턴을 나타냈다는 것. 지금껏 ‘결정적 시기 가설’에 따라 모국어와 나중에 배우는 외국어는 다른 방식으로 뇌에서 처리된다는 학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다. 미 스탠포드대 교육학자인 겐지 하쿠다 교수도 중국과 스페인계 이민자의 이민 시기에 따른 영어 능력을 연구한 결과, “결정적 시기 가설은 근거가 희박하며, 단지 나이가 들수록 완만하게 언어습득 능력이 떨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역시 이민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캐나다 맥길대의 프레드 기니시 교수는 “놀랍게도 어른이 된 뒤 이민한 사람의 3분의 1은 어려서 이민한 사람 또는 미국 본토인과 같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했다”며 “외국어 습득 능력을 좌우하는 것은 나이 외에도 가정의 경제력, 인지 능력, 교육정도 등 사회적 요인 등이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미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다가 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영어를 자기의 제1언어로 구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모국어인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하며, 또 얼마나 깊이 가르쳐야 할까? 한 마디로 모국어를 잘 구사하는 것은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형성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자란 2세대 중에 어릴 때는 약간의 대화를 한국어로 하다가 대학을 갈 무렵에는 모국어를 거의 다 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이 한국인이며 동시에 미국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깨달음’이 왔을 때 다시 모국 문화를 열정적으로 접하면서 모국어를 다시 공부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들은 대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토요일에 열리는 한국어학교에 다니면 기초 모국어를 배워왔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모국어 수준이라는 것이 아주 열악해서 학문적인 서적이나 소설류를 읽을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라며 시를 읽고 감정을 파악하기란 좀처럼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부모 대부분이 자신의 자녀가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며 ‘우리 애는 한국말 잘 해요’라고 판정을 내리기가 일수인 것이다.

모국어는 한 사람의 정체성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고를 형성하는 세계관을 담는 중요한 수단이며 민족정신과 문화를 담고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신기하게도 남미나 동남아시아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모국어 교육에 열심을 내는데 유독 북아메리카에 이민을 와서 사는 부모들은 모국어 교육에 열심을 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집에서도 아주 짧은 영어로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보았다.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자녀들과 대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모국어 교육은 먼저 부모들의 자세에서 비롯된다.

모국어를 철저히 지도하는 것은 이제 모든 부모와 한국학교 교사들의 사명이다. 미국에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어를 잘 구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신들의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들어오고 사용한 언어인 모국어 즉, 한국어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읽기, 쓰기, 문장만들기와 깊은 대화가 가능하도록 시간과 열정을 들여 교육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쓰고 자신의 깊은 사고와 논리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성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모국어를 잘 구사한다는 의미는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국어 공부에 의도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필자가 80년대 전반에 이민을 와서 영어를 배울 때 시립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분은 구아테말라 출신의 언어학자였다. 그는 당시 UCLA에서 박사학위를 전공하던 분이었는데, 그의 조수가 백인 교수였다. 그는 필자에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음(voice and articulation)을 지도하면서 매주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 3장씩 작문을 해 오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주문했다. 학생들은 매주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영어로 작문을 해서 월요일에 가져가면 교수님은 그 영어로 작문을 빨간 펜을 사용해서 고쳐 주시고 다시 주면 우리 학생들은 집에 가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영작문을 읽고 또 읽고 하여 익숙해진 다음 학교로 가져가서 함께 대화를 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자신과 교수님이 함께 만든 영작문을 온통 암기하여 모든 학생 동료들과 교수님들 앞에서 영어로 연설을 하게 했다. 처음에는 너무도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지곤 하였지만 그 때 일년 이상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 강훈련을 받았던 필자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빨리 영어로 말하고 문장을 만드는 데 익숙해졌던 것 같다. 필자의 경험이 오늘날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유익한 통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언어를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습득에는 달리 왕도가 없고 자주 읽고, 쓰고, 외우고, 사용하는 것이 습득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특히 한민족과 같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 한글을 소유한 민족은 세계 역사상 몇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글이야말로 어떤 언어보다도 사람의 생각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언어이다. 그러므로 먼저는 부모이자 교사된 우리가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과 모국어교육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한글학교의 교사들은 비록 모국어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후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기회가 되는 대로 부모들에게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문화교육과 뿌리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가르쳐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필요를 잘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한글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며, 목표를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한글학교 교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한가치 중요한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그것은 한글학교 교사들은 한글을 잘 지도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속한 미국의 문화와 영어를 잘 알고 능숙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만약에 힘들면 적어도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노력하는 교사에게는 어떤 학생이든지 존경을 표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여타 국가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하여 한 국정부도 구체적으로 후원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할 것이다. 모국어인 한글교육의 성패는 전술한 바와 같이 훈, 창, 통의 세 가지 정신을 가진 교사들과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References

- A National Language Policy for Australia. A Report prepared by PLANLangPol Committee January 1983.
Australia Language: Policy Information Paper. The Australian Language and Literacy Policy. August 1991.
Baker, C. (2000). *A parents' and teachers' guide to bilingualism*. 2nd Edition. Cleved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Cummins, J. (2000). *Language, power, and pedagogy. Bilingual children in the crossfire*. Cleved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Skutnabb-Kangas, T. (2000). *Linguistic genocide in education-or worldwide diversity and human right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한반도 지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재미동포 교육자의 역할

윤경로
역사학자, 한성대학교 전 총장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는 남북간의 ‘민족공조’(民族共助)와 동시에 ‘국제공조’(國際共助)를 이루어 급물살을 타고 격변하고 있는 문명사적인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또 다른 ‘한류’(韓流) 곧 ‘꽃밭’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에 해외동포 교육자 여러분들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1. 서문

축하합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협의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펴내는 한인연구지에 특별 기고문을 실리게 됨을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주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우선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지난 30년 간 우리나라의 한글과 우리문화 및 우리역사 등을 재미 동포 후세들에게 가르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 글의 제목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재외동포 교육자의 역할〉이라는 매우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거창한 주제를 언급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서영훈 선생님을 모시고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일에 관계해 왔고 지금은 동 재단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기에 누구보다 여러분들과 친근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저희 재단과 저는 그동안 세계 여러나라에서 우리 한글과 문화, 역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본국으로 초청하여 학술대회도 열고 때때로 현지를 찾아 격려의 강연을 하는 등 평생을 후세교육에 종사해 온 교육자의 한 사람입니다. 이 글은 제가 전공하고 있는 역사학자로서 작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야기되고 있는 불안한 정세에 관한 역사적 인식과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에 관한 저의 평소 생각을 진솔하고 쉽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 한반도 불안의 역사적 요인

우리의 조국인 한반도가 오랜 세월동안 평화롭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로 지속된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지정학적인 특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는대로 우리 한반도는 대륙에 달린 반도국가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세력 다툼의 장(場)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나라의 문호를 외국에 개방한 개항(1876년) 이후 더욱 심해졌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문호를 개방한 목적은 본래 근대적인 자주독립된 국민국가(Nation State)를 건설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 또한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이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 스스로의 자의에 의한 개항이 아니라 타율적(他律的), 곧 일본의 강압적 요구에 의해 획책되었다는 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준비된 자율적 개항이 아니라 미처 개항할만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타율적으로 개항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결혼할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던 처녀가 강제결혼을 강요당한 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처녀의 이후 결혼생활이 행복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개항 이후 전개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굴절되고 왜곡된 비극적인 역사가 진행되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시말해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 이후 큰 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있듯 매사에 첫 단추를 바르게 잘 끼우는 일은 이렇듯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이렇듯 개항이후 계속되었던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전화, 예컨대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1950-53)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특성과 타율적 개항이라는 역사성과 관련이 깊다 하겠습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륙열강과 해양열강 간에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열강들 사이의 힘겨루기 전쟁이 한반도에서 누차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1년 전의 일입니다. 2010년 3월 26일 서해안 백령도 해안에서 우리의 구축함인 천안함이 북한 측의 어뢰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46명의 꽃다운 젊은 용사들이 총 한발도 쏘아보지 못하고 아까운 생명을 잃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발생지인 백령도 해안은 남북간의 해양 국경선인 NNL 선이 그어진 매우 예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자주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북한쪽에 의해 획책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아직도 이 사건의 실체가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UN에까지 이 사건이 상정되었지만 국제적으로 미묘한 역학관계로 아직도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노와 불안은 이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해 11월 23일 더 놀라운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북한쪽에서 서해안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지난 60여년 동안 크고 작은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지만 이렇듯 공개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가한 전쟁행위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연평도 폭격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과 분노와 그리고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외국에서도 ‘코리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더욱이 해외에 거주하는 여러분과 같은 재외 동포들에게 준 충격과 걱정은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특히 미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당신은 북쪽 사람이냐 남쪽사람이냐’는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는가 하면 왜 ‘코리아’는 잊을만하면 전쟁놀이를 하느냐며 호전적인 민족, 형제간에 전쟁을 불사하는 미숙한 민족으로 비치는 것 같아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작금의 한반도 불안상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 통일된 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남북으로 분단되었다는 민족적 비극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 역사학자들은 분단시대(分斷時代)라고 지칭합니다. 따라서 우리민족의 분단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남북간의 대치와 충돌과 긴장 그리고 전쟁은 언제고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점이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는 가장 심각한 민족적 문제라 하겠습니다.

§ 3.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과 한계

결국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는 평화와 행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망했던 시절에는 빼앗긴 국권을 되찾아 독립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 우리민족의 최대과업이었고 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오늘에 있어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우리 후손들이 오래도록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리고 국격(國格)이 좀 더 높아져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남북간에 화해와 소통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을 조성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방이후 남북 간에 6·25전쟁을 할 만큼 대치국면을 지속해오다 40여년의 세월인 흐른 1990년대 접어들어 동구권의 붕괴와 더불어 2차대전 이후 지속되어 왔던 미소 양극체제에 변화가 오면서 비로소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모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교환되고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으며 남북간의 교류협력확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로까지 발전을 보았습니다. 그 후 우여곡절을 거쳐 1997년 들어선 김대중 정부에 의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 발표되는 역사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고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급물살을 타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노무현정부에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지난 10년여간 남북간에 큰 충돌없이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3년간 남북관계는 다시 대립과 긴장관계로 회귀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데도 여러 이유와 요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주요한 요인은 북한이 국제여론에 반하여 핵실험을 강행한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엠비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비핵·개방·3000’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핵실험과 핵무장을 포기하고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한다면 10년 안에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불까지 끌어 올리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아는데로 북쪽은 이를 거부하고 수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함으로 작금 남북관계가 전보다 훨씬 후퇴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잘아시는대로 지난 10여년 동안 남쪽은 북쪽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 당국은 물론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돕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듯 ‘북한은 변한 것이 없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큰 소리만 친다’, ‘북한을 돕는다는 것은 김정일 독재정권만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다’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고 새 정부 또한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자연 지난 10여년간 펼쳐온 대북 유화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지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여 남북관계는 국가대 국가의 관계이고 따라서 국가와 국가 간에는 ‘GIVE AND TAKE’ 관계입니다. 따라서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식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그동안 도움을 주어온 남쪽을 서운하게하고 북쪽에 대한 신뢰, 곧 북쪽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신과 반목이 향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 갈 것인가. 그렇다면 그 길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의 소박한 생각으로는 남북 양측이 남북문제를 좀 더 큰 눈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양쪽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남북문제는 특정한 정권차원의 안목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민족사적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민족사적인 과제인 통일문제를 한시적인 권력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문제로 본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방법은 남북 양쪽 모두가 정권차원이 아닌 우리민족이 향후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조국건설을 위해 필연코 풀어나가야만 한다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이라는 ‘큰 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왕의 편협된 이념과 시각을 뛰어넘어 통 큰 접근이 양측에 모두 요구되는 것입니다.

돌아켜보면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으나 유감스럽게도 남북이 분단되었고 이후 남쪽이나 북

쪽은 미·소 양대 세력권 한쪽에 경도되었고 결국은 6·25라는 동족상쟁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6·25전쟁으로 남북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골이 파여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 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간에 다양다기한 방법안과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귀해 의은 것으로 ‘연합제’와 ‘연방제’ 통일방안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것 같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별하기도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용어놀이’ 보다는 현실적으로 남북통일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남북한 상호 평화공존(平和共存)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너무도 순진하고 단순한 주장일지 모르나 남북 7천만 ‘백성’들이 소망하는 바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4, 한반도 평화해법으로서의 〈동양평화론〉과 유럽공동체

그 러나 아시는 대로 남북문제는 ‘우리민족끼리’ 다시말해 ‘민족공조’(民族共助)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는 점입니다. 국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한반도 상황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열강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이른바 ‘국제공조’(國際共助)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북문제를 놓고 6자회담이니 4자회담이니 하는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 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작금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작 금 이집트, 예멘, 리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세차게 불고 있어 민주화 바람과 석유파동이 어디까지 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3·11 일본 동북지역을 휩쓴 쓰나미와 지진으로 인한 원전 폭발과 방사능 유출 등으로 세계가 공포에 빠지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르면 내년, 2012년에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다는 설도 있어 참으로 전 인류가 공포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 여러분은 10년 전 뉴욕에서 있었던 9.11참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5000여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은 전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에 빠트렸던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지요. 이 사건이후 터진 이라크전쟁 또한 우리 인류가 바라는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최근 ‘블랙스완’(black swan)이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백조(白鳥, swan)는 말 그대로 흰색의 백조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예기치 못했던 ‘흑조’가 나타났듯이 인류가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최근 인류사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9.11사태’, 일본의 쓰나미사건, 우리나라의 연평도 사건 등 전혀 예측불가능한 일들이 갑자기 불거져 인류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재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비유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참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매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 국가, 한 민족단위의 안정과 번영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절대 절명의 ‘블랙스완’을 극복하는 글로벌(global)한 지혜가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그 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 이러한 위기의 때를 직시하며 역사학자인 저는 101년 전 안중근(安重根)의사가 제시한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을 여러분과 함께 되새김질 해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하여 한국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의사(義士)였습니다. 이 일로 안의사는 곧 체포되어 뤼순(旅順) 감옥에 구금되었다가 그 이듬해 3월 26일 31세의 젊은 나이에 순국하였습니다. 5개월 남짓한 옥중 생활 중 그는 자신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안응질역사〉를 집필하고 이어 그가 주창한 〈동양평화론〉 집필을 미처 끝내지 못하고 순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1910년 2월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장 히라이시 유지히토(平石氏人)와의 3시간에 걸친 특별면담에서 그가 구상했던 〈동양평화론〉의 일단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중국 뤼순 항을 개방하여 일본, 청국, 한국 3국이 공동관리 할 것과 둘째 뤼순항에 3국의 대표를 파견하여 세계평화회의를 조직하고 셋째 3국이 출자한 자금으로 3국 공동은행과 3국공용 공동화폐를 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유럽에서 실현한 유럽공동체(EU)와 같은 아시아 ‘경제군사공동체’를 안중근은 100년 전에 구상했던 것이다. 또한 3국의 청년들로 구성된 공동군단, 곧 3국연합군대를 편성할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2개 이상의 어학을 배우게 하여 상호 우방 또는 형제관념을 갖자는 당시로서는 누구도 감히 제기하기 어려운 탁월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상과 같은 동양평화론을 실현하고 이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로마교황으로부터 일·청·한 3국의 독립보장을 받을 것을 또한 제안하였습니다.

작 금 동양 3국의 역학관계에 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놀라운 부상과 이에 따른 위축감을 느끼고

있는 일본, 특히 ‘쓰나미 재앙’ 이후 원자로 폭발 위기 등 중추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중·일 양국 틈바구니에 위치한 한국, 여기에 최근 북한의 핵문제 돌출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 긴장과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왔던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질서에 일대 큰 변화의 조짐이 예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과연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 3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한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복잡다기한 세계사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가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100년전 안중근의사가 제기한 <동양평화론>과 현재 유럽공동체에서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의 일단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당시대 팽배해가던 제국주의 침략의 대응책으로 민족주의와 지역주의를 결합하여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점은 현재 유럽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 발전되고 있는 유럽공동체(EU)의 원리와 구조면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경제규모, 정치사회제도, 언어 등이 각기 다른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결성하여 현재 동서유럽 27개국을 포괄한 ‘하나의 유럽’ 곧 ‘유럽연합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구 5억에 이르는 거대한 ‘연합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세계총생산의 명목가치로 보면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하는 거대한 세계경제단위로 부상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 동양권에 가능하겠는가라는 회의가 앞서지만 긴 호흡과 큰 눈으로 바라볼 때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중엽 아무도 유럽통합의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던 시절 유럽의 대표적 문호(文豪)인 빅토르 유고(Victor Hugo)는 “어느 날 우리대륙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하나의 유럽이라는 형제애를 이룰 그날이 올 것이다. (중략) 어느 날 우리는 미합중국과 유럽합중국이 얼굴을 맞이하고 해양을 건너 서로에게 다가설 그 날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동북아 정세와 모든 민족과 국가들이 글로벌한 세계화를 지향하면서도 반면 과거 어느 시대보다 강고해지는 신민족주의와 패권주의 국가들의 출현이 예견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전망과 바람은 무망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류역사에서 무력을 동원한 강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진정한 통일을 이룬 역사는 없습니다. 나폴레옹의 유럽통일의 꿈도, 히틀러의 제국건설도,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획책도 모두 실패했으며 결과적으로 인류평화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안중근이 제기한 <동양평화론>은 일본이 내세운 ‘아시아연대론’이나 ‘동아신질서론’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지닌 동양평화론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 개념이 날로 희석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충국애국’이라는 말이 너무도 진부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은 우리에게 최고가치 중의 하나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든 이후 글로벌한 세계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지만 자기정체성(Self Identity)을 상실한 세계화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세계화(Globalization)는 지역화(Localization)를 전제한 세계화여야 합니다. 예컨대 세계를 하나의 꽃밭에 비유할 때 한 색깔의 꽃만으로 장식할 때의 아름다움보다는 여러 모양과 여러 색깔과 여러 향기를 내뿜는 다양다기한 모양과 색깔과 향기의 꽃들로 꾸며졌을 때 그 정원의 아름다움이 더해지듯 하나의 색깔로 세계를 칠하려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세계화가 아닌 것입니다. 요컨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는 남북간의 ‘민족공조’(民族共助)와 동시에 ‘국제공조’(國際共助)를 이루어 급물살을 타고 격변하고 있는 문명사적인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또 다른 ‘한류’(韓流) 곧 ‘꽃밭’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에 해외동포 교육자 여러분들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3.1 독립운동이 조명하는 한국인 정체성

김치경
교육학 박사,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교장,
매인 주립대학교 교육방법론 교수



〈미국땅에 휘날리는 태극기〉

“**미**국의 저명한 역사 철학자, George Santayana가
“Those who cannot learn from history are doomed
to repeat it.”라고 했듯이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옛 쓰
라린 비극을 되풀이 하게 마련이다. 한국학교 역할은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를 가르치되 올바르
고 재미있게 가르치자.”



§ 1. 3.1 독립운동

3.1절은 1910년에 일본에 강제점령 당한지 9년 후인 1919년 3월1일 일본식민지 지배하의 한국에서 일어난 거족적인 민족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운동 이후 전국을 휩쓴 시위운동 상황을 보면 집회회수 1,542회, 참가인원수 202만 3,089명, 사망자수 7,509명, 부상자 1만 5,961명, 검거자 5만 2,770명, 불탄 교회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가 715채나 되었다. (일본측발표).

이 역사적인 독립운동은 일제의 잔인한 탄압으로 비록 많은 희생자를 낸 채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대내외적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선명히 드러낸 바가 되어, 우리 근대민족주의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사진은 그때 당시의 서울에서의 만세 행진과 일본 경찰이 살해한 여학생 시체를 길가에 버린 것을 보여준다. 적십자사 제공).

§ 2. 3.1절 기념행사

매년 3.1절 행사가 미국에서도 열리지만 한국에서처럼 젊은 학생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독립기념관을 찾아가거나 행진을 하면서 3.1절 당시의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한국에서도 40%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도 3.1절 운동의 뜻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 하물며 미국에서 사는 한국학생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우리의 3.1절 행사에는 한인회 임원, 사업인, 노인회 회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고작이지 학생들이 참석하는 것은 아주 드문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남부 뉴저지(회장 이주향)에서는 2010 처음으로 한국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뜻있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동영상과 Multimedia등을 사용하여 이중언어로 3.1절 배경을 설명할 때 놀란 것은 학교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던 우리 아동들이 너무나 조용했던 것이다. 태극기를 들고 모두가 만세를 부를 때 필자는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금년(2011)에는 남부 뉴저지통합한국학교 학생들이 유관순 연극을 한국어로 연출하여 많은 한국학교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첨부 사진).



간접경험을 통하여 배우는 한국사와 한국인이라는 느낌과 긍지를 가질 수 있었다.

§ 3. 3.1독립운동의 희생자들

수 많은 독립 운동가들 중에서 필자는 최소한 두 순국선열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 한 분이 만해(萬海)한용운(1879 ~ 1944)님이다. 불교 혁명가로 독립선언서를 공저한 33인중의 한 분이시다. 우리의 애송시, 그의 “님의 침묵”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중략)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한용운)

이 “님”을 그의 “조국”이라고 해석해보면 그가 얼마나 애처롭게 조국을 그리워했는지 쉬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조 선의 땅덩어리가 하나의 감옥인데 어떻게 불 땀 방에서 편히 살겠느냐며 만해는 냉골의 거처에서 꼳꼳하게 앉아 지냈다. 해서 ‘저울추’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돌집(조선총독부)이 마주 보이는 쪽으로 당신의 집을 지을 수 없다며 심우장을 북향으로 지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만해는 깨달음을 얻은 후 오도송에서 “사나이 이르는 곳 어디나 고향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의 수심에 잠겼던가. 한마디 소리쳐 우주를 설파하니 눈 속의 복숭아꽃 붉게 붉게 나부낀다”라고 읊었다. ‘눈 속에 핀 복숭아 꽃송이’가 바로 만해의 시요, 만해의 정신이었다 할 것이다. (정끝별·문태준).

그 령게 그리워하던 조국이 1945년에 찾아오기 1년 전 그는 혹독한 가난으로 세상을 떠난다. 얼마나 애석한가!



다 음의 순국열사로는 너무나 유명한 유관순 순국 열사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 1902년에 태어나 1920년에 18세의 젊

은 나이로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다가 순국하셨다. “유관순 누나”로 알려진 이 이화여고 학생의 죽음은 일본이 한국인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4. 역사교육의 탐구과제

3.1 독립선언서를 보면 아래의 공약 3장(번역 문)을 찾아볼 수 있다.

- 一.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 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 一.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이것을 요약하면,

- 자유와 정의로운 사회
- 독립의 영광
- 인도주의, 비폭력 주의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민족의 정체성이 아닌가?

이전에 한국에서 이씨 조선왕조의 이름을 전부 외우던 식의 역사 학습은 전혀 의미 가없고 역사의식을 심어 주지 못한다. 미국의 현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학습방법은 핵심주제를 선정해서 탐구하는(Central Theme for Inquiry)것이다. 탐구 주제를 “3.1 독립 운동 정신”으로 선정했을 때 핵심 문제 (Essential Questions)의 예를 든다면,

- 3.1운동의 역사는 왜 중요한가?
 - 우리 조상들의 수난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하고 있는가?
 - 한국인의 정신을 3.1 운동에서 찾을 수가 있는가?
 - 한국인의 정신이 자유와 정의로운 사회, 독립 투쟁, 인도주의, 비폭력주의라면 그것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 한국 민족은 어떻게, 왜, 뛰어난가?
 - 역사 교육은 왜 중요한가?
 - 3.1 독립 운동 당시 외국(일본, 중국, 미국 독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 나고 있었는가?
 - 한국인의 정체성은 역사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음악, 미술, 문학, 풍속 속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 등 여러 탐구 핵심 문제들 중에서 선택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 5. 탐구 학습 활동

이와 같은 탐구 문제를 가능하면 학생들과 공동으로 만들어 낸 다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다채로운 학습활동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개인 학습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탐구 문제를 선택하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 연구 논문 (Team work도 허락)
- 감상문, 수필과 시 (개인 학습 활동)
- 영상 (Power Point같은 computer를 사용, Team work도 허락)
- 포트폴리오 (Portfolio, 각종 사진 영상, 논설, 음악, video 등 종합 자료, team work 허락)
- 연극이나 동영상 (team work 허락)

이 같은 탐구 학습활동은 “Inquiry Method”에서 쓰이는 방법인데 소련의 Lev Vygotsky가 1962에 발표한 개념 건설 이론 (construction theory)에 기반을 둔 것으로, 학생들 자신이 사실을 찾아내어 자기 자신의 새로운 개념을 건설 할 때 진정한 배움을 효과적으로 이룩할 수 있다는 강력한 현대교육방법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탐구결과는 자신들이 건설한 이론을 자랑스럽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여 성적을 주는 것은 위와 같은 탐구 활동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탐구 활동 작품과 발표가 얼마나 역사가다운 활동인데, 학생들의 탐구활동 자체를 평가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역사가들처럼 역사적인 사실을 분석하는 능력을 역사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내년 이후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계열에 상관없이 한국사를 꼭 배워야 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처음 도입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사가 선택과목이 된 지 1년 만에 필수로 되돌아간다.

“내용은 쉽고 재미있게 바뀐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역사 인물과 일화 중심으로, 중학교는 정치사건 위주로, 고등학교는 시대별 사회구조를 파악하는 식으로 만들 계획이다. 지금까지 초중고교 역사 교과서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를 망라하면서 학습량이 너무 많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긍정적인 내용이 보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체험·탐구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1-04-23)

한국사가 필수로 바뀌는 것은 참으로 옳은 교육 정책이다. 역사 교육 내용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민족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용은 쉽고 재미있게 하면서 체험·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은 중요한 역사 교육 방법이라고 본다.

§ 6. 결론

3.1운동을 한 탐구주제로 생각했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역사 연구 주제들이 있다. 다만 3.1운동은 대 민족 독립항쟁이요 하나의 중요한 역사 탐구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한국 정신, 한국인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진정한 한국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본 3.1독립운동의 정신을 한국사 교과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 그리고 역사교육 방법은 탐구 방법 같은 학생중심의 뜻있는 교수법과 학습법을 써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 철학자, George Santayana가 “Those who cannot learn from history are doomed to repeat it.”라고 했듯이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옛 쓰라린 비극을 되풀이 하게 마련이다. 한국학교 역할은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를 가르치되 올바르게 재미있게 가르치자.

재외동포를 위한 올바른 역사 수업의 이해

남상업

Communications 교수

Elon University

2010 National Teaching Scholar



〈국보 306호, 삼국유사(三國遺事)
을해(乙亥)석주(昔珠)〉

“미래는 과거를 아는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2세들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보다 넓은 시야를 주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역사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역사 교육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 1. 서론

“

History by apprising them of the past will enable them to judge of the future; it will avail them of the experience of other times and other nations; it will qualify them as judges of the actions and designs of men; it will enable them to know ambition under every disguise it may assume; and knowing it, to defeat its views.”

Thomas Jefferson,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Query 14, 1781

1.1. 역사는 왜 배워야 할까요?

어느 나라나 정규 교육 과정을 보면,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역사 교육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언어와 함께 항상 배우게 되는 것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항상 칭송하는 유대인의 저력은 그들만의 독특한 가정교육인 “셰마(Shema)”교육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셰마교육의 중요한 뿌리는 유대인들이 겪은 고난의 역사에 관한 교육입니다. 그 것이 바로, 이 땅의 많은 유대계 미국인들이 자신들은 비록 미국땅에서 미국의 언어를 사용하며 미국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고 “유대계”로 살아가는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입니다. 유대인의 경우,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은 지금은 거의 사양된 그들만의 언어인 이디쉬(Yidish)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와 역사인 것 입니다.

미국의 국부(國父)중 한 명으로 지금껏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토머스 제퍼슨은 “역사는 과거를 갈망함으로 우리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굳이 제퍼슨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과거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여러가지 모습을 통해 현재 우리의 위치를 조명하고 이로 인해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모습을 제시해 주므로, 보다 나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 더욱 많이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의 역사는 과거 우리 민족이 겪었던 영욕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극한의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역사는 민족을 하나로 묶어 주는 정체성의 닻(anchor)이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compass)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2세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쉬운 질문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고민 해야할 문제 입니다.

특히나, 현재 주말학교로서 커리큘럼 구성에 시간적 제한이 많은 한국/한글학교들로서 역사 시간을 따로 배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역사 교육 없이는 우리 2세들을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Korean-American)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역사 교육이 쉽지 않을지라도, 이를 꼭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 2. 본론

“

문화는 역사의 덩어리요, 역사는 문화의 근원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문화는 역사의 열매요, 역사는 문화의 뿌리다. 역사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에 역사가 있는 것이다.”

김성식, <문화인의 역사인식>

2.1.1. 결국 문화 교육이 역사 교육입니다!

미국내 많은 한국/한글학교의 주 교과 과정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학교에서 2세들에게 항상 가르치려 하는 것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입니다. 물론, 이 두가지뿐만 아니라, 특별 활동을 통해 다른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가히 한국/한글학교는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 체계가 없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교육의 올바른 연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역사 교육이 주가 되어야하는 것은 결국 역사가 문화이고, 문화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던, 그 안에는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 문화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한국 역사를 가르치지 않거나,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참다운 한국 문화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역사 수업을 위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들을 육하원칙(六何原則)과 다른 중요한 소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생애의 하루하루가 네 역사의 한 장 한 장이다.”

주수원, 여류시인

2.1.2. 역사, 누가 가르쳐야하는가?

역사는 우리 모두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 역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역사 전공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 것은 잘못 된 생각입니다. 역사의 주체는 “우리”이고, 우리 모두가 역사를 가르 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한글학교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그리고 커뮤니티가 연계하여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를 우리 2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한글학교 교사들의 노력만으로는 올바른 역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사, 부모, 그리고 커뮤니티가 모두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합심하여 역사 교육을 진행할 때, 우리 2세들이 올바른 역사관위에 바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장래 운명은 어머니가 결정 지운다.”

나폴레옹

2.1.3. 역사, 누구에게 가르쳐야하는가?

역사는 한국/한글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들부터 성인 학생에 이르기까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이 모두에게 역사 교육은 언어 및 문화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이 어리면 어린대로, 크면 큰대로, 그 수준에 맞는 교과 과정을 개발하여 꾸준히 공백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2세들에게 한국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부터 역사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다.”

메이벨 뉴컴버

2.1.4. 역사, 얼마나 가르쳐야하는가?

주어진 시간과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양의 역사를 가르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18주를 한 학기로 생각하고, 하루 3시간씩 수업을 한다고 하면,

$$18\text{주} \times \text{주당 } 3\text{시간} = 54\text{시간}$$

이 54시간 중에 각종 행사나 특별 활동을 제외하고 나면, 한국어 수업에 집중하기도 힘이 듭니다. 이런 경우, 한국 역사에만 할당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 역사를 얼마나 가르쳐야할 지 생각해봐야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동안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학기동안 혹은 한 학년동안 얼마만큼의 역사를 가르쳐야할 지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사로서 더욱 많이, 더욱 자세히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중용(中庸)의 자세로 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나온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국/영문 혼용으로 고조선부터 시작해 한국의 근대사까지 한국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과서가 미주내 한국/한글학교에서 쓰여지기 어려운 것은 너무 많은 양의 정보가 직렬식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족사도 3대 이상 올라가면 알기 힘든 세대에 사는 우리 2세들에게 이런 직렬식 정보를 가지고 하는 수업은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결국, 효과적인 역사 교육은 절제된 교육양(量)을 가지고 언어 능력과 발 맞추어 이루어질 때 빛을 발하는 것 입니다.

“
아는만큼 보인다.”

작자미상,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차용

2.1.5. 역사, 무엇을 가르쳐야하는가?

우리 2세에게 한국 역사를 소개할 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는 교사 개개인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협의회, 혹은 전국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일선에서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들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한국/한글학교에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교과 과정을 만들어야 할 때 입니다.

전국 협의회 차원은 아니지만, 현재 북가주지역협의회에서 한국역사문화 교재 출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아라>를 출판했습니다. <한국을 찾아라> 교재를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안(Syllabus)과 함께 개발된 교재라 사용하기가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교재를 거론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했기 때문에 이 교재를 통해서 일선 교사들이 고민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해진 교재가 없다면, 학교내에서 교사들끼리 의논을 해야 합니다. 역사 교육이 학년마다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사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무엇을 가르칠 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교사들간의 의논이 힘들다면, 개인적으로 잘 아는 것을 중심으로 교과 과정을 짜야 합니다. 제일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쓰고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 과정과 역사를 연계하여 가르치는 것 입니다. 매 단위 마다 연관 학습법을 사용하면 역사와 관련 된 많은 가르칠 꺼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원의 주제가 역사와 관련 된 경우라면 단원의 공부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역사 공부로 연결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교육진흥원이 발행한 <한국어 7>의 “제 8과 비가 올 확률이 높대요”의 경우 현대의 날씨 예보에 관련 된 이야기가 나온 후, “쉬어가기”란을 통해 조선 시대의 해시계, 물시계에 관한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각 단원의 크고 작은 주제들이 과거 우리 선조의 지혜로움과 연결 되기에 매 단위 공부 후 우리의 역사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제 9과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의 경우, 옛 선조들의 놀이, 공연 문화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한국의 영화 <왕의 남자> 같은 영화를 통해 한국의 복식 문화등을 소개하고, 일본의 가부키(歌舞伎, かぶき)나 유럽의 회극/연극 문화와 비교 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단원의 주제가 역사와 관련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역사와 연결시킬 방법은 많습니다. “제 14과 인터넷에서 찾아왔어요”의 경우 단위 지문에 소개된 것과 같이 인터넷에서 김치 박물관을 찾아 한국의 식문화와 역사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 고추가 조선에 전해지게 되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고춧가루가 듬뿍 든 매운 김치가 되었다는 김치의 역사를 인터넷이 소개된 단원을 통해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단, 한국/한글학교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준비할 경우, 더욱 많은 발품을 팔아야하고 준비된 자료가 정확한지 몇 번 씩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사(正史)와 야사(野史), 혹은 패사(稗史) 사이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진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E.H. Carr

2.1.6. 역사, 언제 가르쳐야하는가?

역사는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매 주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한국/한글학교에서 시간관계상 한달에 한 번, 혹은 명절때에 맞춰 역사 교육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것 보다는, 짧더라도 매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한글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 2세들이 한국과 관계를 가지고 한국계 미국인(Korean-American)으로서 자라기를 바란다면, 짧은 일화를 통한 역사 교육이라 할지라도, 매주 꾸준히 하여 우리 2세들이 한국의 역사를 통해 한국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우리의 교육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육이 졸업식날 교실의 문에서 끝이 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 입니다.”

헨리 B. 이링

2.1.7. 역사, 어디서 가르쳐야하는가?

한국/한글학교가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는 주요 공간이 되겠지만, 정규학교나 집에서도 한국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과 연계하여 역사 교육을 해야합니다.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인기 사극을 통하여 정사(正史)는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 학생들이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사극을 보며 한국의 역사에 관한 학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인기 드라마였던 주지훈, 윤은혜 주연의 <궁(宮)>은 대한민국이 1945년에 임헌군주제를 채택하여 현재 황제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시작합니다. 열도당토하지 않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한국 근대사와 여러가지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2.1. 역사 교육의 실재

그렇다면, 이 중요한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방법론이나 교수법에 관한 이론적인 이야기는 탁상공론이 될 수 있으니, 역사 교육의 실재에 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장 풍부한 재산으로 여기지 않는 자는 누구나, 비록 이 세상의 주인이라도 불행하다.”

에피쿠로스

2.2.2. 치우천왕과 환단고기, 정사와 야사, 사실과 흥미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2002년 월드컵 당시, 가장 충격적인 일은 한국의 4강 진출이 아닌, 붉은 악마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열광적인 응원 문화도 대단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치우천왕의 로고였습니다.



<붉은 악마로 인해 널리 알려지게 된 치우천왕, 통일 신라 시대의 귀면와와도 닮았다.>

붉은 악마라 하여, 한국 전통의 도깨비 형상이러니 생각을 했는데, 치우라는 동이족 신화속의 영웅의 형상이라는 이

야기를 듣고, 한국에서 치우천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물론, 붉은 악마가 주장하는 치우천왕의 로고가 통일신라시대의 기와의 일종인 귀면와와 더욱 닮았고, 또, 치우천왕의 고사가 환단고기(桓檀古記)라는 야사(野史)에 기술되어 그 진위논란이 아직까지 사학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로마신화는 한국인의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는 반면에, 한국 고유의 신화는 이렇게 사장되어 한국인의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반만년 역사위에 찬란한 대한민국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역사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은 2000년 남짓의 역사이기에 실망감과 자괴감이 컸던 것 입니다.

한 국/한글학교 역사 교육 문제에 치우천왕과 환단고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사와 야사, 그리고 사실과 흥미 사이에서, 역사 교육에 임하는 우리 교사들이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 래서, 한국의 사극을 이용한 역사 교육도 우리 학생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태왕사신기>, <주몽>, <선덕여왕>, <대장금>, <허준>, <태조 왕건>, <다모>, <용의 눈물>, <여인천하>, <상도>, <조선왕조 500년>, <추노>등 셀 수 없이 많은 사극들이 이미 한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극적 허구가 너무나 많이 가미되어 역사 자료로서는 가치가 없을 수 있으나, 학생들이 이런 사극을 통해 한국의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영상 자료들은 한국/한글학교 역사 교육에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좋은 교사의 시험이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재빨리 대답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학생들이 교사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얼마나 많이 물어보느냐에 달렸다.”

앨리스 웰링턴 롤린스

2.2.3. 학생들이 역사를 잘 배우고 있는건가요?

교 수법(pedagogy)에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가(assessment)입니다. 교사는 앞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학생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는 평가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노릇입니다.

하 지만 한국/한글학교에서 역사 교육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시험등의 여러가지 평가 방법이 존재 하지만, 역사 교육의 평가 방법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예, 본국의 <도전! 골든벨>등의 퀴즈 프로그램을 본 판 <한국 문화 역사 올림피아드>등의 퀴즈 게임 형식의 보상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역사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퀴즈 대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분발하여 역사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이 나오게 되는 것 입니다.

한 국/한글학교 역사 교육의 경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역사 교육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보다 깊이 알기 원하고, 우리 선조의 발자취를 알아가려는 자세가 보일 때, 우리는 비로서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잘 배우고 있다고 확신 할 것 입니다.

“ 가시나무를 심는 자는 장미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필페이

2.2.4. 역사 교육, 교사로서 우리의 할 일은?

교사 스스로가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 박물관등의 한국 관련 소장품(Korean Collection)을 둘러나가야 합니다. 이 것은 커뮤니티 차원의 모금 활동과 로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Metropolitan Museum of Art)을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관 (Korean Exhibit)”의 초라함입니다. 한국 기업의 브랜드가 미주 사회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지명도를 높여 가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 역사 문화는 미주 사회에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한국관〉

두 번째는 지역 대학에서 보다 많은 한국 역사 수업이 생겨야 합니다. 이 것 역시 커뮤니티 차원에서 대학생들에게 한국 역사에 관한 수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장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한글학교의 역사 수업은 시간과 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국/한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 성인이 되어서 보다 전문적으로 한국 역사에 관해 배울 수 있는 장(Channel)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1세대와 2세대의 보다 많은 교류의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행사에서 어르신들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학생들이 잘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행사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한다고 해도 통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세대와 2세대들을 보다 창조적인 방법으로 연결한다면 세월을 통해 쌓여진 1세대의 역사 의식이 2세대의 올바른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네 번째는 커뮤니티 차원의 조직적인 자료 수집과 현재를 조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연혁을 통해 그 조직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런 노력은 조직의 크기와 관계없이 조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조직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조명하고 현재를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 일을 주도해야 합니다. 한국의 이민사를 정리하는 노력이 이에 따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커뮤니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했을 때, 그 역사가 공신력을 가진 정사(正史)가 되고, 우리 후대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기록이 되는 것 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이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열정있는 개인이 모여 조직적으로 합심하여 일을 할 때, 더욱 큰 시너지(Synergy)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 3. 결론

“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좌우된다.”

헤밍웨이

3.1. 가치를 알아야 우리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애증을 가지고 바라보는 일본의 경우, 오랜 전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일본 나름대로의 장인 정신과 가업을 이어가는 노력으로 인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전통은 200년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1830년 명치유신(明治維新, めいじいしん)을 통해, 서양의 신문물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매년, 음력 새해가 되면, 미국내 많은 학교에서 동아시아권계 학생들이 모여서 설날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이 때, 일본은 항상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음력이란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의 대중 문화를 볼 때,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일은 앞서 가지만, 꾸준함이 없는 것을 볼 때, 역사관이 부족한 그들의 가치관은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최근에 한류 열풍과 김연아 신드롬으로 인해 미주 한인들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인들의 우수성이 많이 알려질 수록 우리 2세들이 미주 사회에서 자랑스러운 한국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것을 위해, 우리가 더욱 올바른 역사 교육에 매진해야 할 때 입니다.

우리의 선조의 발자취를 돌아 보면, 영욕의 시간이 함께 합니다. 영광의 순간들을 통해 우리 2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고난의 순간들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미래는 과거를 아는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2세들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보다 넓은 시야를 주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역사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역사 교육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글자의 지은 뜻과 사용법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제 70호), 우리의 역사는 배우면 배울수록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산이 됩니다.〉

“

역사란 단순히 자기 자신과 자연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재에 부패를 주고 인류의 지도자들에게 겸손을 주게 되는 지식입니다.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과거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대한 목표도, 우리를 붕괴시키려는 외세에 대한 방패도 없이 표류하게 됩니다.”

L.B. 존슨

“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의사만 있으면 우린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얼 워렌

“

역사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 속에는 무한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의 눈과 용기의 입을 가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나 말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음성이 역사를 지켜 온 것이다.”

김형석, 〈오늘을 사는 지혜〉

참고 자료 1. 2009년 개정된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Framework에 포함된 한국 관련 내용

〈최미영 NAKS 부회장/북가주 역사문화위원회 위원장 정리〉

* 2학년 - 권장도서: 박소영의 “Dear Juno”

* 4학년 - 19세기 후반에 철도, 농업, 공업의 발전과 함께 해외 노동자들이 가주에 유입되었고 농업 인력으로 한인 이민사 시작

* 7학년 -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사: 한국과 중국의 불교가 일본에 전파, 한국 농경문화 일본에 전파, 한국인 정치분쟁을 피해서 일본으로 이주, 일본 지식층의 한국에서 유교 및 불교 문화 수입, 일본 귀족층들이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일본 고유문명 시작, 일본이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사치품 수입, 한국이 유럽보다 일찍 금속활자 발명

* 8학년 - 한인들 하와이로의 이민 시작

* 10학년 - 80년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

* 11학년 - 한국 전쟁에 관한 추천 도서

* 12학년 - 민주주의와 독재 정치 및 공산주의(북한) 비교,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운동

참고 자료 2. 한인 이민 역사

〈제 17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동남부교수연수회〉 전체강의 중 “한인 이민역사”에 관한 자료로서, 각 학교에서 고등반 학생들의 한 학기 분량으로 다루어 질 내용들을 압축한 것입니다.

Korean Immigration History:

A Course to Teach Korean Immigration History for Korean School Student

Part I - 간략한 한국의 역사

1. “Korea”의 유래
2. 삼국시대, 통일신라
3. 고려, 조선
4. 일제 강점기, 해방, 6.25 전쟁

Part II - A Brief History of Korean Diaspora

1. 중국
2. 러시아
3. 멕시코: Aenikkaengs (애니깽)
4. 미국

Part III - Korean-American Journey

1. 하와이 역사
 - 최초의 만남: Captain Cook 1778
 - 중국인 도착: 1852
 - 일본인 도착: 1868
 - 하와이의 미국 본토 편입: July 7, 1898
 - 하와이의 미국 제 50번째 주 지정: 1959
2. 사탕수수농장 (Sugar Plantation)
 - 하와이인들이 노동자로 일하던 사탕수수농장의 인력은 1852년 293명의 중국 노동자들을 수입한 이후, 중국 노동자들이 사탕수수농장의 주요 인력이 되어 1885년까지 약 5만명의 중국인들이 하와이로 이주하게 되었다.
 - 일본인들도 사탕수수밭의 노동자로 1885년 하와이에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후, 1890년에는 중국인들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 태평양 지역이나, 스웨덴, 독일, 포르투갈 등지에서도 노동자가 수입이 되었으나 비용문제로 중단된 기록이 남아 있다.
3. 한국인 이민의 시작
 - 중국인의 이민이 1882년 “반 중국인 이민법 (Chinese Exclusion Act)”에 의해 중단된 이후 일본인들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일본인노동자들의 노동쟁의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농장주들은 보다 값싸고 순종적인 노동력을 찾게 되었다.

Part IV - Korean-American Immigration to Hawaii

1. 배경
 - 사탕수수농장주들의 태도 변화
 - 반중국인 이민법
2. 주요인물
 - 알렌 목사/공사 (Horace Allen)
 - 데이빗 데슬러 (David Deshler)
 - 민영환 (유민원 = Department of Emmigration)
3. 첫 번째 이민
 - 1902년 12월 22일 - 일본 배 켄카이마루를 타고 121명이 제물포를 출발, 일본 낙사키에 12월 24일 도착
 - 신체검사 후 미국으로 출발: 날짜는 모름
4. 1903년 1월 13일
 - 102명의 선조 (남자 56명, 부인 21명, 어린이 13명, 갓난아기 12명)
 - 한인이민 원년
 - 입국검사 후 86명만 입국이 허용 (남자 48명, 부인 16명, 어린이 & 갓난아기 22명)
5. 어떤 분들이었나?
 - 1905까지 총 7,226명 (남자 6,048, 여자 637, 어린이 541)
 - 대부분 기독교인, 젊은 남자, 다양한 계층
 - 기독교인이 많았던 이유: 인천의 용동교회 (현 내리감리교회) 신자,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
6. 사진신부 (Picture Bride)
 - 사진신부 1호: Sarah Choi - 1910년 11월 28일 하와이 도착
 - 1924년까지 계속: 약 1,000명
 - "I no like, No look like picture, but no can go home"
 - 하와이 한인 사회의 뿌리가 됨
7. 하와이 이민 사회
 - 1910년 한일 합방으로 국적 상실
 - 목표설정: 조국독립 "Study hard is your duty"
 - 많은 단체들이 생김.
 - 독립운동의 전초지: 임시정부 지원
 - 1924년 반이민법제정이후로 1965년까지 합법적 이민이 불가
 - 일본이민자들의 뒤를 따라 본토로 이주함
 - 와이오밍, 유타, 콜로라도 주에서 광부로 일한 기록이 발견 됨
8. 세계 제 2차 대전
 - 하와이 이민 1세들은 적성외국인으로 분류됨
 - 하와이 이민 2세들의 참전
 - 1942년 캘리포니아에선 주 방위군소속 한민국방경비대(맹호군)을 창설

Part V - New Wave in Korean American Immigration

1. 한국전쟁이후
 - 1952년 새이민법통과로 시민권 취득과 부동산매매가 허락되면서 한인 사회는 더욱 발전, 한국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게 됨

2. 1965년 이후
 - 1965년 국가별/인종별 할당제를 폐지하는 이민법이 발효되면서, 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의 길이 열림으로 한 해 약 2만명씩 이민을 갈 수 있게되어 미국이민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됨
3. 4.29 사건
 - 1992년 4월 29일
 - 두순자사건 (1991년 3월 16일)
 - 흑백인종갈등이 사건의 본질임에도 주류언론들은 “한흑갈등”으로 왜곡보도
 - A wake-up call: Melting Pot Vs. Salad Bowl
4. 2006년 1월 13일
 - 미국 연방의회가 1903년 1월 13일 첫 발을 디딘 103년의 한인 이민역사를 기려 매년 1월 13일을 한인의 날 (Korean-American Day)로 제정

P_{art VI} - “Where Are We”

1. 한인인구: 1,226,825 (0.44%/4.21%)
2. 18세 미만: 24.3%, 18-64세: 69.6%, 65세 이상: 6.2%
3. 미혼: 30.5%, 기혼: 59.6%, 기타: 9.9%
4. 가정에서 미국말 안 씀: 18.1%
5. 가구 당 평균 소득: \$47,624 (일본: \$70,849, 중국: \$60,058)
6. 빈곤율(4인가족기준 소득 \$17,029이하): 14.8% (일본: 9.7%, 중국: 13.5%)
7. 집보유율: 40.1% (일본: 60.8%, 중국: 58.4%)



백범일지 교육안

제1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백범상 수상 교육안

by

정안젤라

2011년 5월 27일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 교육안 작성자의 취지를 살리고자, 편집없이 그대로 실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I. 기본 개념	ERROR! BOOKMARK NOT DEFINED.
II. 탐구 주제	3
III. 대상	4
IV. 기간	4
V. 교과 내용	4
1. 시대적 배경	4
동영상 시청	5
2. 백범 김구의 주요 활동 및 리더십	5
리더십	6
백범 김구의 주요 활동	7
백범 김구의 리더십	8
3. 나의 소원 주요 단어	9
4. 백범 김구의 생존 기간에 있었던 한국의 시대적 사건 및 세계의 주요 사건들	9
VI. 교수/학습 활동	11
VII. 학습평가 방법	12
VIII. 참고자료	13

IX. 학습자료	14
1. 리더의 자질	14
2. 백범 김구	15
3. 백범 김구의 주요 활동	16
4. 백범 김구의 리더십	17
5. 단어 익히기	18
6. 백범일지 - 나의 소원 中에서	19
7. 인물과 관련된 설명을 서로 연결하기	20
8. 백범 김구와 관련된 나라	21
9. 한, 중, 일의 주요 도시	21
10. 지도와 국기	22
11. 김구 챔피언 퀴즈 (O X 퀴즈)	23
I.	

1919년 9월 17일 제6차 임시의정원 폐원식 기념



사진

I. 기본 개념

Fundamental Concepts

미국에서 성장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적 인물들이 그다지 친숙하지 않다. 지난 삼일절 행사를 통해 이미 주권 피탈 이후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의 개괄적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독립 운동가 김구 선생의 주요활동과 그 의미를 이해하여 우리 나라의 역사에 대해 그 이해도를 높인다.

소단원들을 통하여 나라를 잃은 설움이 어떤 것인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백범 김구를 통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이해한다.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에 나오는 주요 단어와 그 뜻을 익히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글을 접한다. 이와 함께 백범 김구의 생존 기간에 있었던 한국의 시대사적 사건, 주요 세계사적 사건, 동시대 다른 나라의 인물, 한 중 일의 지리적 위치를 함께 파악해 본다.

이와 같은 탐구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민족 정신을 길러내고, 역사를 뒤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는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본 교안의 기본 개념이다. 백범 김구 선생 또한 후세대 자손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민족 정신을 계승하기를 바라셨으리라 믿는다.



II. 탐구 주제

Essential Questions, 학생들이 탐구할 의미 있는 핵심 개념에 관한 질문

1. 일제 강점기 동안의 나라 잃은 설움을 이해하는가?
2. 백범 김구의 주요 활동은 무엇이고 그의 리더십은 어떠한가?
3. '독립,' '소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말할 수 있는가?
4. 백범 김구의 생존 기간에 있었던 한국의 시대적 사건 및 주요 세계사적 사건들은 무엇이 있는가?
5. 같은 시대 다른 나라들에는 어떠한 인물들이 있었는가?

III. 대상

6학년 ~ 12학년.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교사가 조절하여 준비한다.

IV. 기간

한 학기 (16시간)

수업일자	탐구 학습 내용
1일	시대적 배경
2일	리더십
3일	백범 김구의 주요 활동 I
4일	백범 김구의 주요 활동 II
5일	백범 김구의 리더십
6일	백범 김구 포스터 프로젝트
7일	단어의 이해
8일	백범 김구의 생존 기간에 있었던 한국의 시대적 사건 I
9일	백범 김구의 생존 기간에 있었던 한국의 시대적 사건 II
10일	백범 김구의 생존 기간에 있었던 세계의 주요 사건 I
11일	백범 김구의 생존 기간에 있었던 세계의 주요 사건 II
12일	동 시대 다른 나라의 인물들 I
13일	동 시대 다른 나라의 인물들 II
14일	프로젝트 기획
15일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의 지리적 위치
16일	프로젝트 발표 및 백범 김구 챔피언 퀴즈

V. 교과 내용

Content,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 교수/학습 내용

1. 시대적 배경

- ♦ 목표: 우리나라의 국권 피탈 기간을 되돌아 보면서 백범 김구 시대의 배경과 나라 잃은 설움에 대해 이해한다.
- ♦ 진행: 학생들이 일본 강점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래의 질문들을 던져본다:

(질문)

- 한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한국을 지배했을까요?
Korea had been occupied by other country. Which country was it?
- 한국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을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How long was the occupation period? Since when to when?
-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What would be the feeling that I have limitation to do what I want to do?

동영상 시청

다음의 사이트(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에서 제작한 역사채널)에서 영어로 된 일제강점기(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에 대한 비디오 파일을 <http://www.youtube.com/watch?v=c7WJEN6vUlk> 시청하여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한다. 같은 내용의 한국어 자료는 <http://www.youtube.com/watch?v=A15TTheW1nM> 에 있으므로 교사는 두 언어 버전을 모두 미리 본 후 아이들이 혹시라도 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 미리 대비한다. 대상에 따라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앞 뒤 부분의 내용은 생략하고 4분26초(1910년)부터 9분 45초까지 방영하는 것이 좋다.

시청각 자료 감상 이후 어떤 느낌인지 다시 질문을 해 본다:

(질문)

-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What are those you are newly aware after you watch this video clip?
-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What would be your most memorable scene?

역사 왜곡, 창씨개명, 한국어 사용 금지, 일본군으로 징병됨, 위안부, 생체실험, 일본왕숭배, 문화재약탈, 문인과 예술인들의 탄압 등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슬픈 역사를 상기한다.

Let us remember Korea has gone through all the grief during the colonial period such as Korean history distortion, Korean name change to Japanese name, not allowed to use Korean language, drafted to Japanese army, comfort women, human medical experiment, serve Japanese king as god, stolen cultural properties, suppression of intellectuals and artists.

2. 백범 김구의 주요 활동 및 리더십

- 목표: 지도자로서의 덕목과 자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스스로 도출해 본다. 백범 김구의 주요 활동을 배운다. 백범 김구가 지도자로서 가졌던 덕목과 자질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찾아본다.

리더십

- 진행: 학생들은 또래집단에서 어느 학생이 리더로서 어울리는지 나름대로 판단한다. 백범 김구의 활동이 영향력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중요한 한가지가 바로 그의 리더십이다. 리더십에 필요한 성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급 내에서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파악한 것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흥미를 더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후 백범 김구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활동을 함께 찾는다.
- 학습자료 1를 한 장씩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우리 반에서 리더라고 생각되는 학생 두 명의 이름과 그 이유를 쓰게 하여 학생들이 보는 리더의 성격을 도출한다.

(질문)

- 우리 반에서 리더는 누구인가요?
Who are the leaders in our classroom?
-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What roles do they play?
- 왜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선택했나요?
Why were they selected as leaders?

정직 (honesty), 능숙 (competent), 진보 (forward-looking), 격려하는 (inspiring), 총명한 (intelligent), 공정한 (fair-minded), 마음이 넓은 (broad-minded), 용기 있는 (courageous), 곧은 (straight-forward), 창의적인 (imaginative)과 같은 단어들이 대표적 리더십의 자질¹이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경험에 의한 단어가 나올 수 있다.

학생들이 작성을 마치면 모두 모아 어느 학생이 리더로 가장 많이 적혔는지 보드에 집계한다. 이 때 학생들은 어떤 친구가 많이 나왔는지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학생들이 말한 리더의 자질들을 카테고리화 하여 분류, 정리해 놓고 추후 백범 김구의 리더십과의 연결 시 이를 사용한다.

¹ <http://www.depts.ttu.edu/aged/leadership/leadchr.htm>

백범 김구의 주요활동

진행: 학생들이 백범 김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사해 본다.

(질문)

- 김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 학생은 손을 들어보세요.
Raise your hand if any of you ever heard the name Kim Koo.
- 선생님이 김구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된 프린트 물을 나눠줄 거예요. 김구가 누구일까요?
언제 태어났을까요?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도록 잘
읽어보세요.
*I'll let you read a handout telling about Kim Koo. Who is Kim Koo? When was he
born? What did he do? Read it carefully to answer such questions.*

백범 김구 기념관 홈페이지<http://www.kimkoomuseum.org/en/kimkoo01.html> 에서
발췌한 학습자료 2 백범 김구 요약본을 나누어 주고, 읽을 시간을 5분에서 10분 정도 준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강조표시나 밑줄을 치도록 한다. 시간이 충분할 경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발음이 좋은 학생 네 명 정도를 골라 한 문단씩
대표로 읽도록 한다.

백범 김구에 대한 요약본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약본을 다 읽은 후, 쉽게 읽는 백범일지에 나오는 일화들을 이야기 해 주면서
흥미를 계속 유지한다.

- 백범 김구는 감옥에서 그의 원래 이름 김창수에서 김구로 이름을 바꾸고 호를 백범이라
하였다.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는 일본 국적의 기록에서부터 탈피함이며, 호가 의미하는
바는 “보통 사람”으로 모든 평범한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In prison, Kim changed his name from Kim Changsoo (김창수) to Kim
Koo (김구) and adopted the pen name of Baekbeom (백범, 白凡). Kim stated in his
biography that the change of his name symbolized breaking free from Japanese
nationality records and that he chose the pen name Baekbeom, which means "ordinary
person", hoping every ordinary Korean person would fight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²

² http://en.wikipedia.org/wiki/Kim_Gu

- ♦ 둘째 아들을 낳은 김구의 아내가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2층에서 세숫대야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발을 헛디뎠다. 층계에서 굴러 떨어진 것이 화근이 되어 늑막염이 폐병이 되어 고생하다 죽게 된 이야기를 들려 준다. Kim Koo's wife delivered her second son Kim Shin. When she happened to move a bucket of water from the second floor to the first floor, she just fell down. Due to this accident, she got to suffer from pneumonia. It became to be tuberculosis, and she died because of it.³
- ♦ 상해에서 극도로 어렵게 살았던 김구 가족은 어머니가 집 뒤쪽 쓰레기통에 버려진 배추 껍데기를 먹을만한 것만 골라 소금물에 담가 두었다가 반찬으로 만들어 먹었다는 이야기도 해 준다.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도 다시 한 번 나눈다. When Kim Koo's family lived in Shanghai, China, they were almost starving. Kim Koo's mother even looked for any eatable part of trashed Chinese cabbage from the trashcan so that she could wash them out to preserve them in the salt water. She made side dish with them. How blessed are we as we don't have to worry about what to eat every day?⁴

학생들의 이해도 점검을 위해 질문을 한다.

(질문)

- 김구에 대해 알게 된 것 한 가지씩만 말해보세요.
Tell one thing you came to know about Kim Koo this time.

한 학생이 말 할 때마다 요점을 보드나 차트에 적되, 연대 순으로 적는다. 모두 함께 한 번 리뷰 한 후에는 학습자료 3 백범 김구의 주요활동을 이용하여 일어난 순서대로 번호를 표시하도록 한다.

백범 김구의 리더십

- ♦ 진행: 4명 정도씩을 한 팀으로 만든 후 학습자료 4 백범 김구의 리더십 페이지를 한 팀에 한 장씩 나누어 준다. 앞서 살펴보았던 리더십의 자질 중 백범 김구에 해당하는 리더십의 자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상의하여 쓰고, 그 이유도 적도록 한다.
- ♦ 결과는 다양할 수 있다. 다음은 예상되는 학생들의 답변이다. 이 외에도 다양하고 각기 다른 견해를 잘 듣고 시각 차이를 이해해 본다.

³ 쉽게 읽는 백범일지 213 페이지

⁴ 쉽게 읽는 백범일지 216 페이지

- ① 진보 (forward-looking): 국권 피탈기 동안에도 포기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 임시정부 활동으로 미래를 준비하였다.
- ② 격려하는 (inspiring): 나의 소원이라는 백범 김구의 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 민족을 격려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③ 용기 있는 (courageous): 백범은 나라를 위하는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라면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들을 담대하게 용감히 해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케 하였다. 백범이 19세의 어린 나이로 동학의 팔봉 접주가 되고 선봉장이 된 일, 한민애국단 조직과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의 의거, 어려운 조건에서의 광복군 창군 등은 그의 이러한 담대한 성품과 관련된 일들의 임무였다고 할 수 있다.
- ④ 곧은 (straight-forward): 감옥에 갇혀 고문을 받을 때도, 회유책을 받을 때도 굴하지 않고 신념대로 행동하였다.

- 프로젝트 과제: 위에서의 결과물은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 단계이다. 각 팀에 전지 크기의 백지를 나누어 주고, 백범 김구에 관한 포스터를 제작하도록 한다. 앞서 익힌 백범 김구의 주요 활동 및 그의 리더십을 기본으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결과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한다. 제작한 결과물은 팀 별로 발표의 시간을 가진다. 한 팀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교사는 그 팀의 발표 내용 중 좋았던 점, 배울만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다른 팀에게 물어봄으로서 타 팀의 발표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평론의 스킬도 개발시킨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준다. 채점 기준 1) 백범 김구에 대한 이해도 30%, 2) 창의력 25%, 3) 결과물의 완성도 25%, 4) 발표 태도 20%

3. 나의 소원 주요 단어

- 목표: 독립, 소원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쓸 수 있다.
- 진행: 일상 생활 한국어로서는 사용빈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겠으나, 한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독립’이라는 단어와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에서 ‘소원’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써 본다. 독립과 같은 의미인 ‘광복’의 한자어도 접하고,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하는 것도 알려 준다.
- 학습자료 5을 각 한 장씩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나의 소원’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고 영어로 그 의미를 이해한다. 빈 칸에 해당 단어를 쓰면서 철자를 익힌다.
- 학습자료 6는 ‘나의 소원’ 첫 부분이다. 아래의 영어 버전을 참고하면서 ‘소원’과 ‘독립’을 빈 칸에 넣어보는 연습을 한다.
- 받아쓰기 퀴즈, 배운 단어를 사용하여 짧은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 보고 발표한다.

4. 백범 김구의 생존 기간에 있었던 한국의 시대적 사건 및 세계의 주요 사건들

- ♦ 목표: 백범 김구를 이해하는 동시에 더욱 넓은 시야로 한국의 시대적 사건 및 세계의 주요 사건들, 동시대 다른 나라의 인물들을 함께 익혀 동서양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한다.
- ♦ 진행: 같은 시대 다른 나라들에는 어떠한 인물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해본다. 아래 네 사람의 이름을 차례로 불러보며, 해당 인물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한다. 손을 든 학생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학생이 하는 말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정정해 준다.
 - ✓ 김구 金九, 1876년 8월 29일~ 1949년 6월 26일
 - ✓ 마틴루터킹 Martin Luther King, Jr. (1929년 1월 15일 - 1968년 4월 4일)
 - ✓ 간디(1869년10월2일 ~ 1948년1월30일)
 - ✓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1889년 4월 20일 ~ 1945년 4월 30일)

Year	Korean Issue	World Issue	Kim Koo	Martin Luther King, Jr.	Gandhi	Adolf Hitler	Year
1869							1869
1876							1876
1889							1889
1910	국권피탈 (Korea under Japanese rule)						1910
1914		WW I (1914 ~ 1918)					1914
1919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March 1st Movement,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19
1929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					1929
1931		일본의 만주침략 Manchurian Incident					1931
1933		뉴딜 정책 New Deal					1933
1937		일본의 중국 대규모 침공					1937
1938	한글교육 금지 Forbidden Korean Education						1938
1939		WW II (1939~1945)					1939
1940	한국 광복군 결성 Korean Liberation Army						1940
1941		일본의 진주만 공격 Attack on Pearl Harbor					1941
1942	조선 어학회 Korean Language Association						1942
1945	8.15 광복 8.15 Korean independence						1945
1948	대한민국 정부수립 Established Government of South Korea						1948
1949	김구 암살 Kim Koo assassinated						1949
1950	6.25 전쟁 Korean War						1950
1953	휴전 Armistice						1953
1968							1968

- ♦ 위의 도표는 백범 김구의 생존 기간 및 그 전후로 있었던 한국과 세계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한 연표이다. 또한 위 네 인물의 생존 기간을 표시하였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하나 하나씩 옛날 이야기를 해 주듯 간략하게 설명해 준다.
- ♦ 프로젝트 과제: 연표에 나와 있는 시대적 사건을 하나씩 선택하여 프로젝트 이름을 정한다. 가능한 겹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간혹 겹치더라도 하나의 사건에 대해 어떤

탐구가 이루어졌는지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으므로 굳이 변경하라고 하지 않아도 좋다. 아래와 같은 표에 프로젝트 이름과 담당 학생의 이름, 발표할 종류를 표시한 상황판을 만들어 교실에 걸어 놓는다. 여기서 담당자는 한 명 혹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 발표 종류는 자유롭게 정한다. 연구조사를 발표할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모음집, 창작 시, 수필, 연극 등 제한이 없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준다. 채점 기준 1) 선택한 주제에 대한 연구조사 내용 40%, 2) 결과물 제작에 대한 창의력 25%, 3) 결과물의 완성도 15%, 4) 발표 태도 20%

프로젝트 명	담당자명	결과물종류
국권피탈	윤도웅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삼일운동	이호임, 박선아	연극
세계 1차대전	전영선	사진 포트폴리오
김구	박매튜	서예 및 암송
마틴루터킹	...	...

- ◆ 피드백: 프로젝트에 투입된 시간이 많은 만큼 결과물 발표에 대한 피드백도 중요하다. 교사 한 명의 피드백 보다는 학생들 모두가 참여하여 피드백을 주는 시간을 갖는다. 피드백을 주는 학생 입장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결과물 공유 시간에 집중하게 되고, 평가의 안목을 높일 수 있어서 좋다. 피드백을 주는 학생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평가표를 나누어 준다.

프로젝트 명	담당자명	결과물종류	Strong points	Room to improve
국권피탈	윤도웅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국권피탈 과정을 상세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함	글씨가 좀 작았다.
삼일운동	이호임, 박선아	연극	시대에 맞는 복장으로 기억에 오래남는 발표였음.	목소리를 좀 더 크게하면 좋겠다.
세계 1차대전	전영선	사진 포트폴리오	전쟁의 잔혹함을 잘 나타내 주는 사진자료	...
김구	박매튜	서예 및 암송	...	...
마틴루터킹	...	...		

VI. 교수/학습 활동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Activities, 흥미를 유발하는 재미있는 학습 방법

목표: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의 위치를 안다.

독립 운동, 광복 등이 자칫 학생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지루해질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여행하는 기분으로 세계지도를 보여준다. 미국은 어느 학생이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으로 질문을 시작한다. 너도 나도 손을 들면 차례로 한국, 일본, 중국의 위치를 묻는다. 더 나아가 각 나라의 수도와 국기도 서로 연결해 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시간이 되면 각 나라의 특색이 있는 동영상을 잠깐씩 보여주면 좋다.

- ① 학습자료 8: 구글 지도 <http://maps.google.com>에서 복사한 학습자료의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이 모두 보이는 세계 지도를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 ② 학습자료 9: 구글 지도에서 도시를 찾을 때 김구의 출생지 해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임시정부가 위치했던 상하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 일본의 수도 도쿄, 최근 지진과 쓰나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센다이를 입력하여 각 도시가 지도에 표시되도록 한다
- ③ 학습자료 10: 기존에 색 이름을 배웠으므로, 각 국기 위에 표시된 색깔의 색연필로 지도 위에 해당 나라를 색칠해 보면서 국가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해당 국기를 익혀본다.

VII. 학습평가 방법

Type, Description, Materials, Tests and Rubric

소단원 진행 시 마다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통해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한 이상 D 점수는 받지 않는다.

끝까지 흥미로우면서도 정리하는 의미에서의 아래와 같은 “김구 챔피언 게임”을 진행해 본다.

- 목표: 지금까지 다루었던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한다.
- 진행: 흥미를 돋우기 위해 한동안 고국에서 유행하였던 O X 퀴즈 게임 “김구 챔피언 게임”을 진행한다. 참가 대상은 전체 학급이며, O와 X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 전 학급이 모두 일어나 교실 뒤에 서고, 교사는 교실 앞 보드에 반을 나누어 한 쪽은 동그라미, 다른 한 쪽은 가위 표시를 해 놓는다. 교사가 문제를 내면 학생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답 쪽으로 가서 선다. 교사가 정답을 발표한 후 틀린 학생들은 한쪽으로 앉는다. 교사가 준비한 열 문제가 모두 끝날 때 까지 살아 남은 학생들은 “김구 챔피언”이라 불러주고 간단하게 격려 상장을 수여한다.
- 학습자료 11

VIII. 참고자료

- ♦ 김구, (2008), “쉽게 읽는 백범일지.” 파주: 돌베개
- ♦ <http://www.kimkoo.or.kr/>
- ♦ <http://www.kimkoomuseum.org/>
- ♦ <http://www.youtube.com/watch?v=c7WJEN6vUlk>
- ♦ <http://www.youtube.com/watch?v=A15TTheW1nM>
- ♦ <http://www.nps.gov/malu/forteachers/lessonplansandteacherguides.htm>
- ♦ http://en.wikipedia.org/wiki/Kim_Gu
- ♦ http://en.wikipedia.org/wiki/Mohandas_Karamchand_Gandhi
- ♦ http://en.wikipedia.org/wiki/Martin_Luther_King,_Jr.
- ♦ http://en.wikipedia.org/wiki/Adolf_Hitler
- ♦ <http://www.depts.ttu.edu/aged/leadership/leadchr.htm>

IX. 학습자료

Resources and Materials

1. 리더의 자질

The leaders in our classroom are _____ and _____. They

are leaders because _____

2. 백범 김구

Kim Koo was born in 1876 in Haeju, Hwanghae-do. He learned the Chinese classics at a traditional community school. As a commander of the Donghak Peasants⁵ Army of Hwanghae-do, he led the troops to bring down Haeju Fortress in 1894. When the attempts of the Donghak Peasants Movement failed, he joined the Righteous Army Corps. In 1896 he killed a Japanese lieutenant, Tsuchida, in order to revenge the murder of the Queen Myeongseong (1895). He was imprisoned and sentenced to death.

Kim Koo studied western books while in prison. After escaping from prison, he became a Buddhist monk. However, in 1899, he returned to normal life, where he started educational activities and built several schools in Hwanghae-do. In 1907 he joined Sinminhoe (New People's Association), an underground independence organization working to restore national supreme power. His high visibility as the organization's secretary general led to a second term of imprisonment in 1911.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in 1915 he launched a rural enlightenment⁶ drive.

When Korea's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started in 1919, Kim Koo moved to Shanghai, China. As the Premier of the Korean Provisional⁷ Government (KPG), he tried to make the KPG lively in the difficult times. He organized the Korean Patriotic⁸ Corps (KPC) in 1931. In the following year he led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with those of Yi Bong-chang and Yun Bong-gil, which generated a great response inside and outside Korea and energized th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In 1940 he settled in Chongqing, China. As Premier of the KPG, he organized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carried out full-scale anti-Japanese movements to accelerate national independence.

With the liberation of Korea, Kim Koo returned home from China in 1945. He carried out an anti-trusteeship⁹ movement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n 1948, leading the drive for unification, he opposed South Korea's general election because of its exclusion of North Korea. In the course of his activities for South-North unification, he was assassinated on June 26, 1949, by the powers blocking national unification.

⁵ Peasant: a member of a class of persons, as in Europe, Asia, and Latin America, who are small farmers or farm laborers of low social rank.

⁶ Enlightenment means the act of enlightening or the state of being enlightened. (insight, wisdom, awareness)

⁷ You use provisional to describe something that has been arranged or appointed for the present, but may be changed in the future.

⁸ having or showing great love and support for your country

⁹ Trusteeship: control over an area of land given to a country or countries by the United Nations

3. 백범 김구의 주요 활동

- () Launched a rural enlightenment drive.
- () Started educational activities and built several schools in Hwanghae-do.
- () Sinminhoe (New People's Association), an underground independence organization working to restore national supreme power.
- (1) As a commander of the Donghak Peasants' Army of Hwanghae-do, he led the troops to bring down Haeju Fortress.
- (8) Assassinated on June 26, 1949
- () Organized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carried out full-scale anti-Japanese movements to accelerate national independence.
- () Carried out an anti-trusteeship movement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 () Moved to Shanghai, China. As the Premier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KPG), he tried to make the KPG lively in the difficult times.

4. 백범 김구의 리더십

Discuss about the leadership of Baekbeom Kim Koo and write words best describing his character and traits on the first line. Describe reasons why you think so on the second and the third lines.



5. 단어 익히기

Copy the Korean words in the blank table.

나의	my				
소원	wish				
대한	Korea				
독립	independence				
우리	we / our				
나라	country				
자주	self-reliant				
자주	often				
서슴지 않다	do not hesitate				
무엇	what				
물음	question				
대답	answer				
광복	Restoration of light (independence)				
광복절	Independence Day				

백범일지 - 나의 소원 中에서

다음 에 들어 갈 알맞은 단어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소원, 독립

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은 대한 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이오"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If God asked me what my wish was, I would reply unhesitatingly,

"Korean independence."

If He asked me what my next wish was, I would again answer,

"Our nation's independence."

If He asked me the same question for the third time, I would reply in an even louder voice,

"My wish is our Great Korean Nation's Complete Indepen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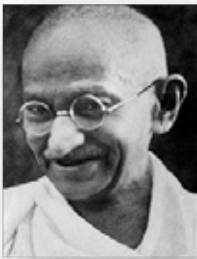
한국어 <http://www.kimkoo.or.kr/02diary/sub.asp?pagecode=m02s02t01>

영어 http://www.kimkoomuseum.org/en/kimkoo02_1.html

인물과 관련된 설명을 서로 연결하기.



Martin Luther King, Jr. (January 15, 1929 – April 4, 1968) was an American clergyman, activist, and prominent leader in the African 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 He is best known for being an iconic figure in the advancement of civil right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using nonviolent methods following the teachings of Mahatma Gandhi. King is often presented as a heroic leader in the history of modern American liberalism. King delivered his "I Have a Dream" speech.



Adolf Hitler (20 April 1889 – 30 April 1945) was an Austrian-born German politician and the leader of the National Socialist German Workers Party, commonly known as the Nazi Party. He was Chancellor of Germany from 1933 to 1945. Hitler is most remembered for his central leadership role in the rise of fascism in Europe, World War II and the Holocaust. Nazi forces engaged in numerous violent acts during the war, including the systematic murder of as many as 17 million civilians, including an estimated six million Jews.



Kim Koo (also known by his pen name Baekbeom, August 29, 1876 – June 26, 1949), the sixth and later the last presi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a Korean politician, educator, leader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that lasted from 1910 to 1945, and reunification activist who had struggled for the independent reunification of Korea since its national division in 1945.



Mohandas Karamchand Gandhi (2 October 1869 – 30 January 1948) was a pre-eminent political and ideological leader of India during the Indian independence movement. This is defined as resistance to tyranny through mass civil resistance. His philosophy was firmly founded upon nonviolence. His philosophy and leadership helped India gain independence and inspired movements for civil rights and freedom across the world. Gandhi is often referred to as Mahatma or "Great Soul", an honorific first applied to him by Rabindranath Tagore).

6. 백범 김구와 관련된 나라



7. 한, 중, 일의 주요 도시



8. 지도와 국기

지도에서, 아래 국기가 나타내는 나라를 찾아 국기 위에 지정된 색깔로 칠하고 백범 김구의 국가 국기를 찾아 동그라미 치세요.



노랑색

파랑색

분홍색

초록색

빨강색



9. 김구 챔피언 퀴즈 (O X 퀴즈)

- ① Korea was occupied by USA.
- ② Kim Koo's pen name is Baekbeom.
- ③ Kim Koo's wish was Korean Independence.
- ④ Independence is 독립 in Korean language.
- ⑤ When Korea's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started in 1919, Kim Koo moved to Beijing, China.
- ⑥ The USA president was Abraham Lincoln when Kim Koo was the Premier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KPG) in Shanghai, China.
- ⑦ As Premier of the KPG, he organized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carried out full-scale anti-Japanese movements to accelerate national independence.
- ⑧ Korea came to be independent on August 15, 1945.
- ⑨ World War was over in 1945.
- ⑩ Kim Koo was assassinated in 1949.

1) X, 2) O, 3) O, 4) O, 5) X, 6) X, 7) O, 8) O, 9) O, 10) O

‘무엇’보다 먼저 ‘왜’의 정립

허병렬

현 뉴욕한국학교 교사/이사장
전 36년간 뉴욕한국학교 교장
전 NAKS 총이사장 1991-1994
전 NAKS 총회장 1988-1990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주최
제 28차 국제 한국학 학술대회에 모인
한국학교 교사들과 학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웃 사랑, 나아가서 인류 사랑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학교 교육은 끼리끼리 뽀뽀 뭉치는 배타적인 민족 교육과는 다른, 활짝 열린 민족교육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보다 먼저 ‘왜’의 정립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는 한국학교 교육의 성과를 올리는 바탕이며, 한국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이념이다.”

§ 1. 한국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나 한국학교 다녀요.’ ‘좋겠네. 무엇을 배우지?’ ‘많이 배워요. 사물놀이, 태권도, 노래, 무용, 서예, 한국어...’ ‘다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어요. 나는 친구 만나니까, 좋아요.’

대부분의 한국학교가 한국문화 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문화의 중핵(core)인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여, 실시 가능한 문화 교육을 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 ▶ 한국어는 한국문화를 바탕으로 하여서 만들어졌다
- ▶ 해외의 생활 환경을 고려할 때 언어교육의 성과를 단기간에 올리기 힘들다.
- ▶ 다양한 문화교육은 학생들이 즐기고, 성과를 올려서, 학부모나 학생이 조급하게 바라는 성장을 보일 수 있다.

- ▶ 언어교육은 주로 머리와 귀, 입, 눈으로 익히고, 예능교육은 주로 머리와 온 몸으로 익히는 기술이 되어서 학생의 성장 발달의 균형이 잡힌다.

§ 2. 한국학교의 성장에 따른 영향력

‘댁의 자녀는 한국학교에 다닙니까?’ ‘이래 저래 못 보냈는데 꼭 보내도록 해야지요.’ ‘우리 지역에도 한국학교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외국 학생들도 한국문화를 배우는 시대가 되었어요.’ ‘한국문화의 흐름이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미 국에 한국학교가 생긴 지 이미 반세기가 지났다. 잘 보이지 않던 한국학교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각 지역에, 각종 한국학교가 생겼다. 또한 대학에는 한국문화교육기관의 종사자나, 한국학교 교사를 배출할 학과를 신설 중에 있다. 이런 사회 풍조는 그동안 쌓아올린 한국학교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본다.

- ▶ 개인이나 단체가 세운 크고 작은 한국학교
- ▶ 공립학교에 개설한 한국어반.
- ▶ 한국어와 영어로 가르치는 특별반.
- ▶ 한국문화교육을 영어교육과 병행하는 동서문화학 학교,
- ▶ 대학에 개설한 한국학과.
- ▶ 대학에 이미 개설했거나, 개강 예정인 한국학교 교사를 위한 학과들

§ 3. ‘왜?’ 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답변

- * ‘왜, 한국학교에 다녀요?’
부모가 원하니까, 친구가 다니니까, 미국학교에서 못 배우는 것을 배우니까, 외국 친구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싶어서, 한국에 편지 쓰고 싶어서, 어른들이 배워야 한다니까....등
- * ‘왜, 자녀를 한국학교에 보내십니까?’
부모가 할 일을 못하니까 학교에 부탁하는 것, 한국의 뿌리를 알리고 싶어서, 한국 친척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정에서 한국말로 대화를 하려고, 한국을 자랑하고 싶어서, 한국학교에 보내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어서... 등
- * ‘왜, 한국학교에서 가르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니까, 해외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싶어서, 내가 씨앗을 뿌리고 가꾼 묘목들이 모여 한국문화의 숲을 이룰 것으로 믿으며, 한국교육이 학생들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싶어서....등

앞 에 예거한 각자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한국학교의 정신은 더 원대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학생, 학부모, 교사는 좀 더 고차원의 이상을 가지고 한국학교 교육에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

§ 4. 정체성이란 자기 자신의 발견이다.

‘학생은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 ‘미국사람.’ ‘어떤 미국사람인가요?’ ‘무슨 뜻이지요?’ ‘Korean-American이예요.’ ‘그러니까 Korean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요.’ ‘어떻게요?’ ‘Korean에 대하여 많이 알

고, 많이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학생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거예요.’

정 체성은 동일성, 본체, 정체, 신원 등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내 자신을 알게 되는 일이다. 내 자신이 어떤 뿌리와 가족사에 속하며 어떻게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지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마음은 지나친 자기 도취의 나르시시즘과 다른 건강한 자기 사랑을 말한다. 지금의 내 자신의 내력을 알게 된다는 것은 ‘나에 대한 이해이고 사랑’으로 이어진다.

자 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웃 사랑, 나아가서 인류 사랑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학교 교육은 끼리끼리 뽕뽕 뭉치는 배타적인 민족교육과는 다른, 활짝 열린 민족교육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 먼저 ‘왜’의 정립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는 한국학교 교육의 성과를 올리는 바탕이며, 한국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이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
 꾹꾹 꾹꾹 꾹꾹리는 누구하고 노나? 나는 나는 언제나 누구하고나 놀지.’
 ‘개굴 개굴 개구리는 누구하고 노나? 나는 나는 언제나 누구하고나 놀지.’

한 국학교의 교육이념은 교육방법에 선행한다.

‘
 왜 한국학교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한국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의 바탕이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없는 교육내용은 사상 누각이다.

우 리는 미국 방방곡곡에서 규모, 교육과정등 다양한 한국학교 경영을 하면서 그 바탕에 현실성, 융통성, 미래를 고려한 내일을 바라보고 견실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것이 올해 NAKS가 생긴 지 30주년이 됨을 축하하며 피력하는 우리의 자부심이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1981.4 ~ 2011.7

이광호 정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수령 1,0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긴입느티나무(천연기념물 제 95호)’〉

*1980

80.12.13 - 동부지역 한인학교 대표자 회의가 뉴욕 한국학교(오전) 및 뉴욕시 인천집(오후)에서 개최됨.

§ 임시 의장(주하성), 임시 서기(배윤열)를 선출함.

§ 박천래(일리노이 한국학교 이사장)씨 제안과 이서구씨 수정 동의안

* 준비위원을 구성하여 헌장 초안을 작성하여 발기인들에게 통보하며 발기인들의 우편 투표로 헌장을 채택하기로 함. 단 채택된 헌장은 회장단이 다수결에 의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다.

§ 강경식(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교장) 추가 동의

* 준비위원 9명(뉴욕 지역 4명, D.C. 지역 2명, 아틀란타 지역 1명, 시카고 지역 1명, 보스턴 지역 1명)으로 선정, 만장일치로 통과

뉴욕 지역 - 김은형(세종학교), 김석연(버팔로 한글학교), 김치경(체리힐 한인학교), 박태백(스탠튼아일랜드 한인학교)

워싱턴 D.C. 지역 - 주하성(버지니아 한국학교), 배윤열(제일 한국학교)

시카고 지역 - 박천래(일리노이 한국학교)

보스턴 지역 - 강경식(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아틀란타 지역 - 서문원(그린스보로 한글학교) 등이 선임.

* 서문원씨 동의 - 일반(at large) 준비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선정된 준비위원 9명이 결정, 추가 선정토록

할 것 (2명 이내) - 통과됨.

§ 정관 (By-law) 작성위원회를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할 것을 채택함. 초안 작성 완료를 81년3월1일까지 하기로 가결함.

§ 허병렬(뉴욕 한국학교), 백예원(브롱스 한국학교)씨를 위원으로 하자는 뉴욕 지역 위원들의 추천이 채택됨.

준비위원 회의

§ 명칭: 많은 토론이 있은 후 참석 위원 8명의 투표에 의해 ‘재미한인학교협의회’로 가결됨.

재미한국학교협의회: 3

>> 재미한인학교협의회: 4

재미한글학교협의회: 1

§ 임시로 맡을 임원을 선출하다.

임시 회장: 주하성

부회장: 강경식, 김은형

총무: 배윤열

박천래씨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고 동지역의 연락 책임을 맡기로 함.

§ 상기 회장단이 초안을 작성하여 준비위원회에 송부,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하기로 함.

*1981

81.4.18 | 창립 총회 - Hyatt Hotel (Arlington, VA)

§ 동부지역 한인학교 대표 41명 참가

§ 강경식씨 사회로 주하성 임시 회장이 경과 보고를 한 후 헌장을 채택하고 헌장에 의해 이사 13명을 선출하고 이사장에 오재근(워싱턴 제일 한국학교 이사장)씨를 선출하다.

§ 오재근 이사장 사회로 회장단 선출

초대 회장: 주하성

부회장: 강경식, 서문원, 백예원

총무: 이서구

감사: 고일석, 고충흠

§ 사업별 분과위원회 구성

회원자격 및 회칙 심사위원회

기획 및 홍보위원회

하계학교 운영위원회

교육과정, 교육자료 개발위원회

교육자 연수위원회

재정위원회

§ 회비 책정 가결(년 \$100)

*1982

82.4.10 | 재미한인학교 교과서 편찬을 위한 Workshop 개최 - Hyatt Hotel (Arlington, VA)

§ 모영기 교육관(동부지역)과 김연수 교육관(서부지역)의 협조로 개최함.

§ 발표자

김공언(LA이중언어연구소) - 한국어 교재 개발의 기술적 문제

김덕기(Univ. of Texas) - 재미교포 국어 교육에 관한 몇가지 문제

김석연(SUNY-Buffalo) - 교재 편찬을 위한 조언

박남경(LA한국어교육기관협의회) - 캘리포니아 일본어학원 교과서 분석

방흥규(S.F.이중언어연구소) - 초등반 교재를 통한 한글학교 평가

손예숙(일리노이 한국학교) - 한국어 교재 편찬의 방향

송기중(Univ. of Penn) - 재미동포자녀 한국어 교육 결과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현상

허병렬(뉴욕 한국학교) - 메리와 존을 위한 교육

진교륜(MD주 교육국) - 재미한인2세 교육

§ 강경식 부회장 사회로 재미한인학교협의회(동부)와 한국어 교육기관협의회(서부) 합동 회의에서 교과서 편찬위원회 구성

동부지역 - 주하성, 강경식, 이서구, 서문원, 송진호

서부지역 - 노재민, 박남경, 김공언, 방흥규, 전정재

§ 교과서 편찬위원회 관할하에 교과 과정위원회와 교과서 집필위원회를 구성

교과 과정위원 - 송기중, 박창해, 손예숙, 노재민, 김공언, 박남경

교과서 집필위원 - 허병렬, 김석연, 송기중, 김송희, 박창해, 이경애, 김혜순

§ 교과서 7권을 편찬하기로 하고 집필위원을 결정함

(1) 유치원용 (3-5세) - 김석연

(2) 한국어 I (6-8세) - 허병렬

(3) 한국어 II (7-9세) - 허병렬

(4) 한국어 III (8-13세) - 김혜순

(5) 한국어 IV (13-18세; 중 고등학생용) - 김석연

(6) 한국 역사 (13-18세; 중 고등학생용) - 김석연

(7) 음악 (1-6학년)

* 서부지역은 지역 또는 개인 사정에 의해 불참함.

82.8.18-23 | 교과서 집필위원들이 Lake Harmony, PA에서 공동 집필 작업

*1983

83.7.8 | 뉴욕의 가나안 인쇄소(Canaan Printing, Inc.)와 한국어 (1), (2), (3) (9,000부) 인쇄 계약과 고려서적과 판매 계약을 하다.

83.11.- | 한국어 (1), (2) 출판 및 판매 시작

*1984

84.3.23 | 워싱턴지역협의회 창립 (초대회장:염영일)

84.11.24 | 1984년도 정기총회 및 대표자 회의 - Hyatt Hotel (Arlington, VA)

§ 참석자: 44개 한인학교 대표와 주미대사관 김영춘 교육관 및 지역 교육원장

§ 김영춘 교육관 발표 - 재외국민 교육에 대한 모국 정부의 정책과 계획

§ 헌장 개정 - 본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산하에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고 본부 사업의 연속을 위해 특별회원 제도를 둔.

§ 본 협의회 경영, 목적, 전망에 대해 토의

§ 공식인 이사회 재화를 위한 이사 선출 및 사업 계획을 추후 서면으로 회원들에게 발송하기로 함.

§ 제2대 임원 선출

회장: 강경식

부회장: 서문원, 김치경, 염영일

총무: 이영작

재무: 고의곤

*1985

85.1.4 | 회장단(강경식, 염영일, 이영작)이 가나안 인쇄소와 고려서적을 방문해 한국어 (1), (2) 재판 출판 및 판매를 다시 교섭 결정함. 한국어 (3) 출판 촉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함.

85.3.- | 시카고지역협의회 창립 (초대회장:김기원)

85.3.29-30 | 임원회 소집 - 사업 계획 토의: 총무와 재무를 서로 바꾸어 총무에 고의곤, 재무에 이영작 임명.

85.4.- | 한국어 (1), (2), (3) 문교부 감수 표시 승인받다.

85.5.11 | 제2회 교사강습회(장소: 뉴욕 한국학교/Kennedy High School)

강의록 발간

§ 공개수업 - 수업 참관(강사: 뉴욕 한국학교 교사들)

§ 강의 제목

한국어 회화 지도 방법 - 박창해 박사

상급반 한국어 지도 방법 - 김석연 박사

재미한인학교의 과제 - 김치경 교장
 한국어 교육 방법 - 이선근 박사, 박창해
 한국 역사 교육 방법 - 오정렬 교장, 백린
 한국학교 운영 방법 - 김은자 교장, 허병렬
 교과과정 운영 방법 - 김송희 교장, 김석연
 한국 음악 교육 방법 - 임성순 교장, 최필남

§ 재미한인학교 뉴욕지역협의회 창립총회
 초대 회장에 허병렬 뉴욕 한국학교 교장 선출
 이로써 본 협의회 산하에 Washington D.C. 지역협의회,
 Chicago 지역협의회, 동북부지역협의회가 생겨나다.

85.7.30 | 한국어 (3)과 학습문제집 판매 시작

85.9.29 | 임원회 소집 - 김영춘 교육관, 류용원 워싱턴 교육원장
 참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한 이영작 재무의 후임에 류기창씨를 임
 명. 11월 총회 및 운영 대표자 연수회를 11월30일 뉴욕에서 개최
 하기로 결의함.

85.11.30 | 1985년도 정기총회 및 대표자 회의 - Holiday Inn. (E.
 Elmhurst, NY)

§ 발표문집 발간(1986.6.1): 50개 학교에서 80여명 참석

§ 특강

한인학교의 사명과 목적 - 서문원(그린스보로 한글학교)
 한국인의 금지와 2세 교육 - 김유미(일리노이 한국학교)
 한국학과 한인 2세 교육 - 전해성(예일 대학교)
 한국학교의 발전 전망 - 박희서(한미교육연구소)
 한인 2세들의 자아의식과 심리적 발육 - 김승태(뉴욕대학
 교 의과대학)
 재외국민 교육에 대한 시책과 방침 - 김영춘(주미대사관 교
 육관)

§ 분과별 토의

교재 개발 분과 - 사회: 강경식
 역사 문화 음악 교과과정 분과 - 사회: 서문원
 학교 운영 분과 - 사회: 염영일, 연사: 최호택
 한국어 교육 방안 분과 - 사회: 김치경, 연사: 황보철

§ 이사회

이사장에 주하성 이사를 구두로 선출
 (임기: 1987년8월31일까지)

감사에 이춘재, 정금조 이사를 선출
 (임기: 1987년8월31일까지)

지역협의회 회장

워싱턴 지역: 김일호

시카고 지역: 김기원

동북부 지역: 허병렬

선출 이사

워싱턴지역: 주하성, 최호택

시카고지역: 이춘재, 이부덕

동북부지역: 임한익, 임성순, 김석연

아틀란타지역: 이준남

휴스턴지역: 정금조

기타지역: 오계희

§ 결의문 채택(3항)

§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연혁(1980.12.13~1985.11.30) 수록

§ 총회 참석자 명단과 회비납부 학교 명단 수록

86.4.15 | 1982년4월10일 교과서 편찬 워크샵에서 구성되었던 위
 원회를 새로 추천되어 수락한 위원들을 포함하여 재구성함.

86.4.26 | 한국어 (2) 학습문제집 발행

86.9.6 | 1986년도 정기총회 및 대표자 회의 - Hyatt Lincoln-
 wood (Chicago, IL)

§ 발표문집 발간(1987.6.1): 44개 학교에서 67명 참석

§ 연수회 발표

재미한인학교 교육의 인식과 참여 - 김치경

저학년의 한국어 교수 방법 - 허병렬

한국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 - 고의곤

2세 자녀들에 대한 한국 역사의 효과적인 교육 방법 - 박

진원

뇌의 발달/발전과 언어의 발전을 돕는 교사 - 박창해

한인 2세 교육과 미국사회 진출 - 전신애

§ 분과별 토의

한국어 교육 방법 분과 - 사회: 서문원

한인학교 운영 방안 분과 - 사회: 강경식

음악 예술 교육 분과 - 염영일

역사 문화 교육 분과 - 사회: 김치경

§ 3대 임원 선출

회장: 서문원

부회장: 김유미, 고의곤

총무: 김기봉

재무: 김영균

*1987

87.3.21 | 임원회에서 총회록 편집 및 차기 총회 일자와 장소를
 1987년8월29-30일 양일로 Baltimore나 Washington D.C.에서
 하기로 결정. 유기창을 편집 간사로 임명.

87.8.8 | 재미한인학교협의회 회보 창간호 발간(발행인: 서문원,
 편집인: 김유미)

87.8.29-30 | 1987년도 정기총회 및 대표자 회의 - Omni Inter-
 national Hotel (Baltimore, MD)

§ 발표문집 발간(1988.4.1): 61개 학교에서 122명 참석

§ 연수회 발표

발행 예정인 유치반 교과서 '한국어 첫걸음'의 교수 방법 -
 허병렬

한인 2세의 발언 - 이성희(춘원 이광수의 손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 대한 한글 교육의 필요성 - 김석연

말과 겨레와 문화 - 이돈성

한인학교와 한국과의 자매 결연 - 이성옥

§ Workshop

고운말 쓰기 - 김송희

반편성과 진급 및 졸업 - 이춘재

스프링브룩 한인학교의 이야기 시간(Video를 통하여) - 김
 기봉

교회 협조를 통한 한국학교 운영 모델 - 장성숙

한국어와 음악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 - 박규영

고학년들에 대한 수업 모델 - 김방실

§ 특강

*1986

이민 2세 교육의 비전 - 김상복 목사
 § 감사패 증정
 주하성(초대 회장), 강경식(2대 회장), 김영춘 교육관
 허병렬, 김석연 - 교과서 편찬 공로

87.11.11 | '한국어 첫걸음' 출판기념회
 저자: 허병렬
 도안: 윤현숙
 유치반 교과서 편찬위원장: 박창해

*1988

88.2- | 회보 발간(제2회기-1호)

88.8.26-27 | 1988년도 정기총회 및 대표자 회의 - La Guardia
 Mariott (E. Elmhurst, NY). 주제: 21세기로 가는 한인 2세 - 무
 엇을 가르쳐야 하나?

§ 4대 임원 선출
 회장: 허병렬
 부회장: 황보철, 이상오, 정금조
 총무: 김기봉
 재무: 이휘자

§ 이사회
 이사장: 강경식 총무: 류기창
 지역협의회 회장
 워싱턴지역: 황보철
 중서부지역: 이상오
 동북부지역: 이선근
 선출 이사 - 최경수, 김일호, 이원우, 남영림, 오영자, 김송
 희, 김숙자, 손정숙, 이광백, 김미원, 김은자, 김치경, 박의현,
 장정숙, 지혜정, 최승혜, 조범, 홍두표
 감사 - 김일호, 김치경

88.12.29 | 황보철 부회장이 남가주 한국어교육기관협의회 총회
 참석. 앞으로 두 협의회 교류와 협조 토의

*1989

89.1.13-14 | 제2차 임원회에서 한국어, 한국 역사 및 문화 소개,
 음악 교육 과정 위원회 발족. 1989년도부터 명칭을 '정기총회 및
 대표자 회의'를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로 바꾸기로 함.

89.3.31 | <한인교육연구> 창간호 발행(편집인: 허병렬)

89.7.10 | 법인체 등록 인가 (State of Maryland)

89.8.20 | <한인교육연구> 제2호 발행

89.8.25-26 | 1989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Hyatt Hotel (Lin-
 colnwoodk, IL), 주제: 교육 과정 정립으로 효과적인 2세 교육을
 하자.

§ 65개 학교에서 127명 참가(우편으로 미리 등록한 회원 수)
 § 학술대회 프로그램 발간
 § 교과과정 분과 토의
 한국어 교육과정 - 최호택
 한국 역사 교육과정 - 김기봉

한국 문화 교육과정 - 우영선
 예능과 교육과정 - 최일단
 시청각 교육자료 연구위원회 - 황보철

§ 시청각 교육자료 전시
 세종한국어, Audio Cassettes 1 Set(16 Tapes), Video Cas-
 settes 1 Set(8 Tapes) - 김석연(버팔로 한국학교)
 한국어 시청각 교재 - 김은자(뉴저지 한국학교)
 한국 역사와 문화 시청각 교재 - 윤순철(뉴저지 한국학교)
 § 10년 이상 근속 교사 표창
 14년: 정금조
 12년: 이한식, 김혜선, 지생런
 10년: 김주영, 오화자, 전병희, 김정혜

89.9.30 | 캐나다지역협의회 총회 및 교사연수회 참가 - 허병렬
 회장(감사)

89.10.14 |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창립 총회(초대 회장: 김영집)
 - 강경식, 이상오, 김치경 참가

89.11.18 | 남서부지역협의회 창립 총회(초대 회장: 하인태) - 임
 원 전원, 강경식 이사장 참가

*1990

90.2.22 | <한인교육연구> 제3호 발행, 한국어 (1), (2) 개정판 발
 행

90.3.- | IRS 비영리 단체 허가 신청

90.5.- | 5월은 '뿌리 교육의 달'이 되기를 바라며 바람직한 행사들
 을 안내 함.

90.6.4 | 한민국어교육과정 발간 (위원장:최효택)

90.8.- | 예체능과 교육과정 시안, 한민족어 교육과정 초안 발간,
 <한인교육연구> 제4호 발행, 한국어 (3) 초판 발행, 제8차 정기총
 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 발간

90.8.24-25 | 1990년도 제8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Holiday
 Inn. (Arlington, VA), 주제: 한국의 얼을 심는 뿌리교육을 하자.

§ 54개교 대표 100여명과 기타 관계자 260여명

§ 주제 강의

21세기를 향한 한인 2세 지도자 교육 방안 - 진 교륜 박사
 한국어 III 편찬 취지와 활용 방법 - 김석연 박사
 한국어를 통하여 본 한국의 얼 - 이상억 박사
 역사를 통하여 본 한국의 얼 - 박성래 박사
 문화 예술을 통하여 본 한국의 얼 - 오현주 선생
 한국어와 한글의 독자성 - 이익섭 박사

§ 심포지움 [세계속의 한인 2세 교육]

유럽한인사회 및 2세 교육 현황과 과리 한글학교 - 이극범
 (유럽)
 재일동포 민족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 - 박병윤(일본)
 재미한인학교협의회와 동행하는 캐나다지역협의회 역할
 과 사명 - 손정숙(캐나다)
 남가주지역한국학교 현황과 연합회의 역할 - 박연연(미국
 서부)

새 개방국 소련, 중국, 동구권 국가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외
국민 교육정책 - 금승호 교육관(문교부)

§ 분과별 세미나

통합한국학교 - 현운중, 최경수, 이형석
한민족어 교육과정 - 최호택
예체능 분과 교육과정 - 이선근
역사 문화 교육과정 - 김기봉
교육과정 모델 분과 - 이상오

§ 감사패 증정 - 서문원 직전 회장, 금승호 교육관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0년: 이경애
15년: 김헬렌
10년: 유숙희, 구인순, 김경숙, 지혜정, 이영희, 이데레사,
김옥두, 김근숙, 박기모, 여정자, 김아미, 고방실, 이선근,
김근순

§ 5대 임원 선출

회장: 황보철
부회장: 김기봉, 김일호, 남영림
총무: 류기창
재무: 이휘자
편집인: 허병렬

§ 지역협의회 회장

워싱턴지역: 이한봉	동북부지역: 김송희
중서부지역: 최호승	뉴잉글랜드지역: 김영집
남서부지역: 하인태	캐나다지역: 손정숙

90.10.5-7 | 인수인계 및 제1차 임원회 회의록 발간 - 재미한인학
교 명단 주소록 수록

90.11.3 | 동남부지역협의회(Atlanta) 창립(초대 회장: 김경숙)

90.11.16 | <한인교육연구> 제5호 발행

90.11.24 | 금승호 교육관 이임 및 김명곤 교육관 취임.

90.11.30 | 지역협의회 분할구 및 새 지역협의회 조직 계획

*1991

91.1.30 | 한국어 (4) 출판

91.3.1 | 서북미지역협의회창립(초대회장:오계희)

91.3.2 | 북가주지역협의회(San Francisco) 창립(초대 회장: 정희
상)

91.3.3 | 하와이지역협의회(Honolulu) 창립(초대 회장: 조성천)

91.3.16 | 플로리다지역협의회(Miami) 창립(초대 회장: 정대용)

91.3.29-30 | 임원회, 이사회, 교육과정위원회 모임 - Holiday
Inn. (Arlington, VA)

91.4.30 | <한인교육연구> 제6호 발행

91.8.- | 제9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 발간

91.8.23-24 | 1991년도 제 9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The
Double Tree Hotel (Houston, TX)

§ 특강

해외 한민족의 이상과 성공적 교육 - 박문일 총장(중국 연
변 대학교)
한국 역사를 통하여 본 민족 정기 - 이규태 논설위원(조선
일보)

§ 강의

한국학교 교육의 의의와 체제 - 이남정 교육원장
한국어의 언어학적 평가와 연구 - 강인정 교수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효율적인 한글 교육 방법 - 조인숙
교장

§ 교육과정 연구시안 발표

한민족어 교육과정 - 손정숙
역사 문화 교육과정 - 김기봉
예체능 교육과정 - 진경윤
교육 모델 연구 - 박규영

§ 학술세미나

미주한인학교용 교재 종합평가 - 정희상
2세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우리의 방향 설정 - 김치경
한인학교의 전문적 학습지도 방법 - 김광성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15년: 최경훈, 영스채순
10년: 김진국, 서정순, 이경이, 이인신, 윤건희, 윤문자, 장성
숙, 정영일

§ 이사회 - 총회

이사장: 허병렬
부이사장: 김치경
총무: 류기창
감사: 김숙자, 김송희

91.11.17 | 한국어 첫걸음, 한국어 (1), (2) 연습문제 재판 발행

*1992

92.3.21 | 미시간지역협의회(Detroit) 창립(초대 회장: 남영림)

92.3.28 | 콜로라도지역협의회(Denver) 창립(초대 회장: 선창균)

92.6.1 | 한국어 (1), (2) 개정판 발행, 회보 발간

92.6.13 | IRS 비영리 단체 허가 통보(규정 Code 509(a)(2))

92.7.15 | Sales Tax Exemption Certificate(State of Maryland)
접수

92.8.3 | 조완규 교육부장관 및 금승호 국제교육국장 워싱턴 방문
환영 간담회

92.8.12 | <한인교육연구> 제7호 발행

92.8.20 |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 발간 - 부록 (1) 재미한
인학교협의회 학교 명단, (2) 한인학교 교사 명단, (3) 재외국민교
육원 초청 교사연수 참가자 명단(1982년~1992년)

92.8.28-29 | 1992년도 제10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BWI Marriott Hotel (Baltimore, MD), 주제: 재미한인교육 재검토

§ 주제 특강

모국어가 없는 아이 - Dr. Robert Ramsey(Maryland Univ.)

The Second Generation Korean and The Problem of Identity - Dr. Steve Linton(Columbia Univ.)

북미 한인 후세 교육의 방향 - 백웅진 박사(Toronto Univ.)

§ 초청 강사

세계 역사에 도전하는 한민족 - 신알렉세이 박사(러시아고려인 협회장)

한인 2세를위한 민족 교육의 방향 - 김상원 박사(국제교육진흥원장)

§ 2세의 발언

David Cho(변호사), Sung Yol Lew(대학생)

§ 분과별 세미나

한국어 초·중급

한국어 고급

문화 역사

재미한인학교용 교육과정

§ 시청각 교육 자료 출품 전시

어린이 노래극 - 토끼전, 나뭇꾼과 선녀: 씨알 한국학교(유희자, 김옥자)

한국 역사 소개 - 뉴욕 퀸즈 장로교회 한국학교(김진화)

학부모 세미나용 - 학부모와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 뉴욕 한국학교(허병렬)

§ 감사패 증정 - 허병렬 직전 회장

§ 교육부장관 감사장 수여자

구기자, 권숙영, 김경숙, 김숙자, 김정혜, 김환, 박태원, 송병옥, 이광호, 이제인, 이화섭, 이휘종, 함혜란

§ 개교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0년: 남영림

15년: 오카타리나, 김헬렌

10년: 곽혜영, 김경자, 김숙자, 김원엽, 박선희, 신선숙, 이기란, 이명혜, 이서희, 이순, 조경숙, 최재귀

§ 6대 임원 선출

회장: 김기봉

부회장: 김정오, 이경이, 류기창

총무: 이광자

재무: 김근순

편집인: 허병렬

§ 지역협의회 회장

워싱턴지역: 오영자

남서부지역: 정금조

동북부지역: 김숙자

서북미지역: 김정태

뉴잉글랜드지역: 김원엽

북가주지역: 이경이

중서부지역: 노승석

콜로라도지역: 선창균

동남부지역: 김경숙

하와이지역: 조성천

플로리다지역: 정대용

미시간지역: 남영림

*1993

93.4.- | 예능, 한국 문화 역사 교재 작성

93.5.- | 회보 발간(제6회기-1호)

93.7.- | 회보 발간(제6회기-2호)

93.8.- | 〈한인교육연구〉 제8호 발행

93.8.27-28 | 1993년도 제11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Holiday Inn. (Elmhurst, NY), 주제: 향상하는 한국학교, 성장하는 꿈나무들

§ 특강

한국 전통문화의 성격 - 고병익 박사(전 서울대 총장)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한민족 교육의 방향 - 이현철 박사(Rampo College)

§ 강의

한국어 (1), (2) 지도 지침표 해설 - 허병렬

한국어 (3), (4) 학습지도 방법 - 김석연

바람직한 교사의 상 - 양정선

말하기 교육 이론 - 이선근

말하기 교육 실습 - 초급: 이선근, 중급: 고방실, 고급: 차영실

문화 역사 교재 사용 보고 - 권현주, 이제인

§ 2세 발언/토론

2세가 당면한 문제들 - 서은령, 김종환, 박영미, 홍준, 이연경

§ 시청각 교육 자료 출품 전시

한국 지도 모형, 학습도감, 전래동요 놀이, 민속놀이 모음 - 뉴욕 한국학교

재미있는 우리말 찾기 - 캐나다 런던 한글학교(손정숙)

서예를 통한 한글 및 문화 교육 - 워싱턴 통합 한인학교(신선숙)

날씨판 (김옥자), 단어카드(이봉자), 용판을 이용한 그림교재(오정숙) - 캐나다한인학교협의회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뉴욕 한국학교, 시카고 한국학교, 상향 한국학교, 성김안드레아 한글학교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0년: 김헬렌, 허병렬

15년: 김은숙, 이승연, 이테레사

10년: 백영희, 전명자, 김옥현, 이명혜, 김은자, 김현숙, 윤순철, 전현자, 오계희, 김정태, 유은애, 박인애, 홍태기, 김영일, 김옥주, 박명선, 김양자, 한영실, 김현규

93.10.- |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 방문 간담회

*1994

94.2.12 | 회보 발간(제6회기-3호)

94.3.- | 김명곤 교육관 이임(감사패 증정), 김용현 교육관 취임

94.4.9 | 플로리다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지원 - 허병렬, 김기봉, 이상오(강의)

94.4.- | 〈한인교육연구〉 제9호 발행

94.6.1 | 회보 발간(제6회기-4호)

94.6.- | The American Asso. Of Teachers of Korean 발기대회 참가, 이사 가입

94.8. | 개정 주소록(Directory) 발간, 협의회 Brochure 발간, <한인교육연구> 제10호 발행

94.8.19-20 | 1994년 제12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Radisson Hotel (Chicago, IL), 주제: 세계화 시대의 2세 교육

§ 주제 강의

세계화 시대의 2세 교육 - 원광호 국회의원
세계화 시대로 향하는 2세에 대한 이해 - 배영 박사
2세 아동 교육 방향 - 전정재 박사
한국 문화의 특성 - 전해성 박사

§ 한국 문화 역사 Workshop - 전해성 박사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 명계웅 중서부 회장

§ 분반 토의

학년별 능력별 한민족어 교육 방법 - 최돈기, 조영애, 김경숙, 박규영
한인학교 행정 운영 - 노승석, 허병렬, 최경수, 김홍준
우수한인학교 교육과정 - 이상오
미공립학교 교육지침 - 이광자
민속놀이 및 무용 자료 - 김정오
한국어 회화 교육 교안 작성 - 김근순

§ 시청각 교육 자료 출품 전시

'94년도 캐나다한인학교 연합 학예회 및 체육대회 Video Tape
한국어 교육과정 학년별 시범 지도 지침서 - 토론토 노스윅 한인학교 교사들
음악극 '토끼전' Video Tape, Audio Tape, 극본 - 캐나다 씨알 한국학교
한국 문화 역사 자료집(사진 모음), 한국어 기본 문형 익히기, 학생용 한국 문화(책자), '94-'95 학년도 교과별 학습 주제 - 뉴욕 한국학교

§ 감사패 증정 - 황보철 직전 회장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5년: 허병렬
20년: 김송희, 최필남
15년: 강화자, 고혜순, 최일단, 김정혜, 박기모, 이영희, 송병욱, 고방실
10년: 김근선, 김진화, 이길순, 홍춘택, 조성주, 조명순, 이제인, 최영자, 이영복, 이연숙, 나박, 전수경, 이현애, 오금주, 김혜자, 이광자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뉴욕 퀸즈 장로교회 한국학교, 캐나다 씨알 한국학교, 워싱턴 통합 한인학교

§ 7대 임원 선출

회장: 이상오
부회장: 함해란, 김홍준, 장혜경
총무: 방정웅
재무: 김근순
편집인: 허병렬

§ 지역협의회 회장

워싱턴지역: 최호택	중서부지역: 명계웅
남서부지역: 김인태	플로라도지역: 선장균
동북부지역: 나박	동남부지역: 김경숙
서북미지역: 김홍준	하와이지역: 조성천
뉴잉글랜드지역: 함해란	플로리다지역: 장혜경

북가주지역: 유재정

미시간지역: 김진국

§ 이사회 총회

이사장: 황보철

부이사장: 이광자

총무: 이경이

감사: 남영렬, 이광호

선출 이사(18명) - 강경식, 김근순, 김송희, 김숙자, 김영집, 김정오, 남영렬, 박규영, 방정웅, 서문원, 이경이, 이광자, 이광호, 이선근, 이화섭, 최경수, 허병렬, 황보철

94.12.- | SAT II 한국어 채택위원회(위원장: 장태한)의 협조 요청으로 12개 지역협의회와 보조를 맞추어 SAT II 한국어 채택을 위한 기금 모금 계획 발표

* 1995

95.1.21 | 나성에서 NAKS 임원과 미주한국학교연합회(회장: 이삼랑) 임원 연석회의

- 1) 통합원칙에 찬성하고 통합추진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2) 양측의 이사회(NAKS)와 고문회의(KSA)의 인준을 받아 4월 말까지 통합 절차를 마무리 한다.
- 3) 8월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한다.

95.1.31 | 회보 발간(제7회기-1호)

95.5.20 | Baltimore에서 긴급 이사회 - 통합 문제와 학술대회 공동 주최의 건

95.5.21 | 회보 발간(제7회기-2호)

95.6.30 | SAT II 한국어 채택을 위한 기금 모금 마무리 지음.(삼성재단에서 전액 \$50만불 기증)

95.8.- | 북미주한인학교 명단 발간

95.8.19 | <한인교육연구> 제11호 발행, 제13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강의록 발간

95.8.25-26 | 1995년도 제13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미주한국학교연합회와 공동 주최) - Omni Angels Hotel (Los Angeles, CA), 주제: 21세기 지도자는 창의적인 2세 교육으로

§ 강의

21세기를 위한 교육개혁 방향과 해외동포 교육 - 이천수 교육부 차관
광복 50주년 남북언어 비교: 통일 후의 한민족어 교육을 위한 제언 - 김민수 교수
Korean-American과 2세 교육: 역사, 자아, 공동체 의식 - 장태한 교수
미주한인사회의 구조와 21세기를 향한 2세 교육의 방향 - 김광정 교수
UN 창설 50주년 기념: 세계 교육과 변천하는 가치관 - 구삼열 국장
Korean-American 선구자 도산 안창호: 삶과 가르침 - 김형찬 교수
SAT II 한국어 후속조치와 주말한국학교의 역할 - 김석연 교수

- § 한글 컴퓨터와 효과적인 2세 교육 - 이순무 사장
- § 한국 역사 문화 Workshop - 전해성 교수
- § 재미한인학교협의회 미주한국학교연합회:
어제, 오늘, 내일 - 강경식, 서문원, 박영연, 정채환
- § 분반 강의 - 한인교육의 현장을 가다
학교 운영 - 조영애, 황명숙, 이형석, 수지오(학급 관리)
모델 수업 - 양아미, 이수정, 한혜정, 김정애, 박규영, 오금주, 박혜숙, 조영미
공작 - 신애리
음악 - 송경현
한글 컴퓨터 - 이순무
한국어 교육과정 - 박남경, 최호택
한미 역사 대조 - 수지오
SAT II 한국어 교육방법 - 김석연
입양아 국제결혼 자녀교육 - 박윤주
- § 시청각 교육자료 출품 전시
허병렬 교직 51주년 기념 - 뉴욕 한국학교(허병렬)
한국 역사 지도범위 제도 - 캐나다한인학교협의회(백혜숙)
그림카드를 이용한 문장놀이 - 캐나다한인학교협의회(이봉자)
자음 모음 조화 - 템파 한국학교(정은경)
초급반 창의성 있는 말하기 지도 - 런던 한인학교(손정숙)
한글 지도 모형 - 킬린 한인학교(이성희)
- § 공로패 증정 - 김기봉 직전 회장
-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5년: 선창균
20년: 윤정수, 서옥련
15년: 김근순, 김근숙
10년: 박애옥, 손정숙, 조영애, 권현주, 김경애, 김호순, 노정수, 유영열, 유정숙, 이경원, 이경희, 전설자, 정은경, 천세련, 최수화

95.10.27-29 | American College Board SAT II Korean Task Force 회의 참석: 이상오, 방정웅 - 1997년 11월에 실시될 한국어 시험 전반에 관한 정책과 과정 협의

- 95.11.30 | SAT II 한국어 연구위원회 구성 -
방정웅, 함혜란, 이광호, 박규영, 이광자(위원장)
중서부지역: 명계웅 남서부지역: 김인태
플로라도지역: 선창균 동북부지역: 나박
동남부지역: 김경숙 서북미지역: 김홍준
하와이지역: 조성천 뉴잉글랜드지역: 함혜란
플로리다지역: 장혜경 북가주지역: 유재정
미시간지역: 김진국
- § 이사회 총회
이사장: 황보철
부이사장: 이광자
총무: 이경이
감사: 남영련, 이광호
선출 이사(18명) - 강경식, 김근순, 김송희, 김숙자, 김영집, 김정오, 남영련, 박규영, 방정웅, 서문원, 이경이, 이광자, 이광호, 이선근, 이화섭, 최경수, 허병렬, 황보철

95.12.- | SAT II 한국어 채택위원회(위원장: 장태한)의 협조 요청으로 12개 지역협의회와 보조를 맞추어 SAT II 한국어 채택을

위한 기금 모금 계획 발표

*1996

- 96.1.19 | East Rock Institute와 NAKS 역사 문화위원회와 공동 사업 추진 결정
- 96.3.17 | 회보 발간(제7회기-3호)
- 96.3.18 | SAT II 한국어진흥재단(이사장: 정채환)이 미국 고등학교에 한국어반 신설 기금 \$10만불 기증 - 주미대사관에서 박건우 대사 참석
- 96.4.8 | SAT II 한국어진흥재단이 미국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SAT II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금 \$7만불 기증 - New York에서 동북부지역협의회 이광호 회장과 임원 참석
- 96.4.9 | <한인교육연구> 제12호 발행
- 96.6.1 | 회보 발간(제7회기-4호)
- 96.7.8 | SAT II 한국어 교과서 출판 협의 - 이상오, 김석연, 이종숙, 허병렬
- 96.7.27 | <한인교육연구> 제13호 발행
- 95.8.- | 북미주한인학교 주소록 발간, 제14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 발간
- 96.8.8-10 | 1996년도 제14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Pacific Lutheran Univ. (Tacoma, WA), 주제: 2세 교육 창달은 한국 고 유문화 전승으로
§ 주제 강의
한국인이 지향하여야 할 가치관과 교포 후세대에 대한 교육 방안 - 이영덕(한국정신문화원장)
한국의 세계화와 해외동포 2세 교육의 정책과 지원 방법 - 김진현(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한국경제의 세계화와 해외동포 2세들의 인력 활용 - 김호일(국회의원, 해외동포문제연구소 이사장)
- § 강의
한국어의 몇가지 언어 문화적 특성과 그 교육 - 김영기 박사(George Washington Univ. 한국어문화센터 소장)
Foreign Language Policy at Secondary Education in America and Acquisition of Korean as Foreign Language in the Tacoma School District - Dr. James Shoemaker
American College Board Educational Testing Service: SAT II Korean Test Development-Status Report - Dr. Brian O'Reilly
SAT II 한국어 후속 조치 -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 이상오 회장, 정채환(SAT II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주말한인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고등학교의 외국어 학점인정 사례: MD주 - 이광자 교장
대학교 외국어 필수 학점인정 사례: UC, CA - 최석호 박사
- § 분반 강의

교육 교과과정 개발 - 이상오, 이마지, 박윤주, 김형찬, Dr. Launius

한국어 이론 - 김석연, 함혜란, 최호택, 이종숙

교수법 - 김인구, 김영기, 유신열, 정영숙, 서용권

학습지도 - 전현자, 이영주, 김능향, 이마지

학습계획 - 김경숙, 박규영, 박은순, 허병렬, 최일단, 최정희, 송종수, 김옥주

교육행정 - 노승석, 윤순철, 이경이, 유재정, 백경숙, 이광자, 윤부원, B. Lao

교육평가 - 김수아, 박화자, 방정웅, 김정태, 이광호, 최석호

§ 한국 역사 문화 특강

Historical Visions of the Korean Family, The Story Telling of Ch'unhyang - Ann Lee, Seung Song

The Korean Family and Success in Traditional Korea - Thomas Lee

Who succeeds? Analysis of Several Case Studies of Civil Officials - Lee And Song

A Korean-American Family Play - Song

Comparative View of Korean Values' Completion of the Play - Song and Lee

§ 시청각 교육자료 출품 전시

한국 문화 교육용 자료, 음악과 리듬 지도용 카드 - 뉴욕 한국학교

§ 교육부장관 감사장 수여자

이경이, 이광호, 정삼숙, 김홍준, 이종익, 함혜란, 이휘자, 박규영, 김경숙, 최호택, 고상순, 전경원, 김정오, 장동구, 조신숙, 한창선, 전현자, 이종숙, 심운섭, 선창균, 한혜정, 방정웅, 이성희, 이의순, 전병무, 김성원, 김순희, 남영림, 장영춘, 배기교, 이경례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27년: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25년: 인디애나폴리스 한글학교

24년: 몬트리 한국학교

22년: 미네소타 한국학교

20년: 룩아일랜드연합 한국학교, 무궁화 한국학교, 베드포트파크 장로교회 한국학교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5년: 이경애

20년: 고방실

15년: 김경숙, 이경이, 이인신, 서순희, 이희숙

10년: 구기자, 김순자, 이준영, 장영자, 정복춘, 한영순, 김희숙, 김명자, 김영희, 김철문, 이종숙, 정명림, 정일순, 조신숙, 최명자, 이성희, 황오숙, 최재귀, 신선숙, 양정선, 최인돈, 최옥경, 남호진, Larry Couch

§ 8대 임원 선출

회장: 최경수

부회장: 방정웅, 이광호, 박규영

총무: 명계웅

재무: 임선자

편집인: 허병렬

기록 간사: 김정태

§ 지역협의회 회장

워싱턴지역: 한광수

남서부지역: 김영렬

동북부지역: 이광호

서북미지역: 조영숙

뉴잉글랜드지역: 함혜란

중서부지역: 박규영

콜로라도지역: 정봉채

동남부지역: 손창현

하와이지역: 이종익

플로리다지역: 전경원

북가주지역: 이경이

미시간지역: 임화자

96.12.6-7 | 12개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 임원 연석회의 - Washington D.C.,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1997년11월에 처음으로 실시될 SAT II 한국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1997년4월에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를 미국 전역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결정(담당 - 이광호, SAT II 한국어 담당 부회장)

* 1997

97.3.1 | 회보 발간(제8회기-1호)

97.4.5 |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설명회 (각 지역협의회 단위로 실시)

97.4.19-20 |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SAT II 한국어진흥재단 후원, 미주한국학교연합회 참가.

준비 책임: 이광호, 나박

출제: 이선근, 허병렬, 이종숙, 윤순철, 김혜순

평가: 방정웅

265학교에서 4,815명 응시

97.6.1 | 회보 발간(제8회기-2호), Kalani High School(Honolulu, HI) 한국어반 개설 지원(\$8,000), Living Korean for SAT II 초급 독본, 학습본 발행(편집인: 김석연)

97.7.27 | <한인교육연구> 제14호 발행

97.8.7 | SAT II 한국어 예상 문제집 발행(편집인: 이광호, 명계웅, 박규영)

97.8.- | 제15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발간

97.8.7-9 | 1997년도 제15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Chicago Marriott O'Hare (Chicago, IL), 주제: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세 계인으로서의 2세 교육

§ 주제 강연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는 한민족 교육 - 박영식 박사(전 교육부장관)

한국의 표상적 삼자산(세종 훈민정음 정음사상) - 김석연 박사(세종학연구소 소장)

Korean-American Identity, its Problems and Leadership Qualities: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 Dr. Stephen Linton(Columbia Univ.)

§ 특강

한국어 특강 '세계속의 한국어' - 이익섭 박사(국립국어연구원 원장)

Korean Women's Role Ideals: Past and Present - 전혜성 박사(East Rook Institute 이사장)

SAT II Korean Pre-Test 결과 및 Test Development Statues Report - Dr. Brian O'Reilly(Director of SAT II Program)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 이정노 박사(Florida State Univ.)

Image of Korean History - Dr. John Duncan(UCLA)

§ Panel 토의

Korean-American 2세들에게 적합한 역사 문화교육 방향 제시 및 이들에게 심어야 할 바른 정체성과 지도자적 소양에 관하여 - 전신애(Director, Dept. of Labor, ILL), 전해성, John Duncan

§ 분반 강의

중학생 이상 학생들을 위한 한국 역사 문화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특별 Workshop - 전해성
국어문법 맞춤법 - 국립국어연구원
교장연수회(합리적, 효율적인 학교 행정 및 운영) - 김경열 외 4명
역사 문화교육에 포함되는 재미한인이민사 및 Role-Models - 함성택
한국의 가락과 기본 춤사위를 통한 문화 교육 - 김경옥
중급학년 역사 문화시간에 다루지는 주요 사건 및 인물과 한국적인 것에 대한 수업자료 토의 - 박소유
CD-Roms 활용의 한국어 교육 - 현대전자연구팀
역사공부와 함께하는 음악교육 - 이선웅
웅변 지도법 - 박향수
구연동화 지도법 - 이남
듣기 및 말하기 교수법 - 허병렬, 함혜란, 김인구, 박문식, 명계웅
읽기(독해) 지도법 - 박현자, 박명진, 채완
글쓰기 지도법 - 김순자, 이영주
맞춤법 및 경어법 - 임동훈, 양명희
SAT II 한국어 전문교사 양성 강습 - 이광호, 명계웅, 박규영, 방정웅(평가, 분석) - 'Living Korean' 교과서 사용 방법 - 김석연

§ 시청각 교육자료 전시

- (1) 저 학년용 한국 문화와 시청각 교육자료(천세련), 학교 글모음(24년간) - 뉴욕 한국학교
- (2) 눈으로 이해하고 만들면서 글자 익히기 -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 감리교회(이현실)
- (3)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공산품 - 디트로이트 세종학교(한순정)
- (4) 몬테소리 이론을 적용한 한국어 교수방안 - 미시시피 Storkville 한국학교(심수잔)

§ 정기 이사회

이사장: 서문원
부이사장: 김기봉
총무: 조동열

§ 감사패 증정

김용현(주미대사관 교육관), 정재환(SAT II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 공로패 증정 - 이상오 직전 회장

§ 재외국민교육 유공자 교육부 장관 감사장 수여

김순자, 신인숙, 심우섭, 최영옥, 이재봉, 전명희, 김미나, 박경미, 남경숙, 조현제, 홍태명, 김정선, 윤선홍, 장보순, 오혜숙, 배광미, 하은자, 김영숙, 장문길, 홍기순, 김봉현, 김인기, 안무실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25년: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20년: 북부 보스턴 한국학교, YWCA 퀸즈 한국학교, 퀸즈 한인 천주교회 한글학교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5년: 남영렬
20년: 임금진, 정삼숙, 오카타리나
15년: 전수경, 이준영, 고영자, 김근선, 김진국, 이광호, 김숙

자, 김진, 이재현, 조인숙, 이화섭, 김소윤
10년: 차영실, 신용자, 송희철, 장정훈, 김석희, 장동구, 박소유, 이영선, 박희양, 김계송, 김선혜, 정영숙, 배기교, 박은희, 이상수, 하명운, 김명순, 오혜숙, 유재정, 한혜정, 이형천, 성낙준, 김진애, 심수잔, 임덕순, 김경옥, 장종철, 조혜옥, 전명자, 한국지, 윤미중, 공영희, 김환

97.12.6 | 12개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 임원 연석회의 - Atlanta

97.12.9 | Abraham Lincoln High School(Tacoma, WA) 한국어반 개설 지원(\$5,000)

* 1998

98.2. - | 회보 발간(제8회기-3호)

98.4.18 | <한인교육연구> 제15호 발행

98.4.18-19 | 제2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250학교에서 4,643명 응시, 준비위원회-이광호SAT II한국어 담당 부회장)
SAT II 한국어진흥재단 후원, 미주한국학교연합회와 공동 출제
출제위원: 이선근(위원장), 김은경, 이종숙, 주신자, 이혜심, 최석호, 방정웅(평가)

98.6.1 | 회보 발간(제8회기-4호)

98.8.3 | Living Korean For SAT II 중급 독본 학습본 발행

98.8.10 | Baker Middle School(Tacoma, WA) 한국어반 개설 지원(\$5,000), Lakota Junior Hight School 한국어반 개설 지원(\$5,000), New Hope Academy(CT) 한국어반 개설 지원(\$5,000), New Eden Academy(MD) 한국어반 개설 지원(\$5,000), George Washington High School 한국어반 개설 지원(\$5,000)

98.8.11 | 제16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발간

98.8.13-15 | 1998년 제16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Atlanta Airport Marriott Hotel (GA), 주제: 차세대 한국어 교육의 최대 효과는 교육과정의 표준화로부터

§ 특강

미주 한민족 차세대의 정체성 및 가치관 - Dr. Robert Ramsey

제1회 SAT II Korean Subject Test 결과 보고 및 Test Development-Status for '98 Test - Mr. Brian O'Reielly(SAT Program Director)

제2회 SAT II 모의고사 경과 및 결과 보고: 이광호, 방정웅 부회장

한국 역사 및 문화 교육 표준화를 위한 교재 연구 보고 - 이상오 직전 회장

이중문화 속의 자녀 교육 - 전해성 교수

한국 문화에 표현된 한국인의 정신 및 마음 - Dr. Bruce Fulton

인터넷을 활용하는 한국 역사 문화 교육 - 황재기 학장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이중언어, 이중문화 배경의 중요성 -

민병갑 교수

§ 강의

SAT II 한국어 준비반 전문교사 양성 Workshop - 이선근, 이종숙, 김은경, 김석연

역사 문화 교재 연구팀의 발표(4학년-12학년용: 역사 문화 교육 자료) - 전해성, Ann Song Baldwin

다양한 게임을 통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법 - 백경숙

노래와 율동을 통한 효과적인 수업진행 방법 - 이의순, 한인선

글쓰기 지도법 - 이영주, 김동식, 천세련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 전현자, 박명진, 허병렬

한국어 맞춤법 특강 -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 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수업 방법 - 정영희, 한미숙, 부영주

한국학교 Internet Homepage Design - 김정선

아동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2세 교육 - 정삼숙, 강용진

Korean-American 청소년을 위한 문학과 문화 역사 교수법 - 조은미

신문 해독을 돕기 위한 기초 한자 교수법 - 김정호

남북한 언어 비교 - 백지숙

역사 문화 교육과 병행하는 한국 무용 수업 시범 - 지태숙

춘극, 연극으로 하는 국어 공부 - 김경옥, 조향숙

교장 세미나 - 김경렬, 허병렬, 정원팔, 유재정, 남영림, 윤순철, 김경숙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한 퀴즈대회 운영 방법 - 이재봉

어휘력 향상을 위한 낱말 맞추기대회 시범 - 김은경

한국학교 행정 전산화에 위한 멀티 미디어 활용 - 나혜영

§ 시청각 교육자료 전시

뮤지컬 '심청, 뉴욕에 오다' - 뉴욕 한국학교

Flash Card 이용 문자형태로 익히기 - 상향교육봉사원 한국학교(김정자)

한국어를 가장 쉽게 배우려면? 그림을 이용한 한국어 습득 - 북 버지니아 통합학교(김소윤)

§ 감사패 증정

SAT II 한국어진흥재단(이사장: 이삼량)이, 이광호 부회장(SAT II 한국어 담당)에게

§ 재외국민 교육유공자 교육부 장관 감사장 수여

최은영, 서순희, 진이보스, 박호설, 나복희, 김화경, 서진희, 박상준, 김현규, 김계송, 이승은, 설규원, 마봉옥, 이남희, 송정화, 이기현, 선우인호, 임윤용, 김인태, 이영자, 조은미, 손상숙, 임선자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25년: 뉴욕 한국학교, 상향 한국학교

20년: 뉴욕 진아 한국학교,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롱아일랜드 연합 한국학교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30년: 허병렬

20년: 송병옥, 지생련

15년: 신선숙, 양정선, 천세련, 윤순철, 전현자

10년: 김영록, 문혜원, 신의숙, 양민숙, 강미중, 박경혜, 방영희, 한인에, 이정옥, 한혜정, 심운섭, 박귀수

§ 9대 임원 선출

회장: 방정웅

부회장: 이광자, 임선자, 손창현

총무: 장동구

재무: 심운섭

편집인: 허병렬

§ 지역협의회 회장

워싱턴지역: 한광수 중서부지역: 박규영

남서부지역: 엄진용 콜로라도지역: 정봉채

동북부지역: 이광호 동남부지역: 손창현

서북미지역: 백경숙 하와이지역: 이중익

뉴잉글랜드지역: 최한길 플로리다지역: 서진희

북가주지역: 박경미 미시간지역: 강용진

§ 선출 이사(17명)

서문원, 박의현, 김근순, 이종숙, 임금진, 윤순철, 강경식, 함혜란, 남영림, 이상오, 황보철, 이휘자, 이광자, 이경이, 김정오, 김정태, 조동렬

§ 감사: 김정태, 이휘자

98.12.5-6 |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 임원 연석회의 - Dalls, TX

* 1999

99.1.- | 회보 발간(제9회기-1호)

99.4.17-18 | 제3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222학교에서 3,633명 응시

준비위원장: 이광자(SAT II 한국어 담당 부회장)

출제위원: 이선근(위원장), 이광호, 조상련, 유순나, 소명선, 박혜숙, 방정웅(평가)

99.4.26 |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 CD Tek과 계약

99.5.- | 회보 발간(제9회기-2호), NAKS 안내 Brochure 발간

99.6.- | 미국 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지원

Los Angeles High School(LA) - \$8,000

Granada Hills High School(LA) - \$5,000

John F. Kennedy High School(LA) - \$5,000

99.7.15 | 미국 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지원

Federal Way School District(WA) - \$30,000

Fairfax High School - \$5,000

99.7.17 | 한국어(1)권~(4)권 재판 발행, <한인교육연구> 제16호 발행, 제17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발간

99.7.29-31 | 1999년 제17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Harvey Hotel (Irving, TX), 주제: 한국 고유의 창조성 재발견

§ 주제 강연

한국인의 창조성과 그 현대적 의미 - 김상일 박사(한신 대학교)

재외동포 교육지원 방향 - 유명규(재외동포재단 교육부장)

한글 창제의 민족 문화사적 의미 - 심재기 박사(국립국어연구원 원장)

이민자 철학과 민족 정체성 교육 - 윤인진 박사(고려 대학교), 이종문 회장

§ SAT II 한국어 특강 - 조상련, 이선근, 이광호

§ 역사 문화 특강 - 노영찬, 박은순, 김기봉, 정광현, 박규영

§ 분반 강의 (한국어)

국어의 문법 - 허철구

한국어 회화 지도법 - 이선근, 김근순, 안귀원
표준어와 표준발음 - 정희원
글짓기 지도 - 홍현이
협력학습을 활용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수 전략 - 이성은
쉽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 이경원
학습원리에 입각한 균형잡힌 한국어 교수법을 위하여 - 오계희
학생 중심의 고급 한국어 교육-Portfolio 방식 - 이해경
미국 공립학교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한국어 지도 - 임금진
그리기와 만들기를 통한 한국어 교육 - 장은경

§ 분반 강의 (역사 문화)

한글 구조의 역사 및 수학적 고찰 - 김기향
한국의 전통 및 종교 - 노영찬
신라 과학기술의 비밀 - 함인영
슬라이드를 통한 한국의 역사 문화 교육 - 박은순
한국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민속공예 - 한순정
월남전쟁과 현대 한국사 - 박규영
문학을 통한 한국 문화와 역사 지도 - 조은미
서예 지도 - 최일단
한국무용 - 지태숙
탈춤추기 - 김경옥

§ 분반 강의 (교육 심리)

동기유발의 이론과 실제 - 강용진
효과적 학습지도를 위한 아동발달 심리 이해 - 박화자

§ 분반 강의 (특별반 운영 및 기타)

Montessori 교육 방법을 이용한 수업 운영 - 정인애
구연동화의 실제 지도 방법 - 최희윤
인형극을 통한 유치반 지도 방법 - 이해연
고등반 학생 지도와 졸업반 지도 - 선우인호
한국학교의 한자교육 - 허병렬
효과적인 학급운영 방법 - 정삼숙
미국 중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사가 되는 길 - 구은희
재외동포 가상 모국체험 공간 - 선경오
교장 세미나 - 이광자
이민 1.5세 공개 토론 - 김대성, 조화영, 한종대

§ 교육 자료 전시

한국학교의 문화교육을 돕는 자료, 한자교육 실천안 - 허병렬

§ 감사패 증정

최경수 직전 회장, 황보철 직전 이사장, 이삼량 SAT II 한국 어진흥재단 이사장

§ 교육부장관 감사장 수상자

라성주, 최경숙, 육춘강, 신용창, 황병화, 이영주, 김정근, 김옥주, 이현주, 정숙자, 김석림, 윤태선, 김혜병, 오금옥, 황성미, 이주연, 김영호, 임춘수, 김대영, 유영진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25년: 그린스보로 한글학교, 실리콘밸리 한국학교
20년: 무궁화 한국학교, 롱아일랜드 장로교회 한국학교, 킬린 한국학교, 남부 뉴저지 한국학교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5년: 최필남
20년: 김주영, 최일단
15년: 조영애, 김경애, 김혜자, 오금주, 유재정, 정복춘, 천취자, 조혜옥
10년: 조동호, 이우항, 한미자, 유선, 이형천, 강신옥, 이현주, 김정자, 신용자, 장정훈, 장옥선, 장인숙, 성옥폴링, 권순

주, 마봉옥, 장명옥, 조정자, 권현주, 유영진

99.12.- | 회보 발간(제9회기-3호)

*2000

00.1.29-30 |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 임원 연석회의 - San Francisco, CA

00.4.29-30 | 제4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204학교에서 3,310명 응시

출제위원 - 이선근, 김은경, 이종숙, 조상련, 박남경, 임혜경, 방정웅(평가)

00.5.- | 회보 발간(제9회기-4호)

00.5.24 | Michael Yang, NetGeo회장 - CNET 주식 5000주 기증

교과서 개발 및 출판, Web 개발을 위함

당시 시가 5,000 x \$24.50 = \$122,500

Michael Yang Fund Committee 구성(이사회)

위원: 이상오, 방정웅, 조동렬, 심운섭(재무/간사)

00.6.- | 한국어 (5), (6) 재판 발행

00.7.- | 이민 역사 및 한국 역사 문화 교과 단원(Module) 발간 (편집인: 심운섭)

교과단원 번호	제 목	저 자
1	재미한인과 한민족의 이민 역사	심운섭
2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	김기봉
3	김치	박은순
4	하열빈 의거와 안중근 의사	정광현
5	조선시대의 과학과 의술	감경현
6	일본과의 7년 전쟁	이재용
7	한국 현대 역사	최상준
8	삼일 운동	김기봉
9	서재필-선구자 재미동포	심운섭
10	한국의 종교	노영찬
11	정약용	노영찬
12	한국의 개신교	오영지
13	불국사와 석굴암	박은순
14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	박은순
15	종묘 (사적125호)	박은순
16	창덕궁과 비원	박은순
17	수원 화성	박은순
18	마라토너 손기정	김기봉
19	어느 한국 고등학생의 일과	김기봉

00.7.17 | <한인교육연구> 제17호 발행, 제18차 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 프로그램 발간

00.8.3-5 | 2000년도 제18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Clarion Hotel (San Francisco, CA), 주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교육 공동체

§ 주제 강연

새 역사를 맞는 우리 자녀들이 가야할 길 - 신호범 박사(워싱턴주 상원의원)

표준어와 문화어의 비교 - 문양수 박사(서울대 어학연구소장)

훈민정음의 창제정신과 생성철학, 그리고 창제 이후의 역사 의식 - 김석득 박사(한글학회 부회장)

§ SAT II 한국어 특강 - 이선근, 박남경, 조상련, 이광자, 허영주

§ 역사 문화 특강 - 심운섭, 장태한, 노영찬, 김형찬, 정광현, 박온순, 신호범, Jacqueline Pak

§ 분반 강의 (한국어)

한국어 문법 - 권재일, 김석득

초급반의 효과적인 한글 자모의 지도 - 전현자

몬테소리 교구를 이용한 유치반 한국어 교육 - 양승효

고학년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 이라미

한국어 회화 교수법 - 김근순

글짓기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 이재상

문학을 통한 한국어 교육 - 강희원

§ 분반 강의 (역사 문화)

재미한인들의 역사의 의미와 활용 - 김형찬

Korean-American과 이민 공동체 - 장태한

한국의 온돌이 미국 건축에 미친 영향 - 민명기

어린이들을 위한 무용학습 방안 - 전설자

한국 무용 지도(소고놀이) - 정선자

§ 분반 강의 (교육 심리)

비협조적이고 행동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도할까? - 김익창, 그레이스킴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과정 중심의 쓰기 전략 - 이성은

§ 분반 강의 (특별반 운영 및 기타)

영아반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 - 김현정

시정각 교재의 유형과 활용 - 김희선

Listening Comprehension의 향상을 위한 Video 교재의 중요성 - 김경국

학급신문 만들기 - 이영주

동화 읽어주기 동화구연 - 이상금, 홍정림

효과적인 수업 운영에 필요한 노래와 율동 - 정인애

한국어 교과서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 허병렬

날씨 - 심계숙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려는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학교 운영 방법 - 조현만, 조은미

컴퓨터 활용 방안 인터넷 - 김파울, 조산구

우수한 교사로서의 자세 및 지도 방향 - 이광자

미국학교 교육방법을 활용한 테마 중심의 한국어 교육 - 조상련

고등반 모델 수업 - 선우인호

교장 세미나 - 김경열

§ 교육 자료 전시

한국문화 역사 지형: 뉴욕 YWCA 한국학교

§ 감사패 증정 - Michael Yang(NetGeo Inc., Chariman)

§ 교육부장관 감사장 수상자

장옥선, 김동원, 박준일, 장은영, 정해전, 전소영, 한순정, 장정훈, 이경희, 허남자, 고묘희, 김경국, 강경희, 남일, 김재완,

이남, 김순애, 배수일, 김리사, 홍성희, 정원팔, 송춘성, 주옥임, 최장식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30년: 워싱턴 통합 한인학교, 하와이 한인 사회학교

25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0년: 갈보리 무궁화 한국학교, 시카고 제일 연합감리교회 한국학교,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한글학교,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 장기 근속 표창

30년: 김경열, 이경애

25년: 윤정수

20년: 김근숙, 김석희, 임영숙, 신선숙, 윤순철, 김근순

15년: 리성주, 김계송, 이경희, 윤주태, 연문자, 장동구, 장영자, 정대용, 전설자, 유영열, 이경원

10년: 안무실, 이명숙, 유신열, 고령영숙, 김순애, 정경애, 김원배, 정영희, 이남, 조은미, 권옥순, 유화자, 강순애, 오혜숙, 양재일, 이영란, 이승은, 이은림, 권순우, 이윤주, 송유옥, 박무희, 이문희, 이인애, 조윤옥, 심수목, 정선미, 고상순, 소아미

§ 10대 임원 선출

회장: 임선자

부회장: 김정태, 김근순, 강용진

총무: 심운섭

재무: 심수목

편집인: 허병렬

§ 지역협의회 회장

워싱턴지역: 김경열

남서부지역: 윤현중

동북부지역: 김근순

서북미지역: 이민노

뉴잉글랜드지역: 최한길

북가주지역: 권옥순

중서부지역: 최화섭

하와이지역: 손애자

동남부지역: 정삼숙

콜로라도지역: 최영웅

플로리다지역: 정대용

미시간지역: 강용진

§ 이사회 총회

이사장: 이상오

부이사장: 김홍준

총무: 남경숙

선출 이사: 1년 임기 - 이광자, 이종숙, 윤순철, 함해란, 박규영, 정원팔

2년 임기 - 남영림, 장동구, 조동열, 이종익, 명계웅, 임금진

3년 임기 - 강화자, 유영미, 이형전, 이미옥, 남경숙, 김홍준, 서진희

선출 이사는 1회만 연임할 수 있고 연 회비는 \$300로 한다.

00.9.30 | 동중부지역협의회(PA, DE, S. NJ) 창립(초대 회장: 김정근)

00.11.11 | 이민사 교과서 편집위원 구성 - 심운섭(위원장), 장태한, 최상준, 전해성, 김형찬, Wayne Patterson

00.12.- | 회보 발간(제10회기-1호)

*2001

01.1.3 |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 임원 연석회의 - Arlington, VA

00.4.21-22 | 제5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187학교에서 3, 254명 응시

준비위원장: 김 근순(SAT II 한국어 담당 부회장)
출제위원: 이선근, 이광자, 이종숙, 조상련, 김금옥, 박남경, 방정웅(평가)

01.5.- | 회보 발간(제10회기-2호)

01.7.17 | 한국어 첫걸음 개정판 출판, SAT II 한국어 예상문제집 발행 (편집인: 이선근), <한인교육연구> 제18호 발행, 제19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및 강의록 발간

01.7.26-28 | 2001년도 제19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Hyatt Regency Crystal City (Arlington, VA), 주제: 새 천년의 한인학교

§ 주제 강의
새 천년의 한인학교 - 앤젤라오 변호사
한글의 개성 - 이익섭 박사(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
§ SAT II 한국어 Workshop - 이선근, 이광자, 이종숙, 조상련
§ 역사 문화 Workshop - 심운섭, 전해성, 장태한, 최상준, 노영찬, Ross King, 김형찬
§ 분반 강의 (한국어)

한글 맞춤법의 이해 - 이익섭
한국어의 소리와 맞춤법 어휘 교육 - 추미호
재미있는 한국어 교육 - 서용권
한국어 회화 교수 방법(발음 교정 중심 & 문형 연습 중심) - 이선근
비 정규 한국학교를 통한 한국어 교육: 숲 속의 호수 - Ross King
한국어의 어미 한국어의 의문법 - 채완
글짓기 지도 - 신지혜
ESL의 원리를 이용한 한국어 지도 방안 - 심용휴
컴퓨터를 이용한 한국어 지도 방안 - 백은주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 차광순

§ 분반 강의 (역사 문화)
붓글씨와 동양화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 신선숙
거문고와 한국 음악 - Esther Kim
한국 문학 작품과 문화 교육 - Heinz Insu Fenki
한국 무용 지도 - 전설자
매듭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 - 한순정
노래와 율동을 통한 수업 - 이의순
복합 문화, 해외 한인사회의 표준 한국어 연관성 - Ross King
재미있는 재미한인 인물 이야기 - 김형찬
세계 속의 한민족과 코리안 아메리칸의 사명 - 전해성, 장태한

§ 분반 강의 (기타)
Many Faces of Identity - 김원정
Round Table(7개반) - 강용진

§ 심포지움
새 천년의 한인학교 - 전신애, 강용진, 최인호, Michelle Rhee

§ 감사패 증정
방정웅 직전 회장, 서문원 직전 이사장, 정석구 주미대사관 교육관, 신영균 SAT II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감사장 수상자
이종문, 양민정, 이성옥, 최한길, 김수라, 이은태, 윤병남, 배

기교, 강대희, 고가현자, 최석원, 정민호, 심용휴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25년: 그린스보로 한국학교, 롱아일랜드 연합 한국학교, 샌엔토니오 한인학교
20년: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콩코드 한국학교, 몬트레이 한국학교, 휴스턴 한인학교, 뉴올리언즈 한국학교, 달라스 한인학교, 힐로 하와이 한국어학교, 사모아 한글학교, 아틀란타 한국학교, 트라이앵글 한국학교, 오레곤 한국학교, 뉴욕 한빛 교회 한글학교, 워싱턴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5년: 정삼숙, 최일단
20년: 이의순, 김경숙, 강화자, 이해옥, 김진, 이인신
15년: 백남숙, 박귀수, 김미경, 이광백, 정해천, 조신숙, 황오숙, 조종건, 김영희
10년: 김혜병, 송해순, 우메리, 전명희, 정영로, 이연희, 김혜식, 장은영, 이근청, 최성신, 한순정, 이소영, 김정근, 김수경, 홍경애, 진재숙, 이광숙, 백종미, 장인렬, 김현경, 김봉현

00.12.- | 회보 발간(제10회기-3호)

*2002

02.2.16 |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 임원 연석회의 - Philadelphia

02.4.27-28 | 제 6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211학교에서 3,750명 응시
출제위원: 이선근, 박시원, 이광자, 이종숙, 이해심, 임태혁, 방정웅(평가)

02.6.- | 회보 발간(제10회기-4호)

02.7.- | 한국어 (1), (2), (4) 재판 출판, NAKS Brochure 발간, <한인교육연구> 제20호 발행(19호와 합본), 제20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및 강의록 발간

02.7.18-20 | 2002년도 제20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Hyatt Regency (Philadelphia, PA), 주제: 새 시대를 여는 교사

§ 주제 강의
재외동포는 한민족의 자산: 한민족 공동체 전략과 2세 교육 - 이광규 교수
지구촌 시대의 한민족 교육 철학과 방략 - 김신일 박사
한국어 문법의 특징 - 남기심 박사(국립국어연구원 원장)

§ 학술세미나
지구촌 한민족 정체성 개발 심포지움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세계화 시대의 한민족의 정체성과 리더쉽 - 윤경로 박사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 본 한국인의 정체성 - 최준식 박사
21세기의 새로운 한국인의 상 - 김중순 박사
한국어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 박갑수 교수
한민족의 정체성: 어제, 오늘, 내일 (종합) - 김신일 박사
재미한인교육진흥재단 창립총회 개최

§ SAT II 한국어 Workshop - 이선근, 이광자, 이종숙, 김근순, 방정웅

§ 역사 문화 Workshop - 심운섭, Wayne Patterson, 이정식, 김형찬, 장태한

§ 분반 강의 (한국어)

한국어의 어휘 한글 맞춤법 - 조남호
 게임(ORDA)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 신경자
 실생활에 필요한 말하기 연습 - 박은순
 ESL 원리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 심용휴
 재외동포 청소년 사이버 한국어 강좌 - 최정순
 '숲속의 호수'에서의 한국어 지도 방안 - 심은숙
 한국어 문법 - 남기심
 한국 고전문학 지도 - 유영대
 수화를 통한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 이의순
 21세기의 한국어 교육 - 유영미
 임문기의 한국어 교육 프로젝트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 박혜숙
 효율적인 한국어 수업을 위한 교재구성 및 지도방안 - 박택
 한국어 인증시험을 통한 지도 기준 - 이진호
 효과적인 읽기 지도 - 신지혜
 시청각 자료(영화)를 이용한 한국어 지도 - 이향순

§ 분반 강의 (역사 문화)

도산과 재미교포사회에 준 그의 영향 - 김형찬
 21세기 코리안 아메리칸의 역할과 한국학교 - 장태한
 미국 속의 한인 이민: 현대 한국 역사와의 연관성 - Wayne Patterson
 토론: 이민사 교과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중급 및 초급 교과서 - 심운섭
 이론과 실기를 함께 하는 문화 예술 교육 - 박소유
 한국의 소리 - Esther Kim
 한국 무용 - 지태숙
 전산화를 통한 한국 전통문화 2세 교육 - 이영희
 한국 전통문화와 판소리 - 유영대
 한국 음악 - 진재숙

§ 분반 강의 (기타)

NAKS 출판 한국어 교과서 활용 방안 - 허병렬
 세계속의 한민족 교육 - 임삼균(과테말라), 김무선(멕시코), 황유복(중국), 강영신(온두라스)
 미국 공립학교 시설 사용에 관한 포럼 - 이광자
 Shadow Box 만들기 - Theresa 한
 Round Table - 강용진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사장: 서영훈)이 후원금 전달 (\$50,000)

§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감사장 수상자

장우진, 김경열, 김금숙, 이교연, 오금주, 이근청, 김현경, 변천우, 손애자, 황오숙, 김남석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30년: 앤아버 한국학교,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25년: 퀸즈 한인 천주교회 한국학교, 퀸즈 장로교회 한국학교
 20년: 원광 한국학교, 볼티모어 새싹 한국학교, 필라 제일 한국학교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35년: 허병렬
 30년: 남영립
 25년: 오카타리나
 20년: 김정혜, 이령화, 김근선, 신선숙, 전수경, 이경이
 15년: 박소유, 이영선, 김경옥, 김진화, 배기교, 이인애, 김옥경, 주옥임, 레리코치, 장영자, 김광일, 신의숙, 노승석, 나복희, 최영숙, 채정민
 10년: 백은주, 백은옥, 이희만, 이우황, 신정혜, 배정화, 양승

효, 박성민, 장선경, 옥경화, 유정선, 최정윤, 김경순, 윤문자, 김정자, 한숙영, 최윤수, 나경애, 최은영, 남학선, 박동순, 김금숙, 이주연, 허선미, 박수진, 이진선, 조미혜, 김용순, 남경숙, 허준영, 정숙자, 김석림, 정정자, 홍수연, 양남수, 김태훈, 최정화, 오금옥, 정소희, 김리사, 민명기, 이명은

§ 11대 임원 선출

회장: 이광호
 부회장: 장동구, 남경숙, 심운섭
 총무: 김정근
 재무: 이경이
 편집인: 이영주
 간사: 이민노

§ 13개 지역협의회 회장

서북미지역: 민명기	동북부지역: 윤병남
워싱턴지역: 이인애	하와이지역: 함영숙
동중부지역: 김정근	뉴잉글랜드지역: 이주연
북가주지역: 정해천	중서부지역: 전명희
플로리다지역: 김금숙	동남부지역: 정삼숙
남서부지역: 손창현	미시간지역: 심용휴
플로리다지역: 이시형	

§ 선출 이사

1년 임기(2001.9~2002.8) - 남영립, 장동구, 조동열, 이중익, 명계웅, 이경희
 2년 임기(2001.9~2003.8) - 강화자, 이형천, 이미옥, 남경숙, 김홍준, 서진희
 3년 임기(2001.9~2004.8) - 이광자, 윤병남, 이광호, 최한길, 최호승, 정원팔, 전수경
 이사 선출(2002.9~2005.8) - 박경혜, 정영로, 이중익, 이경희, 김태훈, 권옥순, 이휘자
 감사 - 정원팔, 이휘자

02.10. - | 코리안 아메리칸의 발자취(The Korean American Journey) 발행

편집인: 심운섭
 지은이: 장태한, 최상준, 김형찬, 전해성, 심운섭

02.11.9 | 플로리다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감사 지원 - 이영주, 황현주, 이광호

*2003

03.1.15 | 회보 발간(제11회기-1호)

03.2.1-2 |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 임원 연석회의 - New York, 각 지역협의회에서 추천된 우수 교사로 교사연수담당 상설 감사진을 구성해 각 지역 교사연수를 지원하기로 결의함.

03.3.15 |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감사 지원 - 안승순, 이광호

03.4.26-27 | 제7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209학교에서 3,509명 응시

준비위원장: 남경숙(SAT-II 한국어 담당부회장)
 출제위원: 이선근(위원장), 박시원, 백지숙, 임태혁, 이우석, 방정웅(평가)

03.5.10 | 회보 발간(제11회기-2호)

03.5.12 |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교사 초청 간담회(New York)

03.6.6 |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이력서철 발간

03.7.8 | <한인교육연구> 제21호 발행(편집인: 이영주)

03.7.14 | 제21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및 강의를 발간

03.7.23-25 | 2003년도 이민100주년 기념 제21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Hyatt Regency Hotel (Waikiki, HI), 주제: 다가올 100년과 차세대 교육, 491명 참가

§ 주제 강연

Orpheus Revisited - 신일희 박사(계명 대학교 총장)
세계를 향한 우리의 첫걸음 - 김창원 회장(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
한국 선비정신의 뿌리와 날개 - 이동희 박사(서경 대학교 석좌교수)

1.5세 2세가 바라는 한국어 교육 - 김석영 변호사(1.5세)

§ SAT II 한국어 Workshop - 이선근, 이종숙, 남경숙, 방정웅

§ 역사 문화 Workshop

하와이 이민사와 한국학교의 발자취 - 최영호
Moral Hazard 시대의 선비정신과 Leadership - 이동희
토론 (이민사 교과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발자취' 사용 경험 - 심운섭

§ 분반 강의 (한국어)

시사를 통한 한국어 교육 - 한범희
학생 활동 중심의 초급 한국어 교육 - 안순승
퍼즐 낱말놀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 김정희
한국어 문법 특강 - 남기심
초급 한국어 수업 구성 방안 - 전종보
유치부 및 기초반 한글지도 - 이승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 김정숙
인터넷으로 배우는 한국어 - 이주영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특강 - 김희진
몬테소리 방법을 통한 한국어 교육 - 전호경
Computer를 중심으로 한 과제 중심 한국어 - 주혜리
ESL 교육 방법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 심용휴
쉽고 재미있는 한글 맞춤법 동요 - 김해서

§ 분반 강의 (교육 심리)

아동 교육 심리와 학습 진전 - 이진화
아동 지능발달에 입각한 학습지도 - 정삼숙
Mind Map을 이용한 효과적인 학습 - 정선미, 오세웅

§ 분반 강의 (문화 교육)

한국 종이문화 전통과 계승 신나는 종이접기 놀이 - 한국종이접기협회(노영혜 회장 및 회원)
미술과 공작을 통한 유치부 교육 - 안리자
2세들에게 맞는 연극과 동화구연 - 최희운
한국학교 어린이 무용 학습 방안 - 전설자
한국 전통음악의 우수성과 사물놀이 - 김에스터

§ 분반 강의 (교육과정 학교 운영)

하와이 토요 한국학교 교육과정 및 모형 - 김수아
효과적인 한국학교 운영 방법 - 심수목
NAKS 한국어 교과서 지도 및 사용법 - 허병렬

§ 분반 강의 (한국학교 교육 정책)

NAKS의 새 방향과 어제, 오늘, 내일 - 강경식 2대 회장 외

전 회장단

1.5세 2세가 바라는 한국학교 - 배재령 외 1.5세 교사들
미주 한인 교육의 방향 - 김왕복 교육관 외 각 지역 교육원장

§ 공로패 증정 - 임선자 직전 회장

§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감사장 수상자

이선길, 한순용, 원재권, 이덕균, 전수경, 강용진, 최미영, 이민노, 이내원, 심형란, 신현주, 함영숙, 심수목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30년: 뉴욕 한국학교, 상향 한국학교
25년: 달라스 한인학교, 킬린 한국학교, 뉴저지 연합장로교회 한국학교, 뉴욕 YWCA 한국학교, 콩코드 한국학교, 로드 아일랜드 한인학교, 무궁화 한국학교, 콜럼버스 한국학교
20년: 뉴욕 브로드웨이 한국학교, 뉴욕 로체스터 한국학교, 뉴저지 한국학교, 후러싱 제일교회 한국문화학교, 리치몬드 침례교회 한국학교, 산호세 제일교회 한국학교, 벅스카운티 한국학교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25년: 송병옥
20년: 백병주, 천취자, 이인신, 천세련, 전현자, 김경자, 김옥현, 김경숙, 여명자, 이희숙, 김소윤, 고영자
15년: 이형천, 백종미, 이광숙, 장인렬, 한인애, 권옥순, 이정옥, 한명순, 전명희
10년: 김이선, 이미경, 정미숙, 정미자, 조선옥, 손정희, 김금자, 김동현, 김이령, 김명희, 김정혜, 남종자, 백정화, 임봉선, 임옥경, 임은애, 홍영숙, 홍태명, 구은주, 김미, 최미영, 김숙완, 백지현, 안무실, 오숙자, 윤석영, 이영숙, 황수경, 김예영, 조점순, 윤혜순, 한정희, 신인숙, 이승숙, 신현주, 임삼균

§ 차세대 교사위원회 구성 - 배재령 위원장 선출

§ 이사회 총회

이사장: 최경수

총무: 심형란

코흘리게 모금 결산액 - \$15,553.67

3년 임기 이사 선출 (2003.9~2006.8)

정숙자, 오금옥, 이형천, 조사임, 김홍준, 신현주, 심형란

03.7.29~ 8-1 | 2003년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참가-서울신라호텔

03.8.1 | 교과서 한국어 (5) 재판 인쇄

03.8.23 | 중서부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최희운

03.8.28 | 대한민국 국회교육분과위원(위원장: 윤영탁 의원) 대표단 9명 본 협의회 방문: 환영 및 간담회

03.9.27 | 콜로라도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안리자

03.10.25 | 남서부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김정희, 이선근

03.11.1 | 미시간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이선근

03.11.8 | 플로리다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김근순, 전호경

03.12.5 | 재외동포재단 이광규 이사장 본 협의회 방문 및 간담회

04.1.2 | 회보 발간(제11회기-3호)

04.1.31 |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전현자, 황현주

04.2.7-8 |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 임원 연석회의 - Atlanta, GA

04.3.4 | 허병렬 뉴욕한국학교 교장(제4대 회장) 제12회 KBS 해외동포상 수상 - 사회봉사부문

04.3.20 | 워싱턴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천세련, 이광호

04.4.3 | 미시간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김정희

04.4.24-25 | 제8회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 209학교에서 3,761명 응시

출제위원: 이선근, 조신숙, 태미경, 임태혁, 소영선, 방정웅(평가)

04.5.1 | 회보 발간(제11회기-4호)

04.6.12 | 북가주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조은미, 김혜서

04.6.26 | 동북부지역협의회 교사연수회 상설 강사 지원 - 백은주, 전현자, 허병렬

04.7.- | <한인교육연구> 제22호 발행,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연혁정리(1980.12~2004.7) - 편집인: 이광호 - NAKS 23년의 간추린 역사를 <한인교육연구> 22호 부록으로 출판, 제22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및 강의록 발간, 한국어 (재판 발행)

04.7.22-24 | 2004년 제22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Atlanta Marriott (Gwinnett Place, GA), 주제: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의 확립

§ 주제 강연 <이순신의 재발견과 한인 교육>
이수성 전 국무총리(전 서울 대학교 총장)
남기심 박사(국립국어연구원 원장)
이내원 이사(워싱턴 통합 한인학교)
성인숙 소장(통일정책연구소)
Dr. 송효섭(1.5세가 보는 한국말의 중요성)

§ 역사 문화 특강
일본 및 몽골한국학교 교과과정 및 운영 - 김용만, 강영숙
멕시코 한인이민사를 통해 본 한국근대사 - 정광현
해외 한인동포 역사의 의미와 문화적 해석 - 김성규, 함성택

§ SAT II 한국어 특강
한국어 독해력과 듣기 부문 - 이선근
한국어 문법, 관용구 부문 - 조신숙

§ 분반 강의 (한국어)
한국어 문법 - 남기심(국립국어연구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 이운영(국립국어연구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 - 김정숙(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 발행 교과서의 효과적인 지도법 - 국제교육진흥원
성공적인 중급 한국어 교육 - 주형미
컴퓨터를 활용하는 한국어 교육 - 백은주
한국어 집중 교육을 한 교과 과정 개발 - 심은숙, 이승연
Mind Map으로 한국어 잡기 - 정선미
학습교안 작성법 - 전현자
한국어 회화 교육 - 김근순
노래로 부르는 한국어 - 김혜서
재미있는 유치반 한국어 교육 - 안리자
알고보면 간단한 문법 교육 - 김수희
신나는 읽기수업 - 심정균

§ 분반 강의 (역사 문화 전통)

우리민족의 전통 사상과 예의 - 최영갑(성균관 대학교)
이중 문화속의 한국 역사 교육 전략 - 안미숙
한국의 전통차 - 이근수
한국 음악의 우수성과 사물놀이 - 김에서더
예술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 - 박소유

§ 분반 강의 (아동심리)

효과적인 문제아동 지도법 - 조은미
효과적인 학습지도를 위한 발달 심리의 이해 - 방화자
감성지능과 학습발달 - 안중식
활동영역별 유아 언어지도의 이론과 실제 - 변진영
이중 문화속에서 건강한 자아의 정체성 형성과 발달 - 조수진

§ 분반 강의 (학교 행정 및 운영과 종합)

바람직한 한국학교 운영과 관리 - 전수경
한국학교 행정 및 운영 - 허남자
차세대의 한국학교 교육 - 배재령
21세기 NAKS의 새 방향 - 이광호, 최경수
토론: 미주한국학교 교육 과정
토론: 미주한국학교 지원 방향 - 미주교육원장

§ 감사패 증정 - 김왕복(주미대사관 교육관)

§ 공로패 증정 - 이상오 직전 이사장

§ 대통령 표창 - 임선자 직전 회장

§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감사장 표창

정정자, 김종윤, 이계희, 안중식, 이복선, 박대진, 박무희, 정미자, 김응서, 김정수, 김옥현, 이시형, 강상철

§ 개교20주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30년: 미네소타 한국학교, 실리온 밸리 한국학교, 그린스보로 한국학교

25년: 산호세 한국학교,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갈보리 한국학교, 트라이앵글 한국학교, 갈보리 무궁화 한국학교

20년: 올림피아 한국학교, 오레곤 한국학교, 대건 한국학교, 하이랜드 한국학교, 렉싱턴 한국학교,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토요한인학교, 뉴저지 한국학교, 뉴욕 웨체스터 한국학교, 앵커리 한글학교, 벤엘 한국학교, 뉴욕 한민 한국학교

§ 장기 근속 교사 표창

30년: 정길봉, 윤정수, 정삼숙, 최필남

25년: 김근순

20년: 김미경, 배영열, 함해란, 오금주

15년: 성옥폴링, 박무희, 조영숙, 한선, 최승집, 심운섭, 박승애, 공영희, 문혜원, 이덕희, 박경혜, 조은미

10년: 임영미, 강주선, 황인수, 황한나, Michael Augsburger, 유우정, 육준강, 박향수, 권정아, 김영란, 김종윤, 김

숙, 유남옥, 이미셀, 이미숙, 호선희, 박혜란, 남충자, 허남자, 정황현, 이상현, 노명진, 김인숙, 박호성, 황정숙, 이정은 김 순배, 계지흥, 박현경, 김미경, 박운해, 송선미, 방화자, 한진 숙, 김복숙, 박덕순, 원정희, 민미란, 남일

04.7.24 | 정기총회

§ 제12대 임원선출

회장: 손창현
부회장: 정삼숙, 심용휴, 김정근
총무: 이민노
재무: 권옥순
편집장: 이영주
간사: 손애자(홍보)
최희윤(차세대)
심수목(웹연구)

§ 지역협의회 회장

서북미 지역: 박영실	뉴잉글랜드 지역: 남일
동남부 지역: 김수화	동중부 지역: 전수경
동북부 지역: 이경희	북가주 지역: 장동구
남서부 지역: 이형권	워싱턴 지역: 이인애
중서부 지역: 남경숙	미시간 지역: 심용휴
하와이 지역: 팽현규	플로리다 지역: 신현주
콜로라도 지역: 이시형	

§ 이사회 총회 (이사 선출)

3년 임기 이사 (Class of 2007)
김재숙(중서부), 이교연(동중부), 이내원(워싱턴),
이승은(동북부), 정원팔(서북미), 홍태명(동북부),
함혜란(뉴잉글랜드)
2년 임기 이사 (Class of 2006)
김동수(남서부), 정혜천(북가주), 김금숙(플로리다)
1년 임기 이사 (Class of 2005)
윤병남(동북부)
부이사장으로 정원팔 이사를 선출

* 2005

05.1.31 | 회보 제12권 1호 발간

05.2.4-5 |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임원 연석회의 - 텍사스주 휴스턴

05.3.1 | 한국어 첫걸음을 부분 수정하여 1,000부 인쇄

05.3.15 | 재미한인학교협의회 홈페이지 개통 (www.naks.org)

05.4.23 | 제9회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전국 실시 (담당: 정삼숙 부회장), 응시자 4,343명 (205학교)

05.7.5 | SATII 한국어 예상 문제집 개정 출간 2,000부 인쇄

05.7.15 | (한인교육연구) 제23호 발행, 제23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강의를 발간

05.7.21-23 | 제 23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장소: Hyatt Regency Houston Airport, Houston, TX, 주제: 차세대를 위한 올바른 정체성과 지도자 교육

§ 기초강연: 세계화 시대의 보편적 가치와 한민족의 정체성 (서영훈,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장)

§ 주제강연:

한국어의 특징 - 남기심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재미한인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방안 - 박영순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육 온라인 지연 - 방성원 교수

§ 시사포럼:

민족정체성을 위한 동북아 정세 교육포럼 - 노영혜 한국종이접기협회

종이접기 자격증과정 실습 - 한국종이접기협회 강사진

한국의 다: 정신과 포상 - 이근수 교수

한국민족 / 창작무용 공연 - 유옥재 교수 / 창작 무용단

역사 특강: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동북아 평화 - 한도현 교수

남상용 박사 (미시간 주립대학교 한국한 설립추진위원장)

§ 분반강의 (한국어)

유치반 대상 한국어 교습법 - 이경애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한글기호 - 윤선미

초급반 대상 한국어 교습법 - 신애희

유치반 교육 장점만 배워가기 - 최신일

재미있게 가르치는 한글 기초학습법 - 김지영

초급 한국어 교재 제작과 실제 - 전종보

중급 한국어의 영역별 교수방법 - 김정선

Preparation을 위한 고급반 수업 - 정인숙

음악을 이용한 한국어 교수법 - 구은희

문학을 통한 한국어 지도 - 안진

한자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 서영희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 김한샘

Thinking Map을 이용한 한국어 교수법 - Suzie Oh

SATII 한국어 교육 - 주신숙

한국어 철자법 교육방안 - 김정숙

한국어, 한국문화잡기 - 정선미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한국어 교육 - 정의철

분반강의 - 역사 / 문화

통일문제와 이해 - 양재성

한국학교의 역사 교습법 - 강용진

한.중.일 역사전쟁: 화해를 위한 모색 - 양미강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역사와 문화교육 - 조원석

2세들이 알아야 할 조선조의 문화와 사회 - Kawashima

전통음악 교육, 사물놀이 장단 - 정유진

한국무용의 기본 전수 - 유옥재

종이접기 문화시간 - 장윤우

시청각 자료로 배우는 한국문화 유산 - 천세련

한글을 통해 서재필 Mentorship 심어주기 - 정홍택

우리 자녀들의 정신건강-김은희

§ 공로패 증정: 이광호 직전회장

§ 부총회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감사장 수상자

차승남, 황인갑, 차승순, 김진모, 강남옥, 김혜서, 이현희

정봉순, 김대용, 이시원, 차선희, 조사임, 남상봉, 이태영

§ 개교 20년 이상된 한국학교 표창

30년: 워싱턴 통합한국학교,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25년: 빛내리 한글학교, 달라스 한국학교, 은혜한국학교,

남부뉴저지한국학교, 로체스터한국학교

20년: 아틀란타한국학교, 상항기독교한국학교, 잭슨빌침례교

회한국학교,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한국학교, 하와이무량

사한국학교, 나일스한국학교, 엘리자베스한국학교, 한마음

- 한국학교
- § 장기근속자표창
- 35년: 최영호, 김경열, 이경애
- 30년: 최일단, 정삼숙
- 25년: 김주영, 지생련, 백병주
- 20년: 김석희, 김경옥, 전설자, 오화자, 이상무, 이경희, 이련희, 장동주
- 15년: 심수목, 정선미, 이은림, 박수진, 정경애, 김순애, 산우인호, 백정화, 배정화, 이우환, 이승은, 이명숙, 김리사, 이문희, 미아게 하마꼬
- 10년: 강숙희, 이은주, 오기창, 황우정, 강상인, 정혜경, 김승희,곽성희, 김혜옥, 박인자, 임영숙, 김남석, 김대영, 김정선, 금이주, 윤미영, 김연희, 허혜경, 이애경, 명정호, 신금순, 김미희, 고승복, 강주영, 전소영, 김채영, 윤영란, 박정연, 오영주, 임혜자, 지정한
- § 한국학교 인증교하 제도 실시: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상호협력협정 체결
- § 종이접기 교사 자격증 제도 실시: 한국종이 문화원과 상호협력협정 체결
- § 제1회 미 전국 나의 꿈 말하기 대회
- 참가자 12명: 12개 지역협의회 대표
- 최우수상: 최수인 (동북부지역협의회) 제목: 함께 꾸는 꿈
- § 이사회 총회
- 본 협의회 정관개정: 명칭이 재미한인학교협의회에서 재미한국학교협의회로 개정
- 단체회원 - 과테말라한국학교(교장: 임삼균)를 인준하고 남부지역협의회로 편입
- § 3년임기 이사선출 (Class of 2008)
- 박경혜 (미시간), 명계웅(중서부), 윤병남(동북부), 권철희 (남서부), 조신숙 (북가주), 김경열 (워싱턴)

*2006

06.4.19-20 | 제10회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전국실시 (221학교에서 3,992명 응시)

06.7.20 | <한인교육연구> 제23호 발행, 제24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강의록 발간

06.7.20-22 | 제24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장소: Hyatt Regency Tech Center, Denver, CO, 주제: 세계속의 한류문화와 창조적인 정체성 교육

- § 기초강연: 한글은 가장 이상적인 낱소리 글자 - 김계곤 한글학회회장
- § 주제강연:
- 세계속의 한류문화와 창조적인 정체성교육 - 최기호 교수
- 한국의 정치사와 세종대왕의 리더십 - 정윤재 교수
- § 문화 특강:
-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과 우리 종이의 창조적 교육정책
- 전통한지와 한지 공예체험 -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
- 겨레그림(민화) 한지 부채수업 - 임지금
- 한류문화 속에서의 전통녹차의 미학 - 이근수 교수
- § 분반강의 (한국어)
- 어린이 조기교육 - 김윤선
- 놀이를 통한 한국어 수업 - 조진숙
- 노래를 통한 한국어 교육 - 김은애

- 한국어 수업 - 초급: 이은철, 중급: 신성자
- 한글교육의 효과적인 접근방법 (초급) - 이승숙
- 화닉스와 몬테소리 교육방법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입문) - 김인숙
- 몬테소리 교육방법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초/중급) - 이은미
- 통합적 학습방법을 통한 한국어 수업 (중급) - 박진민
- 어휘향상을 위한 수업 (중급) - 고영주
- 6하 원칙을 이용한 단계별 문장만들기 (초/중급) - 김승희
- SATII 한국어 수업 - 정삼숙
- 차세대 한국어 교육 - 황정숙
- 한글맞춤법의 적용 - 김혜서
- 이중언어 학습자를 위한 Technology 활용 - 박영미
- 주한인 문학의 정체성 - 명계웅
- 한국어 특징 - 최용기
- 한국 언어문화 교육 - 이길원
- 한국어 어휘의 의미 관계 - 김문호
- § 분반 강의 (역사/문화/기타)
- 세계속의 한국 - 조원석
- 전통음악, 봉산탈춤 - 김은하
- 연극 및 구연동화 - 김지영
- 동양화 (사군자) 지도법 - 유영진
- 차세대의 한국학교 교육 (토론)
- 한류문화와 사이버 교육의 접촉 - 경희사이버 대학교
- 차세대 리더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 김진형
- § 제2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 참가자 15명: 13개 지역대표 및 해외 2명
- 최우수상: 조윤정 (미시간 협의회 - 꿈을 심는 농부)
-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감사장 수상자
- 김영희, 함정택, 조사임, 이선우, 이경애, 이은미, 김승희, 장이렬, 이인애, 박영실, 황우정, 문혜원, 오승호
- § 개교 20주년 이상 한국학교
- 30년: 뉴잉글랜드한국학교
- 25년: 새크라멘토한국학교, 아틀란타한국학교, 새싹한국학교
- 20년: 아틀란타 제일한국학교, 하트포드한국학교
- § 장기근속 교사 표창
- 30년: 김진
- 25년: 김석희, 손숙영, 이인신
- 20년: 권옥순, 김영희, 박귀수, 장인렬, 정태천, 조신숙, 황오숙
- 15년: 김미경, 김미수, 김혜병, 나계선, 문성록, 송해순, 유경숙, 이근형, 이미연, 조미혜, 최진선, Paul Favreau
- 10년: 권태화, 김민정, 김은이, 김인숙, 김인애, 김정순, 노정희, 박경옥, 박선훈, 박윤경, 박현진, 서경주, 신성자, 심은정, 심혜승, 오소영, 유경화, 유미옥, 윤미아, 윤미자, 이경애, 이교연, 이시원, 이지혜, 정경용, 정옥희, 조미경, 진수연, 차문석, 한순용, 함범석, 허경숙
- § 제24차 정기총회: 제13대 임원 선출
- 총회장: 김정근
- 부회장: 전수경, 권옥순, 이민노
- 사무총장: 남일
- 재무: 심형란
- 편집장: 심수목
- 간사: 오선미 (홍보)
- 김진형 (웹마스터)
- § 지역협의회 회장

서북미 협의회: 오세영
 동남부협의회: 김수라
 동북부협의회: 이승은
 남서부협의회: 김동수
 중서부협의회: 차승남
 하와이협의회: 팽현규
 플로리다협의회: 이시형
 뉴잉글랜드협의회: 남일
 동중부협의회: 이교연
 북가주협의회: 최미영
 워싱턴협의회: 김대영
 미시간협의회: 심용휴
 플로리다협의회: 신현주

§ 이사회 총회: 제9대 이사장 선출

이사장: 김홍준
 부이사장: 이내원
 총무: 오금옥

§ 3년 이사선출 (Class of 2009)

정혜천(북가주), 오금옥(동남부), 임승희(남서부), 함성택(중서부), 김금숙(플로리다), 김홍준(서북미), 조사회(플로리다)

§ 2년 임기이사 보선 (Class of 2008) - 문홍택 (워싱턴)

§ 1년 임기 이사 보선 (Class of 2007) - 이경희 (동북부)

*2007

07.2.17 |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전국 임원, 이사회 임원 연석회의
 - 필라델피아, 펜실바니아

07.4.21-22 | 제11회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전국 실시 (담당: 전수경 부회장), 214학교에서 4,000여명 응시, 회보 제13권 1호 발간

07.8.1 | <한인교육연구> 제25회 발행, 제25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강의를 발간

07.8.2-4 | 제25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580명 참석, 장소: Hyatt Regency Dearborn Hotel, MI, 주제: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과 교사의 역할

§ 기조강연: 박건우 경희사이버대학교 총장

§ 주제강연:

이광규 교수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성공 - 차인홍 교수

§ 특강:

독도문제 바른 이해, 바른 대응 - 최홍배교수

사물놀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 에스더 김

EBS 교육방송 콘텐츠의 활용가치와 그 방안 - 류현위

§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출제 및 평가 - 출제 및 평가위원

§ 제1회 입양인 민족교육 - 21세기 한민족의 나아갈 길 - 신호범 위원

§ 분반 강의 (한국어)

아이들이 지루하다고요? 천만에요 (기초) - 배한현

엄마 한국학교 가고 싶어요! - 김현희

이야기로 배우는 초급한국어 - 이성희

카드교육을 통한 학습지도 - 김성희

감각을 통한 체험학습 (유치) - 최덕희

효과적인한국어 교수법 (중급) - 김정균

중.고급반 글짓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활동 - 박선훈

미국학교 학습방법을 이용한 한국어 학급 - 배재형

한국어 교육 - 김옥순

인터넷 한국어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 최은규

효과 만점 수업이 재미 없을 수 있나? - 윤미자

창작표현 활동을 통한 한글 교육 - 신명숙

수업 구성 단계에 따른한국어 교육 - 김재욱
 교육 두뇌를 알고 기질을 알아야 교육지킨다 - 권말순
 열매 맺는SATII 한국어 수업 - 박은경
 선생님! 저도 시인이 되고 싶어요 - 김용환
 제2 언어 습득이론과 한국어 교수활동 - 전미현
 사용을 위한 문법교육의 원리와 실제 - 방성원
 사이버를 통한 한국어 교육 - 진정란

어휘 교육 - 채보경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 이병규

iPod 세대를 위한 교육방법 및 리더쉽 - 최신일

공립학교 한국어 학점 인정과 한국어 신설 - 이광자

§ 분반강의 (문화/역사)

한국역사 및 문화교육 - 김주경

길과 믿음 - 정용철

한복과 전통인사예절 - 조연홍

글로벌 시대의 한국역사교육 - 김옥향

한국과 중국, 일본 '차' 문화의 이해 - 이근수

§ 공로패 증정 - 손창현 직전회장, 최경수 직전이사장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감사장 수상자

류호생, 윤미아, 송해순, 배영열, 강숙희, 김원구, 장병진, 박귀수, 김진, 김 현, 최윤수, 팽현규, 신옥연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인학교 표창

35년: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앤아버 한국학교

30년: 시카고한국학교, 북부보스톤한국학교, 휴스턴한인학교, 길린한국학교, 쿤즈한인천주교회한국학교, 롱아일랜드연합한국학교, 그린스보로한국학교

25년: 필라델피아 제일한국학교, 로체스터한국학교, 갈보리무궁화한국학교, 요크 한국인 학교, 아이타스한국학교

20년: 열린문 한국학교, 뉴비전한국학교, 산호세 제일교회한국학교, 필라델피아한국학교, 포트위스 한인학교, 뉴저지한국학교, 한빛한글학교, 성김대전 한국학교

§ 장기근속 교사 표창

40년: 허병렬

30년: 오카나리나

25년: 이경이, 전수경, 이의순, 김근선, 윤은자, 박순애, 변재원

15년: 김금자, 김미령, 이희만, 홍태영, 강숙희, 김진선, 김혜수, 박천유, 김헬렌

10년: 곽현자, 김애경, 김창근, 윤현주, 김재숙, 심형란, 조진숙, 배재령, 김선비, 한숙영, 오미정, 이미숙, 이승희, 김윤희, 문혜은, 이수경, 주재연

§ 제3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참가자 17명: 13개 지역협의회 대표 및 해외 4명

대상: 이재진 (부가주지역협의회) - 세상을 섬기는 세계이장

§ 제25차 이사회 총회 및 정기총회

현장개정 - NAKS회장을 총회장으로, 총무를 사무총장으로 개정

회개년도 변경 - 9월1일 - 익년8월31일을 7월1일-익년6월30일로 개정

중서부지역 협의회를 분리하여 중남부지역협의회(인디애나주, 오하이오주, 켄터키주)를 신설하기로 함 (임시회장: 김용순)

§ 선출이사 (3년임기) 선출 (Class of 2010)

이내원 (워싱턴), 이광호 (동북부), 함혜란 (뉴잉글랜드), 김성진 (중남부), 이호순 (플로리다), 정삼숙 (동남부), 심상연 (서북미), 홍태명 (동북부)

*2008

08.3.29-30 제12회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전국실시, 187 학교에서 3,077명 응시, SATII 한국어 예상문제집 재판인쇄 2,000부

08.5.10 | 회보발행 제13권 1호

08.7.17 | 제26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강의를 발행

08.7.17-19 | 제26차 한국학교 국제교육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장소: Sheraton Framingham Hotel, MA, 주제: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 교사의 역할

§ 주제강연: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다중의 시대, 언어소통 기획 - 이상규 국립국어원 원장

§ 분반강의 (한국어)

놀이와 활동을 통한 한국어 지도 (기초) - 손현숙

초급한국어교수법: 말하기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 이해영

초급한국어 학습자 가르치기 - 이해영

효과적인 재활용과 확장활동의 예시 (초급) - 윤주영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일과계획 및 운영방법 (기초) - 박선애

몬테소리교수법과 화닉스교육의 상승효과 (기초) - 김인숙

초급 및 이중언어반을 위한 ESL교육방식 - 최정화

한글 맞춤법의 실질적 적용 (중급) - 김정선

기초한자를 활용한 중급한국어 학습 - 박명희

기초한글교육 빠르고 쉽게 (4학년이상) - 황정숙

중급반의 효율적인 학습전략과 응용자료물 활용법 소개 - 김지영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과제중심 수업 (고급) - 박선희

노래로 배우는 SAT II 한국어 - 김혜서

학습도구를 이용한 어휘력 향상의 효과 - 이명진

한국어 교육의 실제 / 어휘교육에 대하여 - 조현용

한국어와 언어생활 - 이승재

특별활동을 통한 한글교육 - 정은애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수행평가의 종류와 활용방법 - 유솔아

한국어 사용과 Family Communication Pattern의 상호관계 - 전홍식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동기와 원리 - 최기호

§ 분반강의 (문화/역사/기타)

한국학교의 역사교육과 교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 박찬미

세계 온라인 백과사전의 이순신 - 왜곡된 기술을 말한다 - 이내원

전통문화교육으로 문화정체성 키우기 - 김연정

우리 멋 한지공예 색지상자 만들기 - 최광숙

창의성을 키우는 종이접기 교육 - 한기선

중급한국어에서의 문화의 역할과 Cultural Literacy - 김정연

교장 및 학교운영자를 위한 Workshop - 이광호

사람을 얻기 위해 - 김영순

§ 제4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참가자 18명; 14개 지역대표 및 회외4명

대상: 갈지연 (뉴질랜드) - 우리의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음식의교관

§ 제2회 입양인 교육

주제: Korean Adopte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 Culture

Panelists: Seiwoong Uh, Kim Park Nelson, Maija Brown, Jennifer Kwon Dobbs, Hangtae Cho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감사장 수상자

고은자, 박경혜, 김동수, 이마리아, 김정수, 윤미자, 유선, 허준영, 김인숙, 이종은, 정운혜, 고영란, 유동란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인학교 표창

35년: 뉴욕한국학교, 상향한국학교

30년: 무궁화한국학교, 롱아일랜드 연합한국학교, 산호세한국학교, 일리아나한국학교,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롱아일랜드 한인교회한국학교

25년: 제일연합감리교회한국학교, 뉴욕브로드웨이한국학교, 벅스카운티한국학교, 산호세 제일교회한국학교, 상향 기독교 한국 학교, 필라델피아한국학교, 달라스 한인학교 (달라스 캠퍼스, 갈랜드 캠퍼스)

20년: 달라스 한인학교 (케플턴 캠퍼스), 타코마한국학교, 보스톤한국학교, 헤브론한국학교, 게인스빌한국학교, 보스톤천주교한국학교

§ 장기근속 교사 표창

30년: 김정수

25년: 천세련, 허권

20년: 장종철, 황희연, 이정옥, 영숙고령, 전명희, 김영선, 문혜원

15년: 이민노, 이명숙, 이영숙, 윤미자, 최미영, 현광순, 오영주, 박정연, 허준영, 권순우, 강말희, 김혜병, 정미숙, 이미경, 한숙영, 김금숙, 박동순, 신현주, 방정웅, 김대영, 신동환, 이은용, 이복란, 황정숙

10년: 이은경, 김보경, 안소현, 이선우, 한종은, 남혜영, 김호순, 심용휴, 오갑수, 송진영, 정연미, 윤경화, 인명희, 백지숙, 장중혁, 김정자, 장애신, 이신경, 이애숙, 백은옥

§ 제26차 정기총회 - 제14대 임원선출

총회장: 이민노

부회장: 김대영, 신현주, 남일

사무총장: 정용철

재무: 심형란

편집장: 윤미자

간사: 오선미(홍보), 고은자(교육), 김진형(대리협력), 이지훈(웹관리)

§ 이사회

신임이사(3년임기) 선출 (Class of 2011)

손창현(남서부), 조신숙(북가주), 문종택(워싱턴), 심용휴(미시간), 전명희(중서부), 팽현규(하와이), 심운섭(동북부), 김에스더(서북미), 전수경(동중부)

§ 지역협의회회장

동남부협의회: 김수라

워싱턴 협의회: 황오숙

뉴잉글랜드 협의회: 오인식

플로리다협의회: 신현주

북가주협의회: 최미영

하와이협의회: 손애자

동북부 협의회: 허남자

중서부 협의회: 강상인

남서부협의회: 엄재윤

동중부협의회: 강남옥

플로리다협의회: 조사임

미시간협의회: 강용진

서북미협의회: 최기선

중남부협의회: 김용순

08.8.1 | NAKS와 국립국어연구원 간 상호업무협정서 체결

08.11.21-23 |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전국임원, 이사회임원 연석 회의 (Orlando, FL)

08.12.5-7 | 대륙별 한글학교 협의회 대표자회의 참석
이민노 총회장, 남일 부회장 (장소: LA 교육원)

*2009

09.1.8 | NAKS와 (주)대교미주법인 간 상호업무협정서 체결

09.3.12 | 방화로 전소된 국보제1호 숭례문 복원 성금전달
문화유산국민 신탁측에 \$12,700

09.3.21-22 | 제13회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전국동시 실시 (담당: 김대영부회장), 207학교에서 2,972응시

09.4.10 | 한국어 (6) 재판 1,000권 인쇄

09.7.23 | <한인교육연구> 제26호 발행, 제27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강의록 발행

09.7.23-25 | 제27차 한국학 교육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장소: Rosen Center Hotel, Orlando, FL, 주제: 한민족 정체성 확립과 세계를 향한 인재교육

§ 기조강연: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주제강연: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전용의 필요성 - 김승곤 한글학회 회장

한국어 교육과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 - 송향근 이중언어 학회 회장

소수계 2세들의 정치, 사회적 아이덴티티 - 김동석 소장
국립국제 연구원 Talk Program 소개 - 이택용 팀장

§ 분반강의 (한국어)

'가나다'가 아니라 '아아어어'부터 (기초) - 이윤경

'나야 야, 한글!' (유치) - 조은영

성장에 따른 학습에 도움주는 접근방법 (초급) - 김지영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재만들기 (기초) - 김인에

유치방의 효과적인 교재 활용과 적용 - 이희진

미술교육을 통한 창의력 개발 (초급) - 김기희

효과적인 기초/초급 학습방법 - 이경애

SATII 한국어반 지도는 이렇게 - 신에스더

효과적인 교수 및 교과적인 교수방법 (중, 고급) - 이영희

중급과정 한국어 교육의 실제적인 교육방법 - 육옥영

중급학생을 위한 수업활동과 자료개발 - 오보미

쓰기능력 향상을 위한 예상기법 활용 - 권순희

전통가락과 음악컨텐츠를 이용한 말하기 - 박지연

영화클립을 이용한 한국어 수업 - 이현규/이범

어문 규정 (1), (2) - 정호성

한국학교 연극의 방법 / 교육적인 효과 - 허병렬

우리 말의 말 접대법 - 김승곤

사진을 활용한 문형(문법) 교육 - 이현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 송향근

다양하고 복잡한 문형과 문법으로의 초대 - 원문경

전뇌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교육 - 설인숙

Wonderful Korean! It's Easy! - 김혜순

다양한 수업활동을 통한 효과적인 접근 - 황정숙

재미 가득, 흥미가득, 함께하는 즐거운 한글공부 - 윤주영

노래와 카드를 이용한 기초반 교육 - 김정희

유아를 위한 미술 치료과정 노하우 - 이윤희

인성교육을 위한 말하기, 듣기 교육방안 - 권순희

고학년 교사들을 위한 현장경험 교수법 - 최춘자

§ 분반강의 (문화/역사/기타)

한국전통무용 - 김에스더

2세들에게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리기 - 박기태

영상교육을 통한 효과적인 역사교육 - 이범

재미동포교육과 북한 이해 - 박기련

재미한인이 전개한 역사구현 운동의 의의 - 류승렬

보람과 성공을 부르는 종이접기 교육 - 한기선

통합두뇌개발 종이접기 놀이 - 신명숙

한국인의 우수성과 미래의 리더쉽 - 한재숙

주정부로부터 한국학교 인증받기 - 정삼숙

§ 문화 특강

한국의 역사와 문화 - 2세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리자 -

박기태 반크사이버 사절단장

우수한 우리종이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창조력을 위한 전략

-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

한민족 네트워크와 국가 브랜드 사업 - 이영주 한민족센

터 기회팀장

차 덕 - 차로 얻는 놀라운 효능과 5미 - 이근수 교수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상의 미 - 이영희 미래문화 이사장

§ 제5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18명 참가: 14개 지역대표 및 해외4명

대상: 최지원 (남서부지역협의회) - 동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수의사

§ 제3회 입양인 민족교육

Panelists: 김한국, Mrs. Kroeger, Annie Kroeger (소연),

김상호, 김인숙, 신현주

§ 공로패 증정 - 김정근 직전총회장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문화 공로 표창장 수상자

이광호, 손창현, 김정근, 이민노

§ 국립국어원 원장 표창장 수상자

김수라, 김대영, 남일, 신련주, 최미영, 손애자, 허남자, 강상

인, 엄재윤, 강남옥, 조사임, 김용순, 강용진, 최기선, 신옥연

§ 개교 20주년 이상 한인학교 표창

30년: 휴스턴 한인학교, 영락 한글학교, 노스태플라이나 트
라이앵글한국학교, 갈보리 무궁화한국학교, 남부 뉴저지 한
국학교

25년: 뉴욕 한인한국학교, 뉴저지한국학교, 대건한국학교,
후러스 제일교회 한국문화학교,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한국학교

20년: 이스트베이 침례교회한국학교, 신시내티 한인장로교
회 한글학교, 천주교 산호세한국학교, 필라델피아 한인 천

주교회한국학교, 영생한국학교,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
교회한국학교

§ 장기근속교사 표창장 수상자

35년: 최필남, 김진

30년: 김근순

25년: 배영렬, 이광호, 이희숙, 강신옥

20년: 심운섭, 강숙희, 김윤수, 나경애, 유경숙, 이영준, 유
선

15년: 유보은, 방화자, 최정화, 윤미아, 오금옥, 임은애, 이종
숙, 허남자, 백미아, 김은숙, 원수옥, 강남옥, 오미정, 김복숙,
임영숙, 황수경, 이승숙, 김대영, 황정숙, 김인숙, 김은진, 이
지혜, 양재일

10년 - 장경선, 홍영옥, 임지현, 김정원, 장영숙, 윤정옥, 심

승재, 이희옥, 임은천, 박기용, 심정균, 한애경, 황현주, 하금
실, 김미선, 신경애, 염정은, 김현미, 손용주, 고수지, 강옥향,
한광호, 하은자, 이선영, 이건영, 백금숙, 이선이, 김정애, 이
희진, 김양선, 김미라

§ 이사회 총회: 제10대 이사장 선출

이사장: 이내원
부이사장: 김수라
총무이사: 이호순

§ 3년임기이사 선출 (Class of 2012)

장동구(북가주), 김수라(동남부), 김현길(워싱턴), 윤찬기(
플로리다), 우성관(중서부), 서영완(플로리다), 박귀수(서북
미), 문성록(동중부)

09.8.19 | 연합뉴스와 상호업무협정 체결, 열린 사이버 대학교와
산학협정 체결

09.10.9 | 제28회 세종문화상 민족문화부문 단체상 (제 4094호)
수상 - 상금 3천만원

09.11.21 |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 임원, 이사회 임원 연석회
의 - Seattle, WA

*2010

10.3.19-21 | 제14회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전국동시 실시: 192
학교에서 2,632명 응시

10.5.10 | 회보 제14권 2호 발간

10.7.20 | <한인교육연구> 제27호 발행, 제28차 학술대회 프로그
램 및 강의를 발간

10.7.22-24 | 제28차 한국학 국제교육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장
소: Hyatt Regency Bellevue, WA, 주제: 한국어/한국문화의 세
계화와 한국학교 교사 전문성 향상

§ 기조강연: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 - 이어령 초대 문화
관광부 장관

§ 주제강연: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의 세계화 - 최기호 올란바
타르대학총장

§ 특강:

코리아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 김성규회장
제14회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평가 - 김대영 부회장 / 방
정웅 위원장

우수한 우리 종이문화의 세계화와 문화 창조력을 위한 전
략(3)

- 노영혜 종이 문화재단 이사장 / 양재교육협회 강명옥회
장

미국의 유대인 교육이 재외동포 교육에 주는 시사점 - 강
성봉 편집국장

재외한국학교 지도자들을 위한 21세기 리더십 개발 - 주
재은 박사 / 최익선 교수

한국학교에서의 국악놀이 마당: 김희진 전 국악놀이 연구
소 팀장

§ 분반 강의 (한국어)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국말과 글은 쉽지 않아요 -
이승숙

초급학습자를 위한 재미있는 교수법 - 김선정

아동초급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듣기 교수법 - 김
선정

아동초급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쓰기 교수법 - 김선
정

기초반에서 다루는 한국어와 한글의 특징 - 김진홍

기초과정 시청각교재를 활용한 재미있고 효과적인 한글교
육 - 이유경

초급과정 모범수업 및 교수법 - 김명희

중급반 이상 학급에서 효과적인 글쓰기 지도 - 김선화

SATII 한국어 교육 - 임태혁

효과적인 중급반 수업을 다양한 활동의 예 - 윤주영

중급 학습자를 위한 어휘와 문법 교수법 - 이해영

중급 학습자를 위한 말하기, 듣기 교수법 - 이해영

중급 학습자를 위한 읽기, 쓰기 교수법 - 이해영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및 문법교육 방법 - 김중
섭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쓰기 교육방법 - 김중섭

노래와 수화를 통한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 이의순

얼씨구 한국어 지도 - 황세희

Craft와 교구를 이용한 한국어 지도 - 변연경

다문화사회 학습자를 위한 놀이 활용 한국어 수업 방안 -
임미성

통합교육을 통한 실제적인 한국어 교육 - 장미영

이중문화 가정의 자녀 어떻게 가르쳐야하나 - 황정숙

한국어 교과서와 유머 활동, 의사소통교육 연구 - 이길원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적인 수업방법 - 김영선

한국어 맞춤법의 효율적인 한국어 수업 - 송향근

시조를 활용한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 - 엄선규

종이접기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 김정자

§ 분반 강의 (문화/역사/기타)

동포2세를 위한 역사, 문화교재 '한국을 찾아라!' - 최미영
2세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제적인 한국역사, 문화교육 - 정
은경

한국학교에서의 국악놀이마당 - 김희진

종이접기 창조의 세계 - 송석

전래놀이를 통한 문화교육 - 전설자

통합 두뇌개발 종이접기 놀이 - 앤지 문

우리아이의 죄를 알고 재능을 알아야 성공시킨다 - 권말순

교사들이 알아야 할 아동의 심리와 교육이론 - 강용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학교의 역할과 과제 - 주재
은 / 최익선

고학년 반에서의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방법 및 예화 - 남
상업

한국학교교사의 자기 반 경영 선생님 CEO - 오금옥

동양사상에서 본 몸과 생명, 장수의 비결 - 이근수

꿈꾸는 아이 - 꿈을 키워주는 교사 - 인현미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보인다 - 김용환

§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중연구 프로그램

김재욱교수: 국어학 개론 1, 문법교육론 1,2, 한국어문법론
1,2

조현용교수: 국어한개론 2, 한국어교수법 1,2, 한국어어휘
론 1,2

송향근교수: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어문규범 1,2,3

§ 제6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17명 참가: 14개 지역 대표 및 해외 3명

대상: 이경미 (하와이지역협의회) - 나의 꿈은 고아원 원

- 장님
- § 제4회 한국계 성인 입양인 민족대회
주제: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뿌리는? - Who am I? What is My Identify?)
Panelists: 신희범박사, Hollee McGinnis, Tara Vanderwoude, Ardis Hendrix, 김인숙
- § 공로패 증정 - 김홍준 직전회장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감사장 수상자
김영순, 오카타리나, 김신희, 이승숙, 김명숙, 김은혜, 윤찬기, 정다운, 정은경, 이미숙, 윤선미, 변재원
- § 개교20주년 이상된 한인학교 표창
40년: 워싱턴 통합한국학교 MD Campus, 하와이한인사회 학교
35년: 실리콘밸리한국학교, 타고마한국학교
30년: 무궁화한국학교, 빛내리한국학교, 제일연합한국학교, 갈보리무궁화한국학교,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사모아한글학교, 로체스터한국학교
25년: 타코마새생명한국학교, 리치몬드침례교회한국학교, 벤쿠버통합한국학교, 엘리자베스한국학교, 무량사한글학교, 포틀랜드제일침례교회한국학교
20년: 한인제일침례교회한글학교, 데이비스한국학교, 과테말라한국학교
- § 장기근속교사 표창장 수상자
40년: 이경애
30년: 강화자, 백병주, 이의순,
25년: 장동구, 정해천, 조신숙, 황희연
20년: 권순우, 김리사, 도정숙, 민명기, 심수목, 이문희, 호선희, 홍태명
15년: 곽현자, 김남석, 김미란, 김미희, 김민정, 김순란, 김채영, 백지숙, 성옥폴링, 유경화, 유문자, 유미옥, 윤영란, 이에경, 임영숙, 지정란, 한혜정, 황우정
10년: 고영란, 권성타, 김경희, 김선경, 김선화, 김연정, 김영란, 김영순, 김효진, 남궁령, 박계옥, 박규흠, 박미영, 박진민, 박희정, 서수민, 서지혜, 송은주, 유경숙, 유명순, 이미영, 이미현, 이민정, 이순희, 이인영, 이현주, 이혜연, 임현찬, 정용철, 주춘옥, 천경주, 최장희, 허화진, 홍현이
- § 정기총회 - 제15대 임원 선출
총회장: 심용휴
부회장: 강상인, 강남옥, 최미영
사무총장: 남상엽
재무: 오금옥
편집장: 김인숙
간사: 심정균(홍보), 김에스터(문화), 이현진(웹)
- § 지역협의회 회장
남서부협의회: 정은애 뉴잉글랜드협의회: 오인식
동남부협의회: 김옥현 동북부협의회: 고은자
동중부협의회: 강남옥 미시간협의회: 강용진
북가주협의회: 이정옥 서북미협의회: 노옥남
워싱턴협의회: 황오숙 중서부협의회: 강상인
중남부협의회: 김용순 플로리다협의회: 이시형
플로리다협의회: 김현 하와이협의회: 손애자
- § 이사회 총회
3년임기이사 선출 (Class of 2013)
이광호(동북부), 이호순(플로리다), 심상연(서북미), 강화자(동남부), 홍태명(동북부), 안승훈(중남부), 김대영(워싱턴), 남 일(뉴잉글랜드)
1년임기 이사 보선 (Class of 2011)

이문형(워싱턴), 정다운(서북미), 오준석(미시간)
이내원이사장 선출이사 임기만료 - 헌장 제16조 다항에 의함, 후임이사장 선출은 헌장제18조에 의해 선출하기로 함
제11대 이사장 선출
이사장: 이광호, 부이사장: 장동구, 총무이사: 이호순

*2011

- 11.2.11-12 |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NAKS임원, 이사회임원 연석회의 - 샌프란시스코
- 11.3.1-5.31 | 창립 30주년 기념 NAKS 교과서 50% 대할인 판매
- 11.3.10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홍보책자 발간 (창립30주년기념)
- 11.3.18-20 | 제15회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전국실시 (담당: 강남목부회장) - 173학교에서 2,398응시
- 11.5.11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간담회 (주미한국대사관), 일본 쓰나미 이재민 구호성금 (\$6,500) 전달 (주미일본대사관)
- 11.7.14 | <한인교육연구지> 제 28호 발행, 제29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강의를 발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연혁정리 (1980.12-2011.7) - NAKS 30년의 간추린 역사를 제 28회 한인교육연구지 부록으로 출판 (작성자: 이광호)
- 11.7.14-16 | 제29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창립 30주년 기념), 장소: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CA, 주제: 교육과정 확립과 교사전문성을 향한 도약
§ 기초강연: 이배용 국가 브랜드 위원회위원장
§ 특강:
한국어 정책과 한국어 교육- 권재일 박사
우리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것인가? - 윤경로박사
전통 지혜지접기를 활용한 종이접기 창작 세계 - 노영혜 종이 문화재단 이사장
인재로 키우는 종이접기 영재교실 -양재교육협회 강명옥 회장
- § 30주년 심포지엄
NAKS의 현재 - 심용휴 재미한국학교협의회 15대 총회장
한국학교의 추억 및 NAKS 미래에 대한 제언 - 강지아 한국학교 졸업생
NAKS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및 교육과정 - 조성대 교수
NAKS의 미래를 위한 교육생태계의 구축 - 김경근교수
- § 분반강의 (한국어)
미디어를 이용한 수준별 한국어 문화 교수법 - 전상이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모국어 활용에 관하여 - 김태성
언어학습전략 사용을 통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학습법 - 박선애
한국어 어휘교육: 의미망을 활용한 이야기 하기 - 신현숙
고양이를 부탁해 - 서경숙
재미와 교육이 넘쳐나는 한국학교 디자인하기 - 최신일
동북부협의회 한국어 교과과정- 박찬미, 안승순, 이명진
영어권 교재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과 듣기 교육 - 이해영

“인터넷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 임병준
 한글학교교육과정 - 김정숙
 SAT II 한국어 - 방정웅, 강남옥
 빅백 신드롬: 신세대를 위한 멀티미디어 한국어 발음 교육 프로그램 - 조덕현
 초급 학습자의 화용 발달을 위한 교수방안 - 정지영
 “말하기 수업방안” - 임병준

National Standards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and 5C - 조성대
 시조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 엄선규
 한민족 교육열의 동인과 그 승화 - 김경근
 시조 1, 2 - 마크 피터슨
 효과적인 한국교육을 위한 컴퓨터반 - 강주연

§ 분반강의 (문화/역사)

역사수업의 준비와 진행 - 강옥향
 즐거운 한국의 역사와 문화 - 김혜서
 UCC 작품 활용 한국 역사 문화 교육 방안의 모색 - 류승렬, 정정숙
 풍속화에 나타난 한국의 전통놀이 - 전송배
 마음 속에 새겨질 조상들의 정신, 독립운동 - 김현주
 한국 민요 - 김오택
 한국적인 주제와 다양한 재료 및 기법을 통한 미술활동 - 김성경
 뮤지컬 동요와 동요를 통한 한글 발음 교정 - 배영란
 종이접기로 배우는 재미있는 한글공부 - 김정자
 정있게, 색다르게, 그리고 졸리지 않게 진행하는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모임 - 오정선미
 종이문화재단 온가족이 함께 하는 종이문화 - 하진희
 백범 김구와 리더십교육 - 이성윤
 종이문화재단 감성쑈! 창의쑈! - 강명옥
 왜곡된 상고사의 고찰 - 이문형

§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중연구 프로그램

방성원(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문법 교수론 1, 2 한국 어 교수법 1, 2
 김정숙(고려대학교): 한국어 문법론 1, 2
 이해영(이화여자대학교): 화용론 1, 2
 이승재 언어정보팀장: 한국어 어문 규범 1, 2 국어학 개론 1, 2

§ 제1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백범상: 정안젤라

§ 제1회 한국 역사 문화 교사 퀴즈 대회

§ 제5회 입양아 한인교육 심포지엄

주제: 한인 입양아를 위한 다양한 한인교육 프로그램 소개
 Panelists: 김에스더, 김선미, 이현진, 이은재, 김인숙

§ 제7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6명 참가자 중 해외 2명, 국내 참가자 4명
 (과타말라, 플로리다, 뉴잉글랜드, 뉴질랜드, 북가주, 워싱턴)

§ 공로패 증정: 이민노 직전총회장, 이내원 직전이사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감사장 수상자

김명희, 안성란, 최연식, 김정자, 김윤희, 강정인, 김미경, 한희영, 김선미, 남상엽, 배순영

§ 개교 20주년 이상된 한인학교 표창

40년: 앤아버한국학교
 35년: 스테튼아일랜드한국학교, 킬린한국학교
 30년: 뉴올리언즈 한국학교, 콩코드한국학교, 벅스카운티 한국학교,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애틀랜타한국학교, 잭슨빌 토요한국학교

25년: 클리블랜드 한국학교, 리하이벨리 한국학교, 빛의 나라 한국학교, 뉴저지연합장로교회한국학교, 이스트베이침례교회한국학교, 뉴욕한빛한국학교, 성 김대건 한국학교, 텔라웨어 한국학교

20년: 포코노한국학교,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 한국학교, 사랑한국학교, 트렌톤 한국학교, 소노마 카운티 한국학교, 북가주 세종한국학교

§ 장기근속교사 표창장 수상자

45년: 허병렬
 35년: 정삼숙
 25년: 이광숙, 황오숙, 전설자
 20년: 문성록, 선우인호, 오정선미, 김정미, 송지은, 장은영, 김용순

15년: 김정자, 서경주, 박원교, 박현진, 강혜옥, 조은재, 김진명, 김윤희, 심정균, 신성자, 오소영, 유명숙
 10년: 이소연, 박미정, 신혜경, 강옥향, 박성심, 전숙희, 신종해, 안순승, 김수미, 이인경, 박동진, 양현숙, 김인숙, 윤은남, 정혜숙, 한희영, 안명혜, 이정현, 황현식, 이주연, 유명희, 유명렬, 박윤정

§ 정기총회: 제15대 임원

총회장: 심용휴
 부회장: 강상인, 강남옥, 최미영
 사무총장: 남상엽
 재무: 오금옥
 편집장: 김인숙
 간사: 심정균(홍보), 김에스더(문화), 이현진(웹진)

§ 지역협의회 회장

남서부협의회: 정은애	뉴잉글랜드협의회: 오인식
동남부협의회: 김옥현	동북부협의회: 고은자
동중부협의회: 강남옥	미시간협의회: 강용진
북가주협의회: 이정옥	서북미협의회: 노옥남
워싱턴협의회: 황오숙	중서부협의회: 강상인
중남부협의회: 김용순	플로리다협의회: 이시형
플로리다협의회: 김현	하와이협의회: 손애자

§ 당연직 이사과 선출이사: 45명 (2011년 2월 11일 현재)

당연직이사 (24명)

* 집행부: 심용휴, 강상인, 강남옥, 최미영, 남상엽, 오금옥, 김인숙, 심정균, 김에스더, 이현진
 * 지역협의회 회장: 정은애, 오인식, 김옥현, 고은자, 강용진, 이정옥, 노옥남, 황오숙, 김용순, 이시형, 김현, 손애자, 강남옥*, 강상인*
 * 이민노 직전 총회장, 이내원 직전 이사장
 * 동중부(강남옥), 중서부(강상인): NAKS 부회장 겸임

선출이사 (25명)

* 2011년 8월 31일 임기만료 이사:
 허남자 (동북부), 손창현 (남서부), 조신숙 (북가주), 이문형 (워싱턴), 정다운 (서북미), 전수경 (동중부), 오준석 (미시간), 전명희 (중서부), 구정희 (하와이)
 * 2012년 8월 31일 임기만료 이사:
 장동구 (북가주), 김수라 (동남부), 김현걸 (워싱턴), 윤찬기 (플로리다), 서영완 (플로리다), 박귀수 (서북미), 문성록 (동중부), 우성관 (중서부)
 * 2013년 8월 31일 임기만료 이사
 이광호 (동북부), 이호순 (플로리다), 강화자 (동남부), 심상연 (서북미), 홍태명 (동북부), 안승훈 (중남부), 김대영 (워싱턴), 남일 (뉴잉글랜드)

- § 지역협의회의 선출이사 수
 3명: 워싱턴, 동북부, 서북미
 2명: 중서부, 북가주, 동남부, 플로리다, 동중부
 1명: 미시간, 하와이, 남서부, 중남부, 뉴잉글랜드, 콜로라도

*연혁 작성의 내용 및 원칙

〈작성자 주〉

1. 중요 사항을 연대순으로 기록
2. 본 협의회가 발행한 모든 출판물을 기록
 예) 한국어 교과서, 역사/문화 교과서 및 단원 (Module), 〈한인교육연구〉지, 교육과정, SAT(II) 한국어 문제집, 회보,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로그램 및 강의록, 홍보용 안내 책자, 주소록
3. 대표자회의,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장소, 날짜, 주제, 참가인원, 주제강의와 특강 제목과 강사 이름 (학위와 직위 기록), 분반 강의 제목과 강사 이름, Workshop-SAT II 한국어, 역사/문화 (학위와 직위생략), 교육자료 전시품은 제출 학교와 교사이름 기록
4. NAKS가 증정한 감사패, 공로패, NAKS 임원이 타 기관으로 부터 받은 감사패, 공로패, 교육부 장관 감사장 수상자, 개교20년 이상된 학교 명단, 장기 근속 교사 표창 명단
5. 회장단 및 임원 명단, 지역협의회 회장 명단, 이사장 및 이사회 임원 명단, 선출이사 및 감사 명단은 신입회장이 선출되는 해에 기록 (격년)
6. 본협회에 후원금을 기증한 개인이나 단체 (1만불 이상) - 한국정부 지원금은 기록하지 않음 (매년 결산서에 기록됨)
7. 사업, 행사, 회의 등은 중요한 것을 골라 기록, 연혁 초안은 모든 전직 회장들이 검토하였고 검토된 초안은 다시 현 11대 임원들과 15대에서 보완하였음.
8. 과거 30년간의 업적을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교육 방향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위함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지역협의회 창립일과 초대 회장 명단

- | | |
|---|---|
| 1981.4.18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창립 @ Washington D.C.
 초대 회장 - 주하성 | 1985.3.-
중서부지역협의회 창립 @ Chicago
 초대 회장 - 김기원 |
| 1984.3.23
워싱턴지역협의회 창립 @ Washington D.C.
 초대 회장 - 엄영일 | 1985.5.11
동북부지역협의회 창립 @ New York
 초대 회장 - 허병렬 |
| | 1989.10.14
뉴잉글랜드협의회 창립 @ Boston
 초대 회장 - 김영집 |
| | 1989.11.18
남서부지역협의회 창립 @ Houston
 초대 회장 - 김경숙 |
| | 1990.11.3
동남부지역협의회 창립 @ Atlanta
 초대 회장 - 김경숙 |
| | 1991.3.1
서북미지역협의회 창립 @ Seattle
 초대 회장 - 오계희 |
| | 1991.3.2
북가주지역협의회 창립 @ San Francisco
 초대 회장 - 정희상 |
| | 1991.3.3
하와이지역협의회 창립 @ Honolulu
 초대 회장 - 조성천 |
| | 1991.3.16
플로리다지역협의회 창립 @ Miami
 초대 회장 - 정대용 |
| | 1992.3.21
미시간지역협의회 창립 @ Detroit
 초대 회장 - 남영림 |
| | 1992.3.28
콜로라도지역협의회 창립 @ Denver
 초대 회장 - 선창균 |
| | 2000.9.30
동중부지역협의회 창립 @ Philadelphia
 초대 회장 - 김정근 |
| | 2007.10.13
중남부협의회 창립 @ Indianapolis
 초대 회장 - 김용순 |

{ 역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임원단, 이사장단 및 감사 명단 }

임기 (시작)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편집인	간사	이사장	부이사 장	총무	감사
초대 1981.4	주하성	강경식 서문원 백예원	이서구				초대 오학근			고일석 고충음
2대 1984.11	강경식	서문원 김치경 엄영일	이영작	고의곤			2대 주하성			이춘재 정금조
3대 1986.9	서문원	고의곤 김유미	김기봉	김영균	류기창		3대 강경식		류기창	김일호 김치경
4대 1988.9	허병렬	황보철 이상오 정금조	김기봉	이휘자			4대 허병렬	김치경 (김은자)	류기창 (김은자)	김숙자 김송희
5대 1990.9	황보철	남영림 김기봉 김일호	류기창	이휘자	허병렬		5대 황보철	이광자	이경이	김근순 김정오
6대 1992.9	김기봉	김정오 이경이 류기창	이광자	김금순	허병렬		6대 서문원	김기봉 (임금진)	조동렬 (김근순)	김정태 이휘자
7대 1994.9	이상오	함예란 김홍준 강혜경	방정웅	임선자	허병렬		7대 이상오	김홍준	남경숙	남영림 이광호
8대 1996.9	최경수	방정웅 이광호 박규영	명계웅	심운섭	허병렬	김정태 (기록)	8대 최경수	정원팔	심형란	이광자 이휘자 이내원
9대 1998.9	방정웅	이광자 임선자 송창현	장동구	심운섭	허병렬		9대 김홍준	이내원	오금옥	홍태명 조신숙 정삼숙
10대 2000.9	임선자	김정태 김근순 강용진	심운섭	심수목	허병렬		10대 이내원	김수라	이호순	심상연 홍태명
11대 2002.9	이광호	장동구 남경숙 심운섭	김정근	이경이	이영주 (상설 교사연수)	이민노 (상설 교사연수)	11대 이광호	장동구	이호순	문성록 허남자
12대 2004.9	손창현	정삼숙 심용휴 김정근	이민노	권옥순	이영주	손애자 최희윤 심수목				
13대 2006.9	김정근	전수경 권옥순 이민노	남 일	심형란	심수목	오선미 김진형				
14대 2008.9	이민노	김대영 신현주 남 일	정용철	심형란	윤미자	오선미 고은자 엄재윤				
15대 1010.9	심용휴	강상인 강남옥 최미영	남상업	오금옥	김인숙	심정균 김에스터 이현진				



학생중심! 특성화교육!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www.wdu.ac.kr

나
를
인
간
의
문
화
에
학
습
하
라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과 교육능력을 갖춘 한국어 문화 교육자 양성

학과특징 : 한국어 교원2급(소정과목 이수 시 취득 가능)

4년 연속 재학생 재등록율 1위 / 웰빙문화부문 최초 사이버대학원 인가

201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원서접수 : 2011년 7월 11일(월) ~ 8월 12일(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계 없이 지원 가능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한국문화학부 차문화경영학과,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약물재활복지학과, 얼굴경영학과, 부동산경영학과, 서비스경영학과, 경찰학과

인터넷을 통한 정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4년제 사이버대학교

입학특별장학금

장학종류	선 발 기 준	장 학 율	
형설 장학금	•최종학력이 전문계고교 졸업자 (실업계고교, 방송통신고교, 대안고교)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신입학	수업료 20%감면(1회)
주부 장학금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여성주부	신(편)입학	수업료 20%감면(1회)
직장인 장학금	직장인 및 개인사업자 본인	신(편)입학	수업료 20%감면(1회)

입학상담: 82-070-7730-0010 / <http://enter.wdu.ac.kr>



학생중심! 특성화교육!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 양성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대학

UNIST

- ✓ 신입생 100% 장학금 혜택
- ✓ 전 강좌 100% 영어 강의
- ✓ 전 학생 100% 기숙사 생활

- 개교 3년 만에 한국 내 최정상 대학으로 성장
-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으로 20년 뒤 세계 10위권 대학 목표
- 한스 쉐러 줄기세포 연구센터, 세포간 신호교신을 통한 암제어 연구 센터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UNIST 그래핀연구소 등 세계적 연구센터
- 학부/대학원 전체 모집인원의 최대 20%를 외국 학생으로 선발

UNIST와 함께
첨단 연구를
진행하는
세계적 석학



독일 막스 플랑크
줄기세포 연구소
한스 쉐러 박사



201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



나노분야의 노벨상급
세계적 석학
Zhong Lin Wang
교수



'Lab CD' 시스템의
창시자
Marc J. Madou
교수